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연구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최정호 · 정경희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연구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최정호 · 정경희



IFWF

Incheon Foundation
for Women and Family



인천여성가족재단

Incheon Foundation For Women & Family

❖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최정호 인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정경희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초빙교수

연구지원

김소현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원

발 간 사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라, 모든 청소년이 학업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비전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청소년이 '보호에서 성장으로, 성장에서 참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의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의 중단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관계에서 단절되거나 기회의 문턱에서 멈춰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청소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진로지원, 자립지원 등 다층적 지역 지원체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도 2017년부터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을 주제로 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오며, 실태조사, 지원센터, 대안학교, 가정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어 왔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의 기초를 다지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세심하게 반영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축적된 연구 성과는 인천광역시가 청소년의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해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는 청소년의 연령과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상담·학습·진로·자립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프로그램 모델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센터가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의 회복과 성장을 함께 이끄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연구 수행에 협력해 주신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그리고 자문위원과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성껏 담아낸 최정호 선임연구위원과 김소현 연구원 그리고 정경희 교수님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앞으로도 청소년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지역정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연구가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정책의 내실화를 이끌고, 청소년이 지역사회 속에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25년 10월

(재)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리 김 경 신

연구요약

□ 연구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발달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단절, 정서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상담지원, 교육지원, 진로지원, 자립지원 등의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라 보다 유연하고 세분화된 정책 대응이 요구됨
 - 팬데믹 이후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비가시적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함
 - 고립·은둔형, 가족돌봄 청소년 등 새로운 위기군이 등장했으나, 기존 지원체계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였음
 - 학업 중단이 원인이 학업 부적응뿐 아니라 대안교육 선호, 진로 자율성, 심리적 요인 등으로 복합적이며 개인화되는 양상을 보임
 - 학업 중단 후 많은 청소년이 진로 계획 없이 방황하게 되어 미래 불확실성으로 이어짐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이 초등 시기로 저연령화되고 연령대별 원인이 다름
 - 인천광역시는 다차원적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앙 집중적 구조, 단기 성과 중심 운영, 연령별 맞춤형 부족, 지역·성별 간 자원 불균형 등 한계가 존재함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정책적 수요를 분석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와 한계를 진단하여 발달단계별 요구를 반영한 차등적 권리 기반 지원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상담지원, 교육지원, 진로지원, 자립지원, 홍보 및 건강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활성화 및 제도적 확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별 특성과 정책 수요를 분석하고, 지원센터 운영 실태를 진단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량·정성적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결합한 복합적 방법론을 활용함

○ 문헌조사 및 통계분석

- 정부·지방자치단체 통계자료와 기존 연구를 분석하여, 연령별·성별·지역별 학업 중단 추이와 서비스 이용 현황 등을 분석하고 지원 체계의 현황과 한계를 진단함

○ 심층면접

- 발달단계별 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정책 욕구, 프로그램 이용 경험, 미충족 수요 등을 분석하고, 지원의 한계와 정서·사회성 회복 필요성 등을 조사함

○ 전문가 자문

- 연구자, 실무자, 공무원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 전달체계 개선, 권리 기반 접근, 지역사회 협력 등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함

□ 학교 밖 청소년 제도적 기반과 전달체계 분석

○ 제도적 기반

-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무를 명시하고 청소년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규정함
- 동법 제12조에 근거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총괄 아래 전국 222개소가 운영되며, 광역센터는 총괄·조정 기능, 기초센터는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이중 구조 전달체계를 구현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주체

- 여성가족부는 중앙 주무부처로서 정책 기획, 예산 지원, 운영 지침 수립, 성과 관리 등을 담당하며 국가 표준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함
 - 현장 대응력과 지역 특수성 반영 한계로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7개 시도 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광역 차원의 계획 수립으로 기초 단위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다부처 협력 기능을 수행함
 - 여성가족부 예산 의존도가 높고, 군·구 현장과의 연계성 및 광역 차원의 모니터링 기능의 한계로 센터 간 성과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재정 자립, 평가 기능 제도화, 기초 단위 센터와의 협력 구축이 필요함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05개 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발굴, 학업 및 자립지원 등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핵심 전달체계로 기능함

- 지역 간 격차와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나타나며, 안정적 재정 기반 확충, 방문 이동 지원 제도화, 전문인력 보강이 필요함

○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주요 프로그램 분석

- 상담지원 프로그램은 심리극·멘토링·지원단 구성 등을 통해 운영되었고, 학교 밖 청소년의 정서 안정, 관계 형성, 센터 적응도 향상에 기여함
-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미디어, 웹툰 등 전문화된 교육을 통해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 역량을 강화함
- 진로지원 프로그램은 성취포상제, 창업·직업체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성취 경험과 자격 취득을 지원하며 진로 기반을 마련함
-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자립작업장 운영과 민·관 통합 지원체계 등을 통해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 취업 기반을 확대함
- 건강지원 프로그램은 원예·신체활동·중독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 안정과 사회 참여도를 높이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도모함
- 홍보지원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아웃리치와 정책 소셜랩 운영으로 신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역 협력 기반을 강화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지난 10년간 학업 복귀와 자립지원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 위기 개입과 학업 복귀 중심의 상담지원은 정서 회복 지원 기능이 미흡함
 - 예술치유·심리치료·집단상담을 포함한 정서·사회 발달 프로그램을 접목해야 함
- 학력 취득 위주로 운영되는 교육지원은 민주시민 교육과 시민성 학습 기회가 부족함
 - 토론·자치활동 등을 결합해 민주시민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자격증 취득과 단기 기술 습득에 머물러 진로지원은 사회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사회적 기업 연계나 지역 프로젝트를 통해 협업·사회적 책임을 학습해야 함
- 연령과 상관없이 유사 형태로 제공된 자립지원은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 발달단계별 특성에 따라 생활 진로·진학·취업 등 맞춤형으로 운영되어야 함

○ 국가-지자체 간 권한과 책임의 재조정, 맞춤형 지원체계, 시민성 강화, 지속 가능한 재정·인력 기반을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사회적 권리 주체로 재위치시키는 정책 전환이 요구됨

□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 인천광역시 학업 중단 청소년 현황

- 인천광역시의 학업 중단율은 코로나19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초·중·고등학교 순으로 학업 중단율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특성화고는 2024년 3.8%로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함
- 학업 중단 사유의 절반이 자퇴(49.4%)로, 특히 고등학교는 98.4%가 자퇴로 나타나 학생의 자발적 선택이 주요 원인이며, 초등학교는 면제와 장기 결석 등 가정·환경 요인이 큰 것으로 분석됨
- 코호트 추적, 부분집합, 생애주기 누적 추계 방식을 활용한 결과 2024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은 9~18세 7,997~16,684명, 19~24세 8,841명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는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
- 총 10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총 11개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총 8개의 청소년쉼터 및 여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음
-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2025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은 자립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자활작업장, 자립지원관, 쉼터 운영을 지원하며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사업을 병행함
- 「2025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에 따라 여러 사업이 진행됨
 - 강화군·옹진군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센터 설치 혹은 이동형 상담체계 구축
 - 학업 복귀의 지속성 확보와 하이브리드(온라인, 멘토링 결합) 학습 도입
 - 민간 협력 제도화를 통한 직무훈련 및 인턴십 확대
 - 건강검진, 급식 지원의 연령 확대 및 정신건강 스크리닝, 상담 체계적 도입
 - 장기적 정서 치료 프로그램 및 자기주도적 참여 모델 도입 등

○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분석

- 상담지원 프로그램
 - 광역센터는 멘토링 지원, 실무자 워크숍, 담당자 역량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적 지원과 실무자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함

- 기초센터는 통합사례관리, 개인상담(이루다), 학업중단숙려제, 심리검사, 보호자 상담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고 교육 진로·자립지원으로 연계함
- 상담이 위기 개입 중심으로 운영되어 장기적 회복탄력성 강화에 한계가 있음
- 교육지원 프로그램
 - 광역센터는 검정고시 대비, 입시설명회, 공모전 운영 등을 중심으로 학력 취득과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임
 - 기초센터는 스마트교실, 검정고시 지원사업, 학업동기강화 프로그램, 재능멘토단을 운영하여 학업 복귀와 학력 취득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함
 - 단기적 성과 중심 구조로 민주적 가치, 시민성, 사회참여 역량 강화 측면이 부족함
- 진로지원 프로그램
 - 광역센터는 문화·체육 활동(드림캐쳐 등), 진로상담, 적성검사, 자립동기강화 훈련 등을 통해 청소년의 소속감 회복과 진로 탐색을 지원함
 - 기초센터는 자립동기강화 프로그램(두드림), 직업체험활동, 자격증 취득, 맞춤형 직업훈련 등을 운영하여 취업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함
 - 단기 기술 습득 중심으로 장기적 경력 설계 및 공동체 기여의식 함양에 한계가 있음
- 자립지원 프로그램
 - 광역센터는 직장체험, 자립캠프, 인턴십, 취업연계 관리 등으로 구성하여 청소년의 실제 직무 경험과 자립동기를 강화함
 - 기초센터는 자아성장캠프, 청소년 자치활동, 기초소양교육, 문화·여가 프로그램, 건강검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독립과 자립 역량을 높임
 - 연령 구분 없이 동일한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발달단계별 요구를 반영하지 못함

□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수요 분석

- 센터 방문 초기에 공예·요리·바리스타 등 체험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을 얻었으며, 체육활동·동아리·단체행사 등을 통해 또래 관계와 소속감을 형성하였고, 검정고시 학습지원을 통해 삶의 구조와 목표를 회복함
- 저연령층은 관계·정서 중심, 고연령층은 학습 진로 중심의 실질적 성취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 연령별 맞춤 초기 개입의 필요성이 확인됨

- 현재는 연령, 발달 수준, 학습 경험, 개인 관심사 등의 반영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관계망 형성이 가능하고, 현실적 필요를 충족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음
 -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은 장단점이 혼재하여 나타남에 따라 혼합형을 고려해야 함
- 검정고시나 자격증 취득 후 진로 공백, 상담 접근성 제한, 지역 간 프로그램 격차 및 정보 접근성 차이에 대한 불안 및 불편함이 나타남
- 보편적 기본 지원과 연령대별 맞춤 지원을 제도적으로 체계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학습진로·정서·생활지원은 모든 연령대에 제도적으로 안정화하고, 발달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사회적·학습진로지원 등을 차등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임
 - 단기적 성과 중심의 학업 구조를 탈피하고 다각적인 질적 변화를 통해 성장 경험을 제공하며, 자격 취득 이후 진로·자립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 정서·사회성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제도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며, 후기청소년(19~24세)까지 제도 적용을 확대해야 할 것임

□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방안

- 프로그램 활성화 방향 및 전략
 - 상담지원 프로그램
 - 위기 개입 중심에서 벗어나 정서 회복, 자아정체성 확립, 회복탄력성 강화를 포함한 전인적 발달형 상담으로 확장하고, 예술치료·심리극 등 발달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결합하며, 연령별 맞춤형 상담체계와 가족 보호자 병행 상담체계를 구축함
 - 교육지원 프로그램
 - 단기 성취 중심 구조를 넘어 민주시민 교육과 결합하고, 다문화 청소년 맞춤형 학습지원과 발달단계별 차별화를 통해 학습 효과와 시민적 책임 의식을 함께 높임
 - 진로지원 프로그램
 - 사회참여형 진로교육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확대하며, 후기 청소년 대상 특화 지원을 강화하여 공동체적 기여를 내재화한 장기적 진로 설계를 지원함
 - 자립지원 프로그램
 -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고 권리 기반 자립역량을 강화하며, 공동체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적 자립을 실현할 기반을 마련함

- 건강 및 홍보지원 프로그램
 - 신체적·정신적 건강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 인식개선 사업을 전략화하며 종사자 교육과 처우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과 지속성을 높임
-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신규 프로그램 제안
 - 상담지원 프로그램
 - 마음 다리 공감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체계 확장을 위해 소규모 집단 속에서 경험 교류·정서 표현·포대 관계 형성 및 문제 해결을 지원함
 - 예술 치유 프로그램: 미술·음악·연극 등 예술 활동을 매개로 감정 표현과 자존감 회복을 돕고 심리적 치유를 촉진함
 - 교육지원 프로그램
 - 청소년 언어교류 스튜디오: 인천 지역 외국인 유학생·이주민과의 언어 교류를 통해 실제 외국어 능력을 향상하고 자기주도 학습 강화 및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도움
 - 사이버 범죄 및 마약 예방 교육: 경찰청 및 전문기관 협력으로 범죄 사례 중심 참여형 예방 교육을 실시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 기술을 습득함
 - 진로지원 프로그램
 - 청소년 꿈드림(Dream) 페스티벌: 인천 전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다수의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직업 체험 박람회로 청소년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전문가와 소통을 통해 진로 설계 능력을 강화함
 - 청소년 AI드림(Dream) 매니저: AI 기반 진로 탐색 플랫폼을 구축해 흥미·성격·역량 진단, 맞춤형 진로 추천, 최신 직업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 제고
 - 자립지원 프로그램
 - 올 인원 취업 캠프: 이미지 메이킹·모의 면접·노동권 교육·정서 지원 등을 단기간 내 집중적으로 제공하여 다각적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함
 - 생활 기술 아카데미: 주거·금융·건강·법률 등을 교육하고, 생활역량 인증서를 부여해 청소년의 실질적 자립 역량을 강화함
 - 건강 및 홍보지원 프로그램
 - 스마트 런 프로그램: 스마트폰 의존 청소년을 대상으로 러닝과 지역 탐방을 결합해 체력·사회성 향상을 돕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함

-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전: 청소년이 직접 신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시범 운영으로 연계하여 주체적 참여를 보장하고 맞춤형 혁신 프로그램을 발굴함

〈표〉 인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신규 프로그램 제안(안)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주요 내용
상담 지원	「마음 다리 공감 프로그램」	아동단계 및 초기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8명 소규모 집단상담 (주 1회, 총 10회기) • 아이스브레이킹, 미술 보드게임·협동 활동으로 친밀감 형성 •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주제(갈등·진로·불안 등) 심층 대화 • 온라인 채널, 동아리, 또래 멘토 제도로 후속 지원
	「예술 치유 프로그램」	중기 및 후기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음악·연극·무용 등 예술을 매개로 한 심리치유 활동 • 개인·집단 작품 활동과 협동 프로젝트 진행 • 전문 예술치료사와 상담사의 공동 개입 • 자기표현·정서적 안정·스트레스 완화 중심 프로그램 운영
교육 지원	「청소년 언어 교류 스튜디오」	학교 밖 청소년, 외국인 유학생·이주민 등 또래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유학생·이주민과 매칭하여 언어 교류 • 팀별 목표 설정(다국어 콘텐츠 제작, 시험 준비 등) • 6개월 운영 후 성과보고회·우수 시상
	「청소년 디지털 안전 교육」	중기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경찰청·중독치료기관 협력 • 실제 범죄·중독 사례 소개 • 토론·사례분석 참여형 교육 • 연 1~2회 정기 운영
진로 지원	「청소년 꿈드림 (Dream) 페스티벌」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전역 꿈드림센터·기업 협력 진로 박람회 • 수요조사 및 진로검사 기반 직업 부스 체험 (요리·IT·영상·문화예술 등) • 현장 종사자 멘토링, 심층 상담, 작품 전시·공연
	「청소년 시드림 (Dream) 매니저」	청소년 (특히 정보 접근 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반 진로 탐색 플랫폼 • 성격·적성·기초지식 검사, 챗봇 상담 • 국가자격 DB·대학 입학 요건 연계 • 개인 맞춤형 진로 포트폴리오 자동 생성
자립 지원	「올 인원 취업 캠프」	후기청소년 (취업 희망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적 이미지 관리(퍼스널컬러, 면접 복장) • 실전 면접 훈련 및 피드백- 금융·재테크·노동인권 교육 • 정서·사회성 집단 지원 • 기업 연계 면접 및 인턴십 제공
	「생활 기술 아카데미」	중기 및 후기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금융·법률·식생활·건강관리 등 생활기술 교육 • 실제 사례 기반 워크숍 및 실습 운영 • 생활여량 인증제 도입(출석·과제·실습 결과 반영) • 지역사회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금융 전문가 등) 연계
건강 및 홍보 지원	「스마트 런 프로그램」	중기청소년 (희망자 확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1~2회 집단 러닝 • 지역 보건소·체육회 협력 안전 교육 • 연 1회 마라톤 참가 • 스마트폰 사용 최소화, 활동일지 작성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전」	청소년 (개인 및 팀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 직접 프로그램 아이디어 제안 • 교육·진로·자립·문화예술 등 주제 포함 • 심사 후 시상(대상·우수상 등) • 우수 제안은 시범 운영 • SNS·대중교통·유관기관 홍보



차례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3. 연구 수행 절차	8
II. 학교 밖 청소년 제도적 기반과 전달체계 분석	9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전달체계 기반 조성	11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성과 분석	18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확장 전략	35
4. 시사점	38
III.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41
1. 인천광역시 학업 중단자 현황	43
2.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49
3.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분석	54
4.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분석	72
5. 시사점	77
IV.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수요 분석	79
1. 조사 개요	81
2. 조사 결과	86
3. 시사점	100
V.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103
1. 프로그램 활성화 방향	105
2. 프로그램 활성화 전략	109
3. 신규 프로그램 제안(안)	113
■ 참고문헌	125



표 차례

〈표 II-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제도적 기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2
〈표 II-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주체별 비교	14
〈표 II-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 체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6
〈표 II-4〉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성과 비교	17
〈표 II-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영역별 문제점 및 개선 방향	36
〈표 II-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영역별 확장 전략	37
〈표 III-1〉 2015-2024년 전국 및 인천광역시 연도별 학업 중단율 및 중단자 수	44
〈표 III-2〉 2015-2024년 전국 및 인천광역시 연도별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 및 중단자 수	45
〈표 III-3〉 2024년 인천광역시 성별·학교급별 학업 중단 현황	46
〈표 III-4〉 2024년 인천광역시 군·구별·학교급별 학업 중단 현황	47
〈표 III-5〉 2024년 인천광역시 학교급별 학업 중단 이유	48
〈표 III-6〉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방식	49
〈표 III-7〉 2024년 인천광역시 학업 중단자 코호트 추적 방식에 따른 추출	50
〈표 III-8〉 2024년 인천광역시 재입학·편입자 코호트 추적 방식에 따른 추출	50
〈표 III-9〉 2024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코호트 추적 방식에 따른 규모 추출	51
〈표 III-10〉 2024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코호트 추적 방식에 따른 규모 추정	51
〈표 III-11〉 2024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부분집합 방식에 따른 규모 추정	52
〈표 III-12〉 2024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생애주기 누적 추계 방식에 따른 규모 추출	53
〈표 III-13〉 2024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생애주기 누적 추계 방식에 따른 규모 추정	53
〈표 III-14〉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방식에 따른 규모 추정	53
〈표 III-15〉 「인천광역시 및 8개 자치구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중 지원센터 관련 조항	54
〈표 III-16〉 인천광역시 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황	55
〈표 III-17〉 인천광역시 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현황	56
〈표 III-18〉 인천광역시 내 ‘청소년 쉼터’ 현황	57
〈표 III-19〉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5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58
〈표 III-20〉 ‘2025년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62
〈표 III-21〉 2025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	64
〈표 IV-1〉 면접조사 연구참여자 연령대별 분류	82
〈표 IV-2〉 면접조사 질문 내용	83
〈표 IV-3〉 면접조사 연구참여자 현황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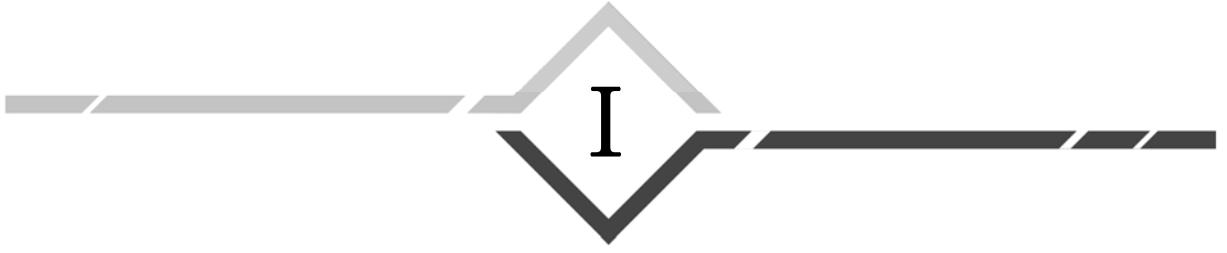
표 차례

〈표 V-1〉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이행 경로	108
〈표 V-2〉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신규 프로그램 제안(안)	122



그림 차례

[그림 II-1] '마음 치유 극장' 포스터 및 활동	19
[그림 II-2] '시흥시 꿈드림 지원단' 활동	20
[그림 II-3] '꿈드림 또래 멘토-연결고리' 활동	21
[그림 II-4] '밍기적 프로젝트' 콘텐츠 제작물	22
[그림 II-5] '웹툰 꿈 키움 프로젝트' 교육 과정 및 전시회	23
[그림 II-6] '희망 프로젝트 Dream Want You' 포트폴리오 파일 및 성과보고회	24
[그림 II-7] '늘 꿈 컴퍼니' 제작물	25
[그림 II-8] '재기 발발 당꿈이들' 고민 상담 프로그램 및 부스 운영	26
[그림 II-9] 직업 체험 및 학과 체험 활동	28
[그림 II-10] '꿈 히어로 8기' 활동	29
[그림 II-11] 'H-워너비 자립연계 통합구축 서비스' 직업인 특강 및 기업 본사 직업 체험	30
[그림 II-12] '다솜누리 Dream Company' 농부 체험 및 환경 보호 교육	31
[그림 II-13] '내 마음의 포레스트' 반려식물 편지 및 그림	32
[그림 II-14] 마약·도박 예방 교육	32
[그림 II-15] '마라 YOUTH' 정기 훈련 및 마라톤 대회 참여	33
[그림 II-16] '찾아가는 향토 5일장 아웃리치' 활동	34
[그림 II-17] '학교 밖 청소년정책 소셜 랩(Decide teenteen)' 활동	35
[그림 III-1] 2015-2024년 전국 및 인천광역시 연도별 학업 중단율	44
[그림 III-2] 2015-2024년 인천광역시 연도별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	45
[그림 III-3] 2024년 인천광역시 성별·학교급별 학업 중단율	46
[그림 III-4] 2024년 인천광역시 군·구별·학교급별 학업 중단율	47
[그림 III-5] 상담지원 프로그램 관련 홍보 포스터	68
[그림 III-6] 교육지원 프로그램 관련 홍보 포스터	69
[그림 III-7] 진로지원 프로그램 관련 홍보 포스터	70
[그림 III-8] 자립지원 프로그램 관련 홍보 포스터	7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 수행 절차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학교 밖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교육의 구조적 불균형과 복지 사각지대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집단으로, 이들의 증가와 다변화는 기존의 정책적 대응 방식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학령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청소년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인구 변화의 결과라기보다 교육 환경, 가정, 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학교를 이탈한 청소년은 학업의 단절을 넘어, 또래 관계 단절, 정서적 고립,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등 심리사회적 위기를 직면하게 된다. 특히 대안교육이나 직업훈련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할 경우, 안정적인 진로 설계와 사회 통합은 더욱 어려워진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불안정성과 사회적 소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를 바탕으로 상담, 교육, 진로, 자립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전국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정책 도입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요구는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변화하였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교육체계의 구조적인 변화인 원격수업과 학습 공백 속에서 통계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가시적 학교 밖 청소년이 양산되었다. 팬데믹 이후 대면 수업의 재개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의 이탈이 가시화되면서 정책의 사각지대가 확인되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집단 내 위기 유형이 다변화되고 있다. 고립·은둔형 청소년, 가족돌봄 청소년 등 새로운 위기군이 등장하였으며, 이들에 대해 기존 지원체계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형 청소년이나 가정 내 돌봄을 전담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은 학업과 진로 탐색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셋째, 학업 중단 배경 역시 과거보다 훨씬 복잡적이고 개인화된 양상을 보인다. 단순한 학업 부적응이나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대안교육 선호, 진로 탐색의 자율성, 심리적 불안정 등 다양한 요인이 중첩되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회귀 중심적 접근이 아닌, 다양한 경로의 진로 설계와 개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학업 중단 이후 상당수의 청소년은 구체적인 진로 계획 없이 방황하게 되며, 이는 자존감 저하와 미래 불확실성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진로 탐색과 설계의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김희진, 임희진, 김정숙, 박소영, 2023) 결과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시점이 점차 저연령화되어, 초등학교 시기부터 학교를 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진로 압박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학업 중단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연령대별 학업 중단의 원인과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발달단계에 맞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정책 수요는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비 지원, 검정고시 준비, 진로 체험, 직업교육 등 기존 정책 항목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최근 들어 청소년 활동 바우처 같은 자율성 기반의 참여형 정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자아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실질적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광역 및 군·구 단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를 통해, 상담·교육·진로·자립·건강 및 홍보 등 다차원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체계는 중앙집중적 구조와 단기 성과 중심의 운영에 치중되어 있어, 연령별 맞춤형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동단계청소년 및 후기청소년의 지원 공백, 지역 간 자원 불균형, 성별 차이에 따른 요구 미반영 등이 주요 과제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특성과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현황과 한계를 진단하여 발달단계별 요구를 반영한 차등적 권리 기반 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학업 복귀 지원의 질적 전환, 자립 및 진로지원의 실질적 강화, 정서·사회성 지원의 제도화, 후기청소년까지 포괄하는 제도 확장 전략을 포함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인천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현황과 연령별·성별·지역별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기능별 성과 및 한계를 진단한다. 셋째, 면접조사와 수요조사를 통해 청소년이 직접 제기한 연령·발달단계별 정책 요구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별 특성과 정책 수요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진단함으로써,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총 5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을 정리하고, 연구 목적, 주요 연구 질문, 연구 범위 및 방법론을 개관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별 이탈 양상, 다변화된 위기 유형,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2장은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기점으로 확립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10년간의 정책 전개 과정과 그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였다. 중앙집중적 예산 구조와 단기 성과 지표 중심 운영, 지역 간 자원 불균형, 발달단계별 맞춤형 부족이 주요 과제로 지적되었으며, 향후 중앙-광역-기초 간 권한과 책임의 재조정, 발달단계별 차등화된 프로그램 설계, 권리 기반 접근의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재위치시키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3장은 인천광역시 학업 중단 청소년의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코로나19 이후 학업 중단율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특히 고등학교와 특성화고에서 성별·지역별 격차가 높은 수치로 드러났다. 이로써 단일한 지원 정책만으로는 대응의 한계가 명확하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성인적 맞춤형 지원, 후기청소년까지 포괄하는 제도 확장이 긴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학업복귀 지원을 단기 성과 중심에서 장기적 지속성 확보로 전환하고, 자기주도적 활동 및 사회 인식 체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되었다.

제4장은 본 연구의 면접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실제 경험과 요구를 분석하였다. 참여자들은 학업복귀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 더불어 제도권 학교에서 당연하게

제공되는 기본 경험의 결핍이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적 유대감 약화로 이어진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교육·자립·정서지원의 다층적 확장과 함께 공통적 안전망 보장, 연령별 발달과업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요함이 드러났다. 특히 후기청소년 지원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청소년을 권리 주체로 위치시키는 전환 정책이 강조되었다.

제5장은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현황과 한계를 진단하고, 활성화 방향과 신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상담·학업·진로·자립지원은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분절적 운영 및 단기성과 편중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상담지원은 정서회복과 회복탄력성 강화, 학업 지원은 시민역량 함양, 진로지원은 사회참여형 경험, 자립지원은 권리 기반 접근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전략이 제시되었다. 더불어 건강·홍보·종사자 역량 강화 등 보완·특성화 기능을 핵심기반으로 강화하여 센터를 지역사회 청소년의 성장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이 강조되었다.

나.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별 특성과 정책 수요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여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정량적 자료 분석과 정성적 조사,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결합한 복합적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였다.

첫째,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조사 및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통계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인천광역시 및 군·구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한 행정통계와 기존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연령별·성별·지역별 학업 중단 추이, 이탈 사유, 진로 상태, 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별 불균형과 청소년 집단의 이질성을 반영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였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기능별 성과를 분석하였다.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한 공식 보고서와 우수사례집,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연간 사업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군·구별 센터 운영 편차를 반영하기 위해 개별 센터 자료까지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상담·교육·진로·자립 기능뿐만 아니라 건강·홍보·종사자 역량강화 등 보완적 기능의 운영 현황과 한계를 함께 진단하였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의 경험과 정책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포함한 정성조사를 수행하였다. 아동단계청소년(9~11세), 초기청소년(12~14세), 중기청소년(15~18세), 후기청

소년(19~24세) 등 발달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12명의 참여자로 구성하였다. 면접조사에서 각 연령대의 정책 욕구, 프로그램 이용 경험, 미충족 수요를 중심으로 다양한 삶의 맥락 속 경험을 수집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업 복귀 지원의 한계, 후기청소년 지원 공백, 정서·사회성 회복의 필요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넷째, 연구결과와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2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회의에는 청소년정책 연구자, 현장 실무자,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맞춤형 신규 프로그램, 전달체계 개선, 권리 기반 접근, 지역사회 협력 구조 등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자료와 제도 분석, 당사자 경험, 전문가 검토를 종합적으로 결합하였다.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별 특성과 정책 수요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발달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의 구체적 설계와 실행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3 연구 수행 절차

연구 흐름	연구 내용	연구 방법
1단계 연구기획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배경과 필요성 연구 목적·연구 질문·연구 범위 및 방법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행연구 검토 문헌조사 연구 설계 수립
2단계 자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후 10년간 정책 전개 과정과 성과·한계 분석 타 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례 분석 인천광역시 학업 중단 청소년 현황 실증 분석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분석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통계 및 기존 연구자료 분석 (여성가족부·교육부 통계청·인천광역시) 군구 센터 운영 현황 검토
3단계 수요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접조사 결과를 통해 연령별 발달 과업 상담, 교육, 진로, 자립, 건강 및 홍보 지원 요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층면접 연구참여자 12명 (아동단계청소년 2명, 초기청소년 2명, 중기청소년 6명, 후기청소년 2명) 서비스 경험·정책 욕구·미충족 수요 파악
4단계 정책 방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황 및 한계 진단 상담·교육·진로·자립·건강 및 홍보 지원 활성화 방향 신규 프로그램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2회) 통한 정책 타당성 검토
5단계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활성화 방향 인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활성화 전략 인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신규 프로그램 제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분석·정성조사 전문가 자문 결과 최종 보고서 작성



II

학교 밖 청소년 제도적 기반과 전달체계 분석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전달체계 기반 조성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성과 분석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확장 전략
4. 시사점





학교 밖 청소년 제도적 기반과 전달체계 분석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전달체계 기반 조성

가. 제도적 기반과 전달체계 형성

한국의 학교 밖 청소년정책은 1990년대 청소년정책의 법제화가 진전되던 흐름 속에서 비교적 늦게 독립적 제도영역으로 정립되었다. 결정적 전환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다. 이 법은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700호로 제정되었으며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은 독립된 법정 정책대상으로 명시되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법률 차원에서 제도화함으로써 기존의 포괄적인 청소년정책을 넘어선 새로운 정책영역을 확립하였다. 법률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2024년 3월 26일 일부개정되어 2024년 9월 27일 시행되었다. 이러한 연혁은 학교 밖 청소년정책의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법 제1조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다. 이는 단순한 교육 보충이나 선별적 복지의 차원을 넘어, 청소년을 권리 주체로 보며 공공책임을 명문으로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규범적 의미가 크다. 이러한 방향성은 모든 아동의 차별 없는 교육권을 확인한 1989년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과 그 이행 논리와도 합치된다. 다시 말해 국내법의 목적 조항은 국제 인권규범의 교육권 보장 취지를 국내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며, 학교 밖 청소년을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보유자로 위치시킨다.

법 제2조의 정의 조항은 ‘학교 밖 청소년’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중도탈락하거나 미진학하여 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이 규정은 첫째, 의무교육 단계의 중도탈락 아동까지 국가 지원의 법정 범주에 명확히 편입하고, 둘째, 중·고등학교 미진학 집단을 명시적으로

포섭하여 사각지대를 축소하며, 셋째, 기존 포괄적 청소년정책 범주에서 분리된 독립 정책대상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적 정체성을 확립한다. 이러한 정의의 정밀화는 향후 정책설계·대상자 발굴·지표 구축의 기준점으로 작동한다.

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할 의무를 부여한다. 이는 행정지침이 아닌 법적 책무로 규정되어 정책 실행의 구속력을 강화하며,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시행령은 위임사항과 집행 절차를 세부화함으로써 부처 간 역할분담과 연계를 제도적으로 견고히 한다. 결과적으로 중앙-지방-민관의 다층 협력구조를 제도화함으로써, 개별 기관 중심의 단편 대응에서 통합적 지원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전달체계 측면에서 법 제12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통칭 ‘꿈드림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는 중앙에서 정책을 총괄하고,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 실정에 맞추어 발굴·상담·학습·직업훈련·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공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4월 1일 기준 전국에는 222개소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정부 정책브리핑의 자료를 통해 동일한 규모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광역(시·도) 센터는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기초(시·군·구) 센터는 직접 서비스를 집행하여 전국 표준 프로그램과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이중 구조를 구현한다. 이는 전국적 일관성과 지역적 다양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 집행 모델로 기능한다.

〈표 II-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제도적 기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제정 및 연혁	2014년 5월 28일 제정, 2015년 5월 29일 시행. 2024년 3월 26일 일부 개정, 2024년 9월 27일 시행.	학업 중단 청소년을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최초 규정. 제도적 지속가능성 확보
법 제1조 (목적)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의 책무 명문화	청소년을 권리 주체로 전환, 공공책임의 법제화. UN 아동권리협약의 교육권 보장 원칙과 합치
법 제2조 (정의)	의무교육 단계 포함, 초·중고 중도탈락자 및 미진학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명시	① 아동권 강화(초등 탈락자 포함) ② 미진학자 포섭으로 사각지대 축소 ③ 독립 정책대상으로 정체성 확립
법 제3조 (국가·지자체 책무)	발굴·보호·지원 정책 수립 및 관련 기관·단체 협력 의무 부과	행정지침이 아닌 법적 책무로 전환, 중앙-지방-민관 다층 협력 구조 제도화
법 제12조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222개소 운영 (광역 17, 기초 205)	국가 표준 프로그램과 지역 특화 프로그램 병행. 전국적 일관성과 지역적 다양성을 동시 확보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주체 분석

1) 여성가족부 역할 및 과제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중앙 주무부처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국적 정책 기획과 조정, 예산 지원, 운영 지침 수립, 성과 관리 기능을 담당한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지침」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각 센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3). 이를 통해 국가 표준 프로그램인 검정고시 준비, 직업역량 강화, 자립지원 등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제도 설계와 성과 평가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예산 배분 구조가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전국적 표준을 유지하면서도 지역별 수요와 여건에 맞춘 유연한 정책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농산어촌과 대도시 간 서비스 격차를 고려한 차등적 지원 전략, 그리고 지역 맞춤형 시범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과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전국 17개 시도 단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정책을 조정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여성가족부, 2024). 광역센터는 광역교육청, 고용노동청, 보건·복지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부처 연계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기초 단위 사업의 중복을 조정하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한다.

그러나 광역센터 운영은 재정적 측면에서 여성가족부의 예산 의존도가 높아 장기적 재정 안정성이 약하며, 광역 차원에서 수립한 종합계획이 군·구 단위 현장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된다. 또한 광역 단위의 모니터링 기능이 제도적으로 정착하지 못해 지역 간 성과 편차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재원을 활용한 안정적 예산 구조를 마련하고, 기초 단위 센터와 정례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동시에 광역 차원의 정책 모니터링과 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별 성과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과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군구 단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내 청소년을 생활권 중심에서 발굴하고 지원하는 최일선 전달체계를 수행한다(여성가족부, 2024).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군구 단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생활권 중심에서 청소년을 발굴하고 상담과 사례관리를 운영하며, 학업 복구를 위한 교육 지원과 검정고시 준비를 제공한다. 기관은 진로 탐색과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 역량을 높이고, 자립캠프와 건강검진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시행하며 지역 자원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복귀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센터를 통해 지역 간 자원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대도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높은 참여율을 보였지만, 농산어촌과 도서 지역은 접근성이 낮고 자발적 참여가 저조하였다. 또한 농산어촌과 도서 지역은 센터별 인력이 평균 3~5명 수준에 그쳐, 상담·사례관리·행정이 동일 인력에게 집중되어 서비스 질 저하의 위험이 크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과제는 국·지방비 공동 재원을 통한 안정적 재정 기반 확충, 농어촌 특화형 방문형 서비스 제도화, 그리고 상담 및 사례관리 전문인력의 확충과 지속적 교육 및 훈련이다. 이를 통해 기초지자체 센터가 지역적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전달체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주체별 비교

구분	역할	한계	시사점
여성가족부 (중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제12조 근거로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총괄 • 기본계획 수립, 운영지침·예산 지원, 성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수요 반영 미흡 • 중앙집중적 예산 배분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맞춤형 유연 지원 제도화 • 농어촌 특화 시범사업 추진
광역지자체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개 광역센터 설치·운영 • 기초지방자치단체 센터 조정·지원 • 광역기관(교육청·고용청 등)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예산 의존도 높음 • 군·구 현장과의 연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자원 확보 통한 예산 안정화 • 광역 차원 모니터링·평가 제도화
기초지자체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개 기초센터 설치·운영 • 생활권 내 학교 밖 청소년 발굴·상담·교육·직업·자립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도서지역 접근성 낮음 • 인력(평균 3~5명) 부족 • 문화·예술 자원 연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형·이동형 서비스 제도화 • 전문인력 확충 및 교육 강화 • 지방비-국비 공동 자원 확대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성과 분석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체계 구조 및 현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핵심 전달체계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규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른바 ‘꿈드림센터’이다. 동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업 중단 이후 공적 서비스에서 배제되던 청소년을 제도적 지원망 속으로 포괄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중앙부처로서 정책을 총괄하고, 시·도 단위 센터는 광역 차원에서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하며, 시·군·구 단위 센터는 발굴, 상담 및 사례관리, 학업 및 교육, 진로 및 직업훈련, 자립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이러한 다층 구조는 중앙의 정책 일관성과 지역의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설계되었다.

2024년 4월 1일 기준, 전국에는 총 222개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광역 단위 센터는 17개소, 기초 단위 센터는 205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전국망을 유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4). 2025년 정부 정책브리핑에서 동일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전국적 전달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국가 표준 프로그램과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된다. 국가 표준 프로그램에는 검정고시 준비반, 학습 멘토링, 자립생활 교육, 직업역량 강화, 심리정서 상담 등이 포함되며, 여성가족부의 연례 지침과 통계에 따라 운영 성과가 관리된다(여성가족부, 2023). 동시에 각 센터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문화·예술 활동, 체험학습,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자율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전국적으로 일정한 질적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지역별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센터의 서비스는 청소년의 생애 전환기에 필요한 다차원적 기능을 포괄한다. 청소년은 초기 상담을 통해 학업·진로·정서 상태를 진단받고, 개별화 지원계획에 따라 학업 복귀, 직업훈련, 자립생활지원,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연계된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 합격, 자립캠프 참여, 건강검진 수검 등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교육·자립·사회통합을 아우르는 종합적 전달체계임을 보여준다(여성가족부, 20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전국적

전달체계로서, 국가 표준 프로그램과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결합해 교육·자립·참여를 포괄하는 다층적 지원을 수행한다. 이는 학업 중단 청소년을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보호망 안으로 포섭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공공책임에 기초한 권리 중심적 청소년정책의 구체적 실행 모델로 기능한다.

〈표 II-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 체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법적 근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 설치·운영	학업 중단 청소년을 제도적 지원망 속에 포괄
운영 구조	여성가족부 총괄, 시도 단위(17개소)는 광역차원에서 조정 기능 시·군·구 단위(205개소)는 기초 차원에서 직접 서비스 수행	중앙의 정책 일관성과 지역 자율성의 병행
프로그램	국가 표준 프로그램: 검정고시 준비, 학습 멘토링, 자립생활 교육, 직업역량 강화, 심리정서 상담 지역 특화 프로그램: 문화·예술 활동, 체험학습, 지역 봉사활동	전국적 질적 기준 유지와 동시에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가능
서비스 성과	초기 상담 → 개별화 지원계획 → 학업 복귀·직업훈련·자립·사회참여 연계 2023년 검정고시 합격, 자립캠프, 건강검진 수검 등 성과	교육·자립·사회통합을 아우르는 종합적 전달체계 실현

2) 광역지방자치단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성과와 과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17개 시도 단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광역 단위에서 기초지자체 센터를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광역센터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모니터링을 통해 기초 단위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일관성을 높였다. 둘째, 광역교육청·고용노동청·보건복지 관련 기관과의 협력 창구로 기능하면서 다부처 연계를 촉진하였다. 셋째, 군·구 단위 센터의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지역 내 자원 분배를 관리하여 청소년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였다(여성가족부, 2024).

그러나 광역센터의 한계도 분명하다. 운영 예산의 상당 부분을 여성가족부에 의존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재정 안정성이 부족하며, 광역 차원에서 마련한 계획이 군·구 단위 현장 운영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광역센터의 모니터링 기능이 제도적으로 정착하지 못해 기초 단위 센터 간 성과 격차를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광역센터의 정책 과제는 자체 재원을 활용한 안정적 예산 기반 확보, 광역 차원의 모니터링과 평가 기능 제도화, 그리고 기초 단위 센터와의 정례적 협력체계 구축이다. 이를 통해 광역센터는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를 연결하는 실질적 중간 허브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초지방자치단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성과와 과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05개 군구 단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학교 밖 청소년을 생활권 내에서 직접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전달체계이다(여성가족부, 2024). 운영 성과로는 첫째, 학업 복귀 지원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2023년 한 해 동안 3,822명의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응시하였고 2,342명이 합격하여 학업을 지속하였고, 진학 기회 또한 확대되었다. 둘째, 자립 역량 강화에서도 실적이 확인되었다. 같은 해 144회의 자립캠프가 개최되었다. 더불어 약 7,150명의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받아 생활·건강 영역의 밀착 지원이 이루어졌다. 셋째,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운영되면서 또래 관계 형성, 자기표현, 시민성 제고에도 기여하였다(여성가족부, 2023).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센터는 지역 간 격차라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대도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청소년의 참여율이 높지만, 농산어촌과 도서지역은 청소년 접근성이 낮고 자발적 내방이 적어 서비스 참여가 저조하다. 또한 농산어촌과 도서지역은 평균 3~5명 수준의 인력 구조 속에서 상담·사례관리·행정업무가 동일 인력에게 집중되어, 전문성 유지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지역사회 문화·예술 인프라와 연계도 부족하여 프로그램 다양성과 지속성 제약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센터의 정책 과제는 첫째, 국·비·지방비 공동 재원을 통한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한 방문형·이동형 서비스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셋째, 상담 및 사례관리 전문인력의 확충과 체계적 교육 강화이다. 이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센터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4〉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성과 비교

구분	광역지방자치단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기초지방자치단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현황	• 전국 17개 시도 단위 센터 운영	• 전국 205개 군구 단위 센터 운영
역할	• 기초센터 총괄 조정 • 광역 종합계획 수립 • 광역교육청 고용노동청 등과 협력 플랫폼 기능	• 생활권 내 청소년 발굴·상담 • 학업·직업·자립·사회참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주요 성과	• 광역 단위 계획 수립으로 일관성 제고 • 기초 단위 사업 중복 조정 • 타 행정기관과의 다부처 연계 촉진	• 검정고시(응시 3,822명, 합격 2,342) • 자립캠프 개최(144회), 건강검진 수검(7,150명) • 문화·예술·체육 활동 및 봉사활동 통한 사회성 강화
한계	• 여성가족부 예산 의존도 높음 • 군구 단위 현장과의 연계 부족 • 모니터링 기능 제도화 미비	• 농어촌·도서지역 접근성 낮음 • 평균 인력 3~5명으로 전문성 유지 어려움 • 지역 자원 연계 부족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성과 분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시도에서는 선도적인 시도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왔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개별 사례를 단순히 나열하거나 비교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 단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시도의 우수 성과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상담, 교육, 진로, 자립, 건강 등 5대 기능 영역에 따라 프로그램의 성과를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은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4)이 발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우수 프로그램 사례집」, 지방자치단체 보고서, 관련 학술논문, 센터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 1차 공신력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가. 상담지원

1) 경기도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경기도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 프로그램 ‘마음 치유 극장’을 운영한다. 본 프로그램은 총 7회기에 걸쳐 센터 내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6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은 심리극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심리극은 신체적 표현과 즉흥적 연기를 통해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참여 청소년이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심리적 응어리를 해소하도록 돕는 심리치료 기법이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일부 회기에 원예치료 등 참여형 활동을 병행하여 프로그램의 몰입도를 높였다.

운영 결과, 청소년들은 신체적 표현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이를 집단 내에서 공유하며 상호 공감을 경험하였다. 특히 초반에는 표현에 어려움을 느끼던 청소년들이 회기를 거듭할수록 자신을 개방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였으며 이를 통해 심리적 스트레스 감소와 자기표현 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글로벌뉴스통신GNA, 2024).

[그림 II-1] '마음 치유 극장' 포스터 및 활동



자료 : 경기도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https://www.gpyf.or.kr/gpsp/index.do> (검색일: 2025. 6. 30.)

2) 경기도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경기도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상담지원단 3명, 활동지원단 3명, 인턴십 매니저 1명, 카페 매니저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시흥시 꿈드림 지원단'을 운영하였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효율적 사례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실무자 소진으로 인해 전문적 개입의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지원단은 매년 2월 서류 및 면접 과정을 거쳐 선발하며, 활동비를 지급한다. 상담지원단의 경우 유관 분야 석사 과정생이 참여하고 그 외 지원단은 청소년 관련 학과 재학생 3학년 이상으로 구성되었다.

상담지원단은 미접촉·미연계·은둔형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화 및 문자 상담을 실시하며 센터로 유입되도록 도왔다. 이후 센터에 유입된 청소년은 실무자 관리 체계로 연계되었다.

활동지원단은 급식, 교통비 지원 대상자 사례 관리와 및 스포츠, 문화 활동의 참여를 관리하며, 인턴십 매니저는 인턴십 참여자의 출퇴근 확인, 활동일지 점검, 중도 탈락 방지 및 격려, 직업 활동처와 멘토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카페 매니저는 전문가로서 카페 운영을 맡으며 직업체험 활동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도중 누락되는 청소년을 최소화하고 사례의 질적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사업 집중도를 높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 및 활동 분야의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 11-2] '시흥시 꿈드림 지원단' 활동



자료 :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유튜브 참조 <https://www.youtube.com/@kyci1388> (검색일: 2025. 6. 29.)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또래관계 활성화를 위한 '꿈드림 또래 멘토-연결고리' 사업을 운영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센터 이용 초기, 낯설음과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적응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센터는 또래 멘토 사업을 도입하였고, 역할 모델링이 가능한 멘토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역 내 대학 사회복지학과와 연계해 대학생 멘토단을 구성하였다.

본 센터는 매년 15세부터 24세의 강서구 꿈드림 소속 중 멘티 청소년을 모집하고 지역 내 대학생 멘토단을 선발하여 또래 상담 교육을 실시하였다. 선발된 멘토단은 멘티 청소년들의 적응을 돕는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며 은둔·고립·신규 청소년 지원을 병행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은 정기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이를 통해 멘티·멘토의 생일파티, 반지 만들기, 아로마유리컵·네온사인 공방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멘토단의 활동은 신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꿈드림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안내하고 참여 동기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센터 적응도가 향상되었으며, 특히 은둔·고립 청소년의 경우 참여율 증가와 함께 또래와의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 센터 소속 감도 고취되었다. 또한 멘토단은 정기회의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센터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을 높였고 이 과정에서 꿈드림 프로그램 지원 인원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 11-3] '꿈드림 또래 멘토-연결고리' 활동



자료 :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유튜브 참조 <https://www.youtube.com/@kyci1388> (검색일: 2025. 6. 29.)

나. 교육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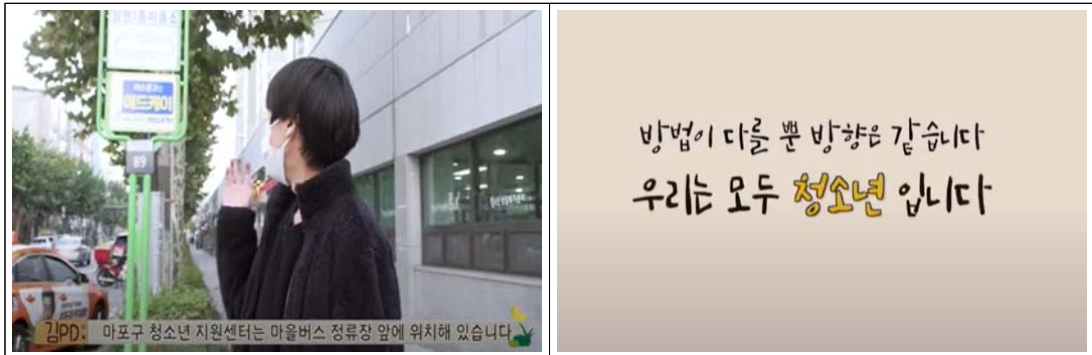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영상 콘텐츠에 대한 시대적 변화와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16세부터 24세의 학교 밖 청소년 8명을 모집하여 미디어 동아리 활동 '밍기적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 기획, 촬영, 편집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교육 단계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비롯해 콘텐츠의 개념과 기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편집기 활용 교육과 실습을 진행하여 기본 역량을 길렀다. 기획 단계에서는 영상콘텐츠 주제와 내용을 정하기 위한 아이디어 회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안을 작성하며 스토리보드 제작과 시나리오 작성이 진행되었다. 촬영 단계에서는 시나리오 사전 리딩을 통해 내용을 점검한 후 카메라 설정과 화면 모니터링을 거쳐 실제 촬영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편집 단계에서는 편집 방향 회의를 통해 작업의 방향을 정하고 편집 및 상영을 진행한 뒤 피드백 회의와 최종 수정 과정을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밍기적 프로젝트 콘텐츠 제작 성과를 살펴보면, 2020년에 진행된 1기는 라디오 영상콘텐츠 5편의 제작과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광고를 제작하였다. 이어서 2021년 2기는 개인 영상콘텐츠 3편을 제작해 온라인 꿈드림 축제 공모전에 출품하였으며 동시에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센터 홍보에 활용하였다(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021).

[그림 11-4] '밍기적 프로젝트' 콘텐츠 제작물



자료 :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유튜브 참조 <https://www.youtube.com/@kyci1388> (검색일: 2025. 6. 29.)

2) 충청남도 천안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웹툰 꿈 키움 프로젝트'는 2024년부터 추진해 왔다. 본 사업은 은둔·고립 학교 밖 청소년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의 증가와 단회성 프로그램으로는 사회 재적응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친 전문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업 체계를 마련해 추진하였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은둔·고립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자기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청소년의 웹툰 작품을 지역사회와 공유하여 성취감을 높이고 사회적 지지 경험을 확대하는 것이다. 나아가 대기업, 대학교, 전문 학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간 협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안정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다.

먼저 웹툰 기초반 운영을 통해 은둔·고립 청소년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기표현과 선호 활동을 안전하게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어 심화반에서는 청소년의 수준과 욕구에 맞춘 맞춤형 커리큘럼을 기획하고 웹툰 작가와 협업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웹툰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진로 준비 동기를 고취하고 대학교와 연계한 직업 체험 및 대회 출전 준비를 지원하였다.

운영 결과, 총 46명의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활동하였고 이를 계기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취업으로 이어진 사례가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고 관련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진로 설계 및 준비 동기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림 II-5] '웹툰 꿈 키움 프로젝트' 교육 과정 및 전시회



자료 : 충청남도 천안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https://cayf.or.kr/odream> (검색일: 2025. 6. 29.)

다. 진로지원

1)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 자기 점검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희망 프로젝트 Dream Want You'를 기획하였다. 본 사업은 청소년문화재단(사업비 1천만 원), 광주광역시 북구청(홍보 지원), 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심리·진로검사), 지역 작업장 및 대학과의 연계로 추진되었다.

본 사업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성취 포상 포인트제로 청소년은 세부 목표와 목표 포인트 설정을 통해 개인별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것이다. 학업 복귀(검정고시 합격, 수능 대비반 참여 등), 사회진입(자기계발 수료, 자격증 취득 등), 기타(센터 인증 프로그램 참여 등)로 구분된 세부 목표별 달성도를 점검하고 목표별 달성 기준에 따른 포인트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본 프로그램 참여자 중 82.5%가 목표를 달성하였다. 둘째,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군 특강 및 체험과 캠퍼스 투어가 진행되었다. 셋째, 도전과 힐링의 기회 제공하고자 마련된 소소한 행복찾기 공모전이 N행시, 행복수기, 그림·사진 공모전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넷째, 성과보고회에서는 성취 포상제 성과 격려, 우수 포트폴리오 전시, 운영보고, 시상 등이 진행되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며 성취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고 일부는 '학교 밖 도전기 공모전'에서 광주광역시장상과 교육감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검정고시 합격자 42명, 대학 합격자 22명, 자격증 취득자 23명, 직업훈련 9명, 취업·인턴십 연계 9명으로 122건의 성과가 확인되었다.

[그림 11-6] '희망 프로젝트 Dream Want You' 포트폴리오 파일 및 성과보고회



자료 :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유튜브 참조 <https://www.youtube.com/@kyci1388> (검색일: 2025. 6. 29.)

2)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창업동아리 활동은 2017년 비즈쿨 창업동아리로 시작되어 가족공예 등 제작품을 프리마켓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단기적이고 제작이 용이한 물품 제작에 치중되어 사업의 확장성이 부족하였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센터는 저비용이며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웹디자인을 창업 아이템으로 선정하였다. 청소년들과 논의를 거쳐 마련한 본 프로그램은 기초부터 실무까지 교육을 제공하였고 내부 공모전을 통해 흥미를 높였다. 이후 '늘꿈'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하였으며, 센터 행사용 현수막, 배너, 카드뉴스 등을 제작 판매하며 본격적인 사업화를 추진하였다.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인턴십을 통한 활동비 지급, 기자재 및 디자인 프로그램 지원, 강사 교육과 컨설팅, 자격증 취득비 지원 등 다양한 체계를 마련해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특히 '늘 꿈 컴퍼니'는 단순한 창업 경험을 넘어 홍보 활동과 동아리 운영을 통한 인재 발굴, 공모전 참가와 자격증 취득, 나아가 청소년 고용까지 연계하며 장기적인 진로 기반을 마련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본 프로그램은 단순한 제작 중심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실제 창업 경험으로 발전하였으며 기존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창업 모델을 제시한 사례가 되었다.

[그림 11-7] ‘늘 꿈 컴퍼니’ 제작물



자료 :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유튜브 참조 <https://www.youtube.com/@kyci1388> (검색일: 2025. 6. 29.)

3) 충청남도 당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충청남도 당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자기주도형 봉사동아리 ‘재기 발랄 당꿈이 들’은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기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이 자연과 함께 지속가능한 순환적 삶을 실현한다는 비전과 함께 해안도시 특성을 반영한 지역 내 봉사로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프로그램은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센터 소속 학교 밖 청소년 15명이 참여하였으며, 지자체 지원금 300만원과 한국해양재단 공모 선정 250만원까지 총 550만원이 투입되었다.

추진 과정에서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바리스타 2급 과정, 테라리움 자격 과정과 또래 상담 교육을 진행하였고, 또래 고민상담소 운영, 꿈드림 부스 운영 및 원예 봉사, 바리스타 봉사, 해안 줍기 챌린지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자기계발 능력과 인성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재능 나눔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였다.

본 프로그램 참여자 전원은 바리스타와 테라리움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래상담자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프로그램 만족도는 95%로 매우 높았다. 지역 내 동아리 선정사업비 300만원과 한국해양재단 공모 선정으로 25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 11-8] '재기 발달 당꿈이들' 고민 상담 프로그램 및 부스 운영



자료 :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https://blog.naver.com/cnyouthdream> (검색일: 2025. 6. 29.)

라. 자립지원

1)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경기도 내 지역 편차와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기획단을 구성하고 시·군 센터와 연합하여 자립작업장 운영모형을 개발하였다. 기획단은 총 35명으로 구성되어 12차례 TF 회의를 진행하였고 2018년에 운영모형을 완성하여 2019년부터 보급하였다. 이를 통해 자립작업장 공간 확보, 교안 개발·보급, 자립지원수당 신설 등의 제도가 마련되었다. 현재 15개 시·군 센터에 자립작업장이 설치되었으며, 경기도 지침에 반영되어 행정적, 재정적 기반도 확보하였다.

자립작업장은 독립형(11개소), 협업형(1개소), 교류형(4개소)으로 구분된다. 독립형은 센터 내 공간이나 자원을 활용하여 자립기술훈련이나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며, 협업형은 여러 센터가 자원을 모아 공동 사업장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교류형은 소속 청소년이 타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원을 공유하는 형태이다.

참여 청소년은 자립 목표 수립 및 계획서를 작성하고 자립준비교실 프로그램에서 취업·경제·법·소양의 네 가지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후 원하는 영역의 전문 기술을 습득하는 자립기술훈련과 직장체험에 참여한다. 중도 탈락 예방 및 지속적인 동기 부여 제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자립지원수당도 마련되었으며, 2021년부터 참여수당과 자격취득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참여수당은 출석률 80% 이상 시 교육 이수 시간에 따라 최소 1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립훈련과정을 통하여 인증된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2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본 센터는 해당 모형의 활성화를 위해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며, 자원 연계망을 구축하여 인턴십

업체, 강사, 멘토, 공간 등을 경기도 내 센터에 공유하고 신규 자립자원을 발굴·연계하고 있다. 아울러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과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경기도 내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시행 전과 비교하여 직장체험 및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률은 320% 증가하였고, 취업 성과 또한 163% 향상되었다.

2)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청소년 꿈+(더하기) 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운영해왔다. 이 예산만으로는 지역사회 자원을 충분히 발굴하거나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특히 검정고시, 진학, 자격취득 등 청소년들의 학업 및 진로 기반 마련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및 취업 준비 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희망 수요를 조사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였다. 그 결과, 부산광역시 내 다수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관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 및 자격취득 분야는 대학과 연계하여 학과 체험, 입시 상담, 교수 특강, 모의 면접 등을 제공하고 장학금 및 교육비를 지원하였다. 문화예술 분야는 영화 시사회, 미술관 관람, 크루즈 체험, 뮤지컬과 연극, 콘서트 티켓 배포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직업체험 분야는 항공, 병역 등 다양한 진로 영역에서 현장 경험을 쌓고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립지원 분야는 냉방비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교통비를 제공하는 등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3년간 총 3,160명의 청소년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며, 지역사회 연계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효과를 거두었다.

[그림 II-9] 직업 체험 및 학과 체험 활동



자료 : 여성가족부-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2024).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우수프로그램 사례집.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중 16~18세가 68.3%, 19세 이상이 25.6%를 차지해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창업동아리 ‘꿈 히어로’의 운영 목적은 청소년의 창업 역량을 강화해 자립을 지원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동아리 활동은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창업 실무 경험, 가치 실현 인식개선 프로젝트로 구성되었다.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창업 교육, 창업 투어, 모의 창업으로 이루어졌다. 창업 교육에서는 기본 이론 학습과 역량 진단, 아이디어 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를 진행하였고, 창업 투어는 지역 창업인 인터뷰 방식으로 모의 창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 창업과 크라우드 펀딩 경험으로 운영되었다.

창업 실무 경험에서는 베이킹, 소품 제작 등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였으며 상설 판매, 주문 제작, 납품, 플리마켓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체험하였다.

가치 실현 인식개선 프로젝트는 나눔과 기부, 일자리 연계를 통해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 2019년부터는 행정복지센터, 아동센터,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사랑의 쿠키 박스’를 운영하였고, 지역 백화점에 입점하여 ‘꿈드림 리브마켓’을 진행하였으며 아르바이트 연계로 15명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발생한 수익금은 지역사회에 기부되었다.

운영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44명이 자기계발 과정을 이수하였고 16명이 취·창업 지원을 받았으며 1명이 공모전에서 수상하였다.

[그림 II-10] '꿈 히어로 8기' 활동



자료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https://saha1388.kr/> (검색일: 2025. 6. 29.)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지원센터는 H-워너비 자립연계 통합구축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 자립을 지원하였다. 본 센터는 보호관찰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경찰서, 구청, 정신보건센터 등과 협력해 홍보, 아웃리치,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나 단순한 자원 발굴을 넘어 청소년의 실제 요구를 파악하고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자립, 불투명한 미래와 진로, 건강 교육 지원 수요가 확인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관계 속에서 자원을 발굴 및 협력 프로그램 기획, 직업인 초청, 기업 연계를 통한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추진 결과에 따르면 해운대구 약사회와 연계한 약사 특강과 정기 건강 멘토링이 운영되었고 400만원 상당의 의약품 25종이 지원되었다. 카페 업체는 격월 커피 제조 실습을, 영화의 전당은 영화 제작 교실을 운영해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3D 프린팅 기업과의 프로그램에서는 다수의 청소년이 3D 프린팅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부산예술대학교 전문 스튜디오에서는 청소년의 녹음 활동을 진행하였다. 입시 전문 학원으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직업체험 전문성 강화, 연합 활동, 인식 개선, 작품 제작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전문 직업 인턴십 운영, 지역 관광 굿즈 브랜드화, 청소년 영화제 출품을 계획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는 1인 창업 프로그램과 편집샵 운영, 판매 수익의 지역 기부, 해운대구 꿈드림 영화제 개최 등을 목표로 하였다.

[그림 II-11] 'H-워너비 자립연계 통합구축 서비스' 직업인 특강 및 기업 본사 직업 체험



자료 :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유튜브 참조 <https://www.youtube.com/@kyci1388> (검색일: 2025. 6. 29.)

5) 충청북도 음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충청북도 음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자립지원 특성화 프로그램인 다솜누리 Dream Company를 운영하였다. 2021년 4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음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소요 예산은 530만원이었다. 본 프로그램은 음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청소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사회적 이슈에 동참할 수 있는 영역을 선택하고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자원을 활성화하며 진로 체험 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단계별 절차를 소개하자면 먼저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욕구(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파악과 환경 오염 등 사회 문제를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역 자원을 분석하였다. 그 후 베이커리, 문화예술공간, 카페, 농촌, 가죽공방 등 지역 전문 인력 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체험을 실시하였다. 청소년들은 활동 과정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쿠키 및 농작물 기부, 플로깅 활동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한 재능 기부 활동도 이어갔다.

이러한 활동들은 홍보 자료로 제작되었으며, 군수 간담회를 통해 우수 청소년에게는 표창을 수여하였다. 참여 청소년 중 일부는 바리스타, 제과기능사, 굴착기 등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지역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지역 자원 활성화, 진로체험 체제 구축에도 기여하였다.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모든 참여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성, 협동성, 사회적 참여도가 향상되었고 생활 만족도 및 자신감과 성취감도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II-12] '다솜누리 Dream Company' 농부 체험 및 환경 보호 교육



자료 :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유튜브 참조 <https://www.youtube.com/@kyci1388> (검색일: 2025. 6. 29.)

마. 건강지원

1) 경상남도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시간 제약, 비대면 수요 증가, 정서적 지원의 필요성, 단절 및 소외 예방 및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내 마음의 포레스트'를 기획하였다.

주요 목표는 반려식물을 기르며 정서적 안정을 얻고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것이다. 꽃, 당근, 콩나물 등 계절별 실내 가드닝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농촌진흥청 자료와 황성 숲체원 연계를 활용하였다. 운영은 비대면을 중심으로 하되 격월로 원예 전문가와 대면 활동을 병행하여 꽃바구니, 크리스마스 리스 등 생활 속에서 활용 가능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정서 활동으로 씨앗 제공 및 편지 작성, 반려식물 이름 N행시 대회, 그림카드 제작 등을 통해 식물과 교감하도록 하였다. 둘째, 환경 실천 활동으로 지구의 날 소등 행사, 직접 재배한 채소를 활용한 식사, '2050 탄소중립 실천하기' 캠페인, 환경 영상 시청 및 소감문 작성 등 주간 미션 활동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참가자들은 '꽃집사', '정원사' 등의 명칭을 부여받아 소속감과 책임감을 강화하였다.

운영 결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 효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식물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 역시 유의미하게 증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1-13] '내 마음의 포레스트' 반려식물 편지 및 그림



자료 :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유튜브 참조 <https://www.youtube.com/@kyci1388> (검색일: 2025. 6. 29.)

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2022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문제 위험집단 비율은 12.6%로 재학 청소년(4.8%)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중 47.2%가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에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가치관 정립을 돕고 마약·도박과 같은 중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도박 예방교육을 진행하였다. 본 교육은 기초소양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공하는 온라인 청소년 연극 '다시 시작이야'를 활용해 실시하였다.

교육에서는 도박의 실태와 중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과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었고, 청소년들과 함께 중독 예방법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하승빈, 2024).

[그림 11-14] 마약·도박 예방 교육



자료 : 시사일보 2024. 3. 17.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마약·도박 예방교육' 운영.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신체활동과 교류활동을 포함한 증장기 마라톤 프로젝트 ‘마라 YOUTH’를 운영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주 1회, 회기당 2시간 동안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교육과 런닝 활동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2025년 4월 15일 첫 회기부터 모든 청소년이 참여하여 규칙적인 운동을 지속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였고, 나아가 프로그램 회기 수 확대를 제안하는 등 주도적 태도를 보였다.

그 결과 2025년 5월 31일 참여 청소년 전원이 ‘2025 지구런’ 5km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여 완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더불어 청년 멘토와 정기적 런닝 및 교류를 통해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와 자기주도적 운동 습관을 형성하였다. 참여 청소년들은 지속적인 격려와 또래와의 교류 속에서 성취 경험을 축적했으며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증진하였다.

[그림 II-15] ‘마라 YOUTH’ 정기 훈련 및 마라톤 대회 참여



자료 : 푸른나무재단 <https://blog.naver.com/bakbht/22390881059> (검색일 2025. 6. 23.)

바. 홍보지원

1) 경상남도 창원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경상남도 창원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지역사회 홍보활동을 통해 신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연계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학업 복귀와 사회 진출을 돕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찾아가는 향토 5일장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하였다.

아웃리치 계획을 수립하고 리플렛, 현수막, 홍보물품을 제작하였으며 검정고시 접수장과 고시장 등 오프라인 현장은 물론 지역 카페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아웃리치 행사 홍보를 병행하였다. 본격적인 아웃리치는 2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창원군 내 여러 향토 5일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 캠페인과 함께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안내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22년에는 신규 사례 7명을 발굴하였고 38건의 프로그램 참여를 이끌어냈다. 주요 성과로 검정고시 접수, 자기계발 활동, 대학 탐방, 직업 탐색, 플로깅 등 진로 및 환경보존 프로그램 참여가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4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2명이 사회에 진입했으며 1명은 대학에 진학하였다.

[그림 11-16] '찾아가는 향토 5일장 아웃리치' 활동



자료 : 여성가족부·복권위원회·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2023). 2023년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우수프로그램 사례집.

2)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제도권 내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실현 가능한 지역 기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 밖 청소년정책 소셜 랩(Decide teenteen)을 운영하였다. 7개월의 추진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예산 600만원이 소요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담당자 등 다양한 정책 추진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운영은 원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부와 2부로 나뉘어 총 8개 주제가 다루어졌다. 1부에서는 진학 및 취·창업 지원 강화, 발굴 및 홍보, 지역사회 연계·협력 강화, 전용 공간 마련이 논의되었고, 2부에서는 복지지원과 전담 상담사 배치, 교육지원의 법적 기반 체계화, 일자리와 자립지원, 인식개선 및 권리와 참여 확대가 다뤄졌다.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및 9개 구군별로 18개의 과제가 제안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및 권리·참여 확대(우수 사례 공유, 명칭 변경 등)와 관련된 과제가 7개로 가장 많았다. 상담지원(전문상담인력 배치 등)은 5개, 교육지원(공립 학원 설립 등)은 4개, 자립지원

(진로포인트 제도 등)은 2개였다.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구군 단위 및 기초단체 의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교육청과 소통을 통해 차별 없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림 II-17] '학교 밖 청소년정책 소셜 랩(Decide teenteen)' 활동



자료 :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https://youtu.be/olt9OKSckVA?feature=shared> (검색일 2024. 1. 24.)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확장 전략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방향 모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역 기반 전달체계로, 10여 년간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와 자립지원의 핵심 기관으로 기능해왔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학력 취득과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단기성과 창출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운영 체계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상담지원은 학업 복귀와 위기 개입 중심에 치중되어 있어 장기적인 정서 회복과 자아 정체성 확립을 지원하는 기능이 미흡하다. 둘째, 교육지원은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등 학력 취득에 치중되어 있어 민주적 가치와 시민성 학습의 기회가 부족하다. 셋째, 진로지원은 자격증 취득과 단기 기술 습득 위주로 운영되어, 협업·사회적 책임 등 사회적 역량 함양은 상대적으로 간과된다. 넷째, 자립지원은 연령 구분 없이 유사한 형태로 제공되어 발달단계별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는 발달심리학 이론과 국제 규범의 관점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에릭슨(Erikson)은 청소년을 '정체성 대 역할 혼란' 단계로 보았고, 피아제(Piaget)는 추상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가 성숙하는 시기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현장의 검정고시 준비반은 주입식 학습에

치중되어 이러한 발달 과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UN 아동권리협약 제29조는 교육의 목적을 아동의 인격·재능·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 발달로 규정하였으나 현행 프로그램은 학업·직업 중심의 단기성과 지표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기존 틀을 넘어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장기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표 1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영역별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구분	문제점	전략적 개선 방향
설립 및 제도 기반	제도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학업·직업 중심에 편중	권리 기반 접근(RBA)을 강화하여 정서·사회성·시민성 등 전인적 성장 지원 포함
운영 성과	학업·진로 성과는 뚜렷하나 전인적 발달과 사회적 함양 지원은 부족	교육·진로지원과 더불어 심리·문화·체육 활동 등 통합 성과 지표 도입
상담지원	정서 회복, 자아 정체성 확립 지원 미흡	예술치료·심리치료·집단상담 결합, 장기적 발달 중심 상담 체계 강화
교육지원	민주적 가치·시민성 학습 기회 부족	민주시민 교육, 참여형 학습(모의 의회, 정책 제안 활동 등)과 연계
진로지원	협업·사회적 책임 등 사회적 역량 함양 소홀	프로젝트형 직업훈련 도입,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통해 직업·시민 역량 동시 강화
자립지원	연령 구분 없이 획일적 운영, 발달단계별 요구 반영 미흡	9~11세: 기초학습·정서안정 12~14세: 또래관계·기초 진로 15~18세: 학업·진학 19~24세: 자립·취업 등 연령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확장 전략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기존의 상담·교육·진로·자립 기능을 유지하되 전인적 발달, 민주시민 교육,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첫째, 상담 서비스에 정서적·사회적 발달 요소를 접목할 필요가 있다. 현행 상담은 위기 개입에 집중되어 있으나, 미술·음악·연극 등 예술치유 활동과 심리치료, 집단상담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포함한다면 청소년은 자기 회복과 자기 탐색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확립을 돕는 장기적 효과를 낼 것이다.

둘째, 교육지원은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단기 목표를 넘어 민주시민 교육과 결합할 필요가 있다. 국어·사회 과목 수업에 토론, 모의 의회, 정책 제안 활동을 포함하여, 청소년 자치활동과 연계하면 학업 과정 자체가 민주적 가치와 시민성을 학습하는 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입법 취지와 아동권리협약 제12조·제15조에서 보장하는 참

여권과 결사의 자유를 국내 정책 현장에서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이다.

셋째, 진로지원은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 사회적 역량 강화를 포괄해야 한다. 예컨대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사회적 기업 연계 활동, 지역 축제 기획·운영 참여 등은 청소년에게 직업 기술뿐만 아니라 협업, 의사소통, 사회적 책임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직업훈련을 생계유지 수단의 범주에서 머물지 않고 사회적 성장과 공동체 참여의 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이 된다.

넷째, 자립지원은 연령대별 발달 특성을 반영하여 재구성되어야 한다. 9~11세 아동단계청소년은 생활습관 형성과 정서 안정이 요구되며, 12~14세 초기청소년은 또래 관계와 기초 진로 탐색이 요구된다. 15~18세 중기청소년은 학업 복귀와 진학 상담이 요구되며, 19~24세 후기청소년은 주거·취업·금융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함으로써 획일적 지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① 정서·사회·신체 발달을 지원하는 전인적 발달 프로그램, ②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시민 프로그램, ③ 발달단계 차이를 반영한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을 기존 체계에 통합해야 한다. 이러한 확장은 청소년을 보호와 관리의 대상에서 권리 주체로 전환시키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권리 기반 접근 취지를 구체화하고, 동시에 UN 아동권리협약이 강조하는 전인적 성장과 참여권 보장의 국제 규범과도 합치한다. 따라서 프로그램 확장은 단순 보완이 아니라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종합 성장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필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표 II-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영역별 확장 전략

구분	확장 전략	기대 효과
상담지원	미술·음악·연극 등 예술치유, 심리치료, 집단상담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도입	문제 해결을 넘어 자기 회복·정체성 확립 지원
교육지원	국어·사회 과목에 토론·모의 의회·정책 제안 활동 포함, 자치활동과 연계	학습 과정이 민주적 가치와 시민성 학습의 장으로 확장
진로지원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사회적 기업 연계, 지역 축제 기획·운영 참여	직업기술 + 협업·의사소통·사회적 책임 학습, 공동체 참여 강화
자립지원	9~11세: 생활습관·정서 안정 12~14세: 또래 관계·기초 진로 탐색 15~18세: 학업 복귀·진학 상담 19~24세: 주거·취업·금융 역량 강화	발달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자립 역량 강화, 획일적 한계 극복
발전 방향	전인적 발달·민주시민·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합	청소년을 권리 주체로 전환, 종합 성장 플랫폼으로 발전

4 시사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기점으로 독립된 제도 영역을 확보하였다.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진로·자립·건강 등 다차원적 지원이 제공되며, 전국 단위의 전달체계가 구축되었다. 인천광역시 또한 광역 및 기초 단위 센터를 운영하면서 학업 복귀, 직업훈련, 건강검진 등 가시적 성과를 축적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단기적 성과 지표 중심, 중앙집중적 예산 구조, 지역 간 자원 격차, 연령별 맞춤형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향후 정책은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청소년을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발달단계별 요구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첫째, 중앙-광역-기초 간 전달체계의 균형 강화가 요구된다. 현재 여성기초부는 전국 정책을 총괄하지만, 지역 현장의 세부 수요 반영에는 한계가 있다. 광역센터는 조정기능을 수행하나 예산 의존도가 높아 독립성이 부족하며, 기초센터는 인력과 자원이 한정되어 서비스의 질적 저하 위험이 크다. 따라서 국비와 지방비의 공동 재원 구조를 강화하고, 광역 차원의 모니터링 체계를 제도화하며, 농산어촌과 도서지역의 방문형·이동형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의 발달단계별 맞춤형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상담·교육·자립지원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령별 발달과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9~11세 아동단계청소년은 생활습관과 정서 안정, 12~14세 초기청소년은 또래관계와 기초 진로 탐색, 15~18세 중기청소년은 학업 복귀와 진학 상담, 19~24세 후기청소년은 주거·취업·금융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반영한 차등형 프로그램 설계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지원의 지표 전환이 요구된다. 검정고시 합격률과 대학진학 성과에 집중된 현 체계는 청소년의 장기적 성장과 사회참여 역량을 담보하기 어렵다. 교육지원은 민주시민 교육, 모의 의회, 정책 제안 활동 등과 결합된다면 학습과정 자체가 시민성 학습의 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

넷째, 자립지원과 직업훈련의 질적 확장이 필요하다. 현행 자립지원은 단기 기술 습득과 자격증 취득에 치중되어 있으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사회적 기업 연계, 지역 축제 운영 참여 등을 통해 직업 역량과 공동체 참여 능력을 동시에 함양하는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 또한 자립지원수당, 참여수당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지속적 참여와 동기를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정서·건강지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 예술치유, 집단상담, 스포츠·마라톤

프로그램 등은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일회성으로 운영 되는 경우가 많다. 정서·건강 프로그램을 정규화하고,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상담을 후기청소년 까지 확대하여 생활밀착형 복지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 인식 개선과 권리 기반 접근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홍보사업은 참여 횟수 확대에 치중하며, 실제 시민 인식 변화를 측정하는 평가지표는 미비하다. 향후 청소년 참여형 캠페인, 우수 청소년 멘토링, 지역사회 연계형 인식 개선 활동을 제도화하고, 권리 기반 접근을 적용하여 청소년을 관리·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확립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지난 10년간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며 전달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립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성과 지표의 단기성과, 지역 간 자원 불균형, 발달단계별 맞춤형 부족, 후기청소년 지원의 공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권한과 책임의 재조정, ② 연령별·성별·지역별 특성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③ 권리 기반 접근과 시민성 강화, ④ 지속 가능한 예산·인력 구조 마련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권리 주체로 재위치시키는 전환 정책이며, 동시에 국제 인권규범이 요구하는 교육권·참여권 보장의 실현 경로가 될 것이다.



III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1. 인천광역시 학업 중단자 현황
2.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3.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분석
4.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분석
5. 시사점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1 인천광역시 학업 중단자 현황

가. 학업 중단 현황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은 일반적으로 교육통계의 학업 중단자 현황을 통해 파악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이는 추론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통계를 이용하여 인천광역시의 학업 중단자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았다.

인천광역시 학업 중단율 추이는 지난 10년 간(2015~2024년) 전국 학업 중단율에 비하여 0.1%에서 0.2% 정도 낮은 수치를 유지하였다. 2021년 코로나19로 인하여 0.5%(1,428명)까지 감소한 시기 외에는 0.7%에서 0.9% 사이의 중단율을 보인다. 2021년의 감소 이후,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상승하여, 학업 중단자 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학업 중단이 최소화되어 누적되었다가 대면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가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중·고등학교 순서로 학업 중단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령 인구의 감소를 고려하면 2021년을 기점으로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전과 비교하여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특성화고는 고등학교 유형 중 학업 중단율이 가장 높고, 매우 역동적인 추이를 보이며, 2024년은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인 3.8%를 기록하고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향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표 III-1〉 2015-2024년 전국 및 인천광역시 연도별 학업 중단율 및 중단자 수

(단위: %, 명)

연도	전국					인천				
	중단율				중단자 수	중단율				중단자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2015	0.5	0.7	1.4	0.8	51,906	0.4	0.6	1.3	0.7	2,485
2016	0.5	0.6	1.3	0.8	47,070	0.5	0.5	1.1	0.7	2,266
2017	0.6	0.6	1.4	0.8	47,663	0.4	0.6	1.3	0.7	2,346
2018	0.6	0.7	1.5	0.9	50,057	0.5	0.7	1.3	0.7	2,441
2019	0.7	0.7	1.6	0.9	52,539	0.5	0.7	1.6	0.8	2,701
2020	0.7	0.8	1.7	1.0	52,261	0.6	0.7	1.6	0.9	2,690
2021	0.4	0.5	1.1	0.6	32,027	0.3	0.4	0.9	0.5	1,482
2022	0.6	0.5	1.5	0.8	42,755	0.4	0.4	1.5	0.7	2,109
2023	0.7	0.7	1.9	1.0	52,981	0.5	0.6	1.8	0.8	2,582
2024	0.7	0.7	2.0	1.0	54,615	0.6	0.7	1.9	0.9	2,8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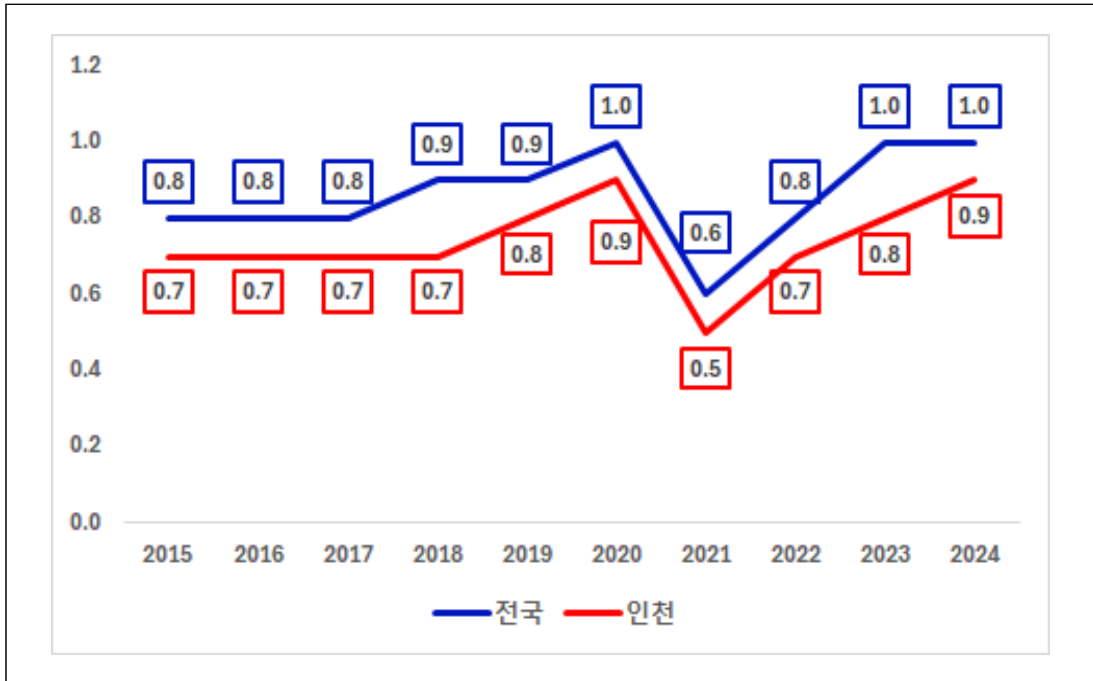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추출일: 2025. 8. 14.)

주: 학업중단율(%) = 학업 중단자 수 / 학생 수 × 100

2024년 학업 중단자 수는 전년도 3월부터 해당 년도 2월 기준임.

〈그림 III-1〉 2015-2024년 전국 및 인천광역시 연도별 학업 중단율

(단위: %)



〈표 Ⅲ-2〉 2015-2024년 전국 및 인천광역시 연도별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 및 중단자 수

(단위: %, 명)

연도	전국						인천					
	중단율					중단자 수	중단율					중단자 수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계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계	
2015	1.2	1.3	2.3	0.9	1.4	25,318	1.0	0.9	2.3	1.1	1.3	1,306
2016	1.1	1.1	2.2	0.8	1.3	22,554	0.8	0.9	2.1	0.8	1.1	1,076
2017	1.2	1.1	2.3	0.9	1.4	23,741	0.9	0.9	2.6	0.9	1.3	1,234
2018	1.3	1.3	2.7	0.9	1.5	24,506	1.0	0.9	2.3	0.8	1.3	1,188
2019	1.3	1.4	3.2	1.1	1.6	24,978	1.2	0.8	3.2	0.9	1.6	1,324
2020	1.4	1.5	3.4	1.1	1.7	23,894	1.2	1.1	3.2	1.0	1.6	1,235
2021	1.0	0.9	1.9	0.6	1.1	14,439	0.8	0.6	1.4	0.6	0.9	684
2022	1.3	1.3	3.1	0.8	1.5	20,131	1.2	0.9	2.8	0.8	1.5	1,093
2023	1.6	1.6	3.9	0.9	1.9	23,981	1.5	1.4	3.4	0.7	1.8	1,264
2024	1.7	1.7	4.1	1.7	2.0	25,915	1.6	1.4	3.8	1.0	1.9	1,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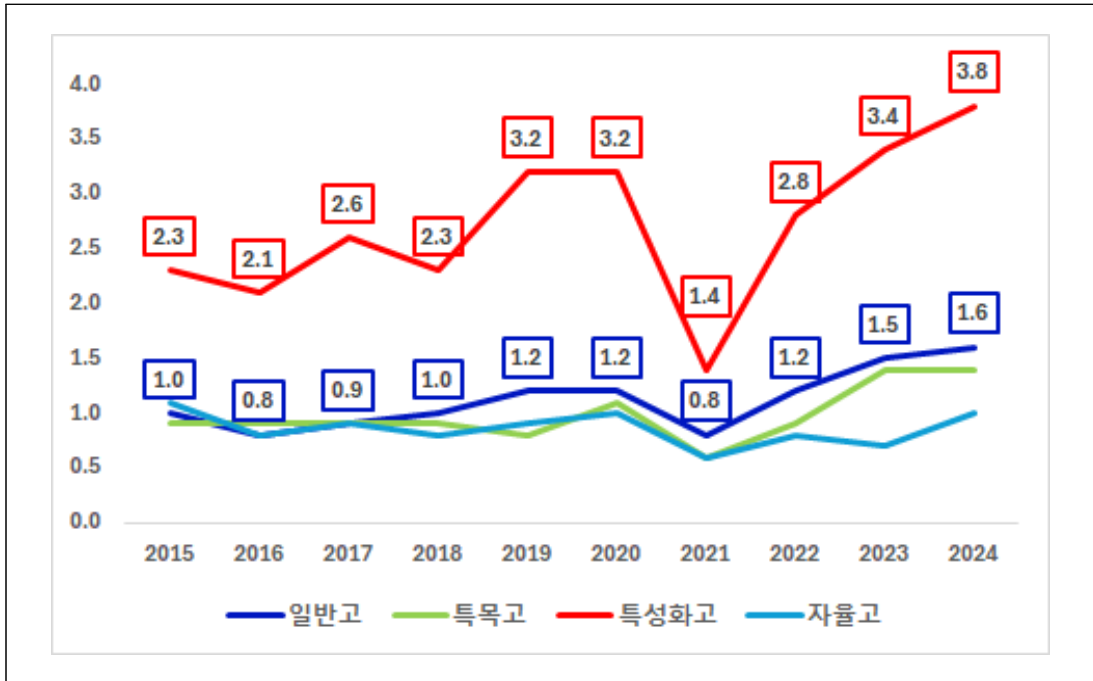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추출일: 2025. 8. 14.)

주 : 학업 중단율(%) = 학업 중단자 수 / 학생 수 × 100

2024년 학업 중단자 수는 전년도 3월부터 해당 년도 2월 기준임.

[그림 Ⅲ-2] 2015-2024년 인천광역시 연도별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

(단위: %)



2024년도 인천광역시 성별·학교급별 학업 중단율을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미미한 반면, 고등학교는 모든 유형에서 남학생 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학업 중단율이 뚜렷하게 높다. 이는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III-3〉 2024년 인천광역시 성별·학교급별 학업 중단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학생	중단자	중단율	학생	중단자	중단율	학생	중단자	중단율	
초등학교	155,083	871	0.6	75,762	442	0.6	79,321	429	0.5	
중학교	78,085	552	0.7	38,172	286	0.7	39,913	266	0.7	
고등학교	계	73,603	1,434	1.9	35,544	811	2.3	38,059	623	1.6
	일반	57,045	933	1.6	27,334	538	2.0	29,711	395	1.3
	특목	3,640	50	1.4	1,772	35	2.0	1,868	15	0.8
	특성화	11,556	437	3.8	5,683	229	4.0	5,873	208	3.5
	자율	607	14	2.3	755	9	1.2	607	5	0.8
계	306,771	2,857	0.9	149,478	1,539	1.0	157,293	1,318	0.8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추출일: 2025. 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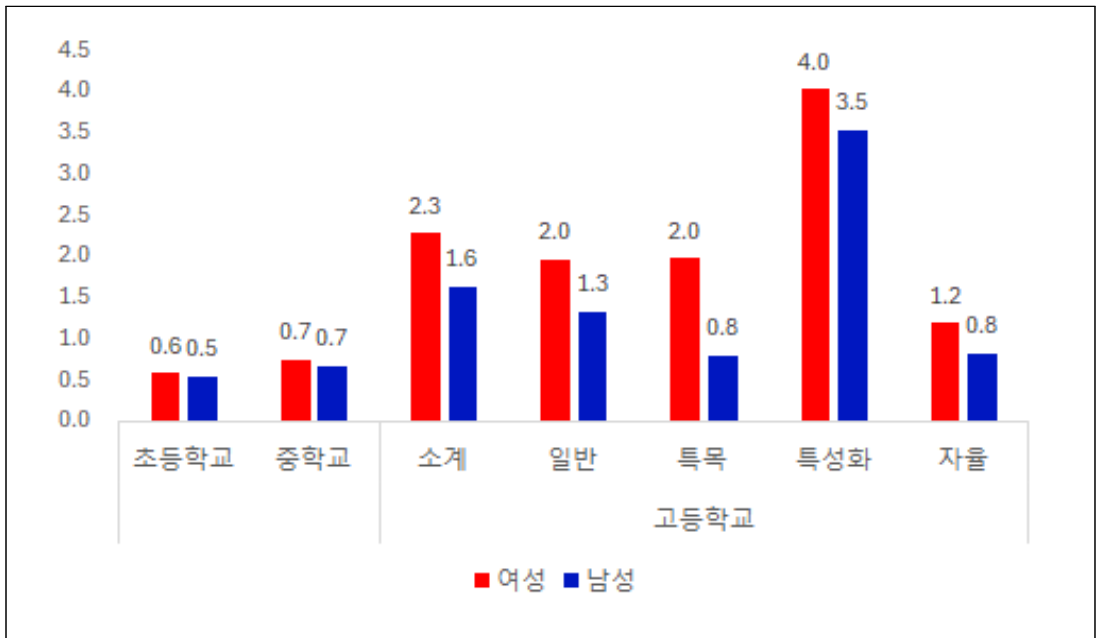
주 : 학업 중단율(%) = 학업 중단자 / 학생 수 × 100

학업 중단자 조사기준일 = 2023년 3월 ~ 2024년 2월

학생 수 기준일 = 2023년 4월 1일

〔그림 III-3〕 2024년 인천광역시 성별·학교급별 학업 중단율

(단위: %)



군·구별 학업 중단 현황을 보면, 연수구가 1.5%로 가장 높았으며, 중구가 1.2%, 강화군이 1.0%로 뒤를 이었고, 옹진군이 0.6%로 가장 낮았다.

학교급별 학업 중단율의 상위 지역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연수구(1.3%), 강화군(0.6%), 중구·동구·서구(각 0.5%)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중구(1.0%), 연수구(1.0%), 서구(0.9%) 순이었다. 고등학교는 연수구(2.4%), 중구(2.2%), 미추홀구·부평구·계양구(각 2.1%)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4〉 2024년 인천광역시 군·구별·학교급별 학업 중단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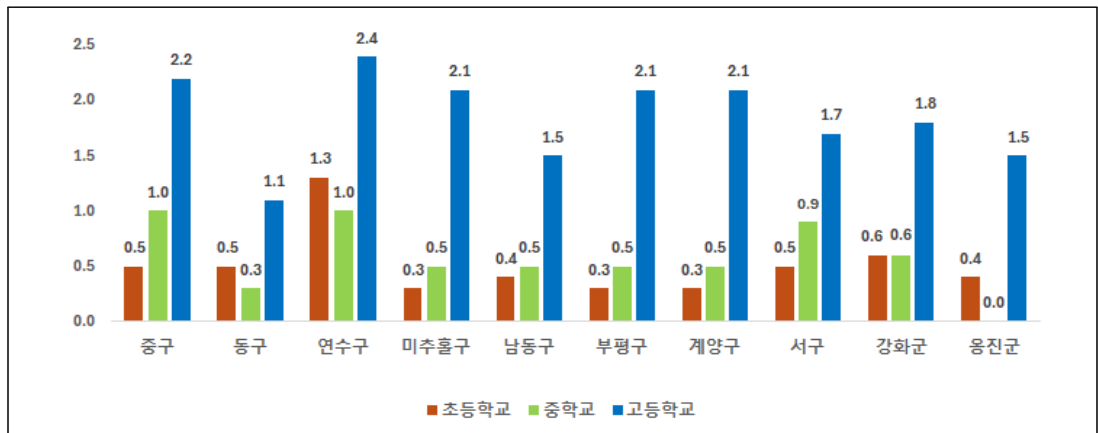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일반		특목		특성화		자율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중구	262	1.2	46	0.5	49	1.0	167	2.2	73	1.7	8	0.9	80	4.8	6	0.9
동구	37	0.6	16	0.5	4	0.3	17	1.1	2	0.4			15	1.4		
연수구	749	1.5	342	1.3	134	1.0	273	2.4	188	2.2	0	0	77	4.3	8	1.2
미추홀구	272	0.8	53	0.3	41	0.5	178	2.1	83	1.5	1	0.3	94	3.6		
남동구	348	0.7	106	0.4	67	0.5	175	1.5	143	1.4	20	2.0	12	2.2		
부평구	333	0.8	64	0.3	55	0.5	214	2.1	121	1.5	21	2.5	72	5.7		
계양구	199	0.8	37	0.3	33	0.5	129	2.1	104	1.8			25	5.1		
서구	602	0.9	193	0.5	161	0.9	248	1.7	198	1.5	0	0	50	2.9		
강화군	49	1.0	12	0.6	8	0.6	29	1.8	17	1.4			12	2.7		
옹진군	6	0.6	2	0.4	0	0	4	1.5	4	1.5						
계	2,857	0.9	871	0.6	552	0.7	1,434	1.9	933	1.6	50	1.4	437	3.8	14	1.0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추출일: 2025. 8. 14.)

주 : 수 = 학업 중단자 수, % = 학업 중단율

〈그림 Ⅲ-4〉 2024년 인천광역시 군·구별·학교급별 학업 중단율

(단위: %)



나. 학업 중단 이유

2024년도 인천광역시의 학업 중단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자퇴가 49.4%(1,411명)로 가장 많았고, 면제 23.1%(659명), 장기결석 19.8%(565명), 유예 7.0%(201명) 순으로 나타났다. 퇴학은 0.7%(21명)로 극히 적었고, 제적은 보고되지 않았다.

〈표 III-5〉 2024년 인천광역시 학교급별 학업 중단 이유

(단위: 명, %)

구분	학업 중단자 수	학업중단 이유											
		유예		면제		자퇴		퇴학		제적		장기결석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초등학교	871	117	13.4	496	56.9	0	0.0	0	0.0	0	0.0	258	29.6
중학교	552	83	15.0	163	29.5	0	0.0	0	0.0	0	0.0	306	55.4
고등학교	1,434	1	0.1	0	0.0	1,411	98.4	21	1.5	0	0.0	1	0.1
(일반고)	933	0	0.0	0	0.0	929	99.6	3	0.3	0	0.0	1	0.1
(특목고)	50	0	0.0	0	0.0	50	100.0	0	0.0	0	0.0	0	0.0
(특성화고)	437	1	0.1	0	0.0	418	95.7	18	4.1	0	0.0	0	0.0
(자율고)	14	0	0.0	0	0.0	14	100.0	0	0.0	0	0.0	0	0.0
계	2,857	201	7.0	659	23.1	1,411	49.4	21	0.7	0	0.0	565	19.8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추출일: 2025. 8. 14.)

교육통계서비스(2024)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업 중단 사유 중 면제가 56.9%(496명)로 가장 많았고, 장기결석이 29.6%(258명)로 조사되었다. 초등학교의 학업 중단은 중·고등학교와 달리 학생의 자발적 선택보다 가정이나 학교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경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 학업 중단 사유의 대부분이 자퇴 98.4%(1,411명)였으며, 퇴학은 1.5%(21명)로 극히 적었다. 이는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이 주로 학생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학교 이탈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 밖 청소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진로 탐색 및 직업교육 등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고등학교 유형별 자퇴비율은 특목고, 자율고가 제일 높았다. 특성화고의 학업중단 이유를 살펴보면 자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른 유형과 달리 퇴학자가 18명으로 확인되었으나 학업 중단 이유에서 4.1%에 그쳤다. 그러나 자퇴 비율은 전체 자퇴의 95.7%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고려된다.

2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연도별 학업 중단 현황은 교육통계로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교육통계만으로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본 연구는 대표적으로 하형석, 이종원, 이정민(2019)의 「학교 밖 청소년 추정치 추계방안 연구」에서 제시된 간접추정 방식 중 코호트 추적 방식과 부분집합 방식을 적용하여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표 Ⅲ-6〉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방식

<p>간접 추정 방식 1. 코호트 추적 방식</p>	<p>초등 1학년 시점부터 각 학년까지 학업 중단자를 합산하여 규모를 산출하되, 재입학 편입자는 제외하는 방식</p> <p style="text-align: center;">그림 5 코호트 추적 방식</p>
<p>간접 추정 방식 2. 부분집합 방식</p>	<p>해당 연령대 청소년 인구수에서 재학 학생 수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방식</p> <p style="text-align: center;">그림 4 간접추정 방법(부분집합 방식)</p>

출처 : 하형석 (2020).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NYPI Bluenote 통계, 5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두 방식 모두 추정치 산출 방법이므로 편향(frame bias)과 오차 발생의 한계를 내포한다. 코호트 추적 방식은 교육통계에서 연령 개념이 불명확하며, 학교급 간의 진학률을 100%로 가정하기 때문에 비진학자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부분집합 방식 역시 청소년 인구수(주민등록인구)와 학생 수(교육통계) 간 모집단 정의와 조사 시점의 차이가 존재하며, 해외 출국자가 포함되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하형석, 2020: 6).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수조사나 정확한 추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위의 두 가지 방식이 정책적 규모 산출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 코호트 추적 방식 추정 결과

코호트란 특정 기간 동안 공통적인 특징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코호트 연구는 일반적으로 시작 시점부터 집단을 모집·선정하여 추적하지만, 본 연구는 이미 결과가 발생한 대상을 특정 시점에 식별하여 분석하는 후향적 코호트 연구로 진행하였다. 학업 중단자는 교육통계에서 제공된 수치를 활용하였으며, 재입학·편입·복학은 재입학자와 편입자를 합하여 산출하였다.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전·출입은 반영하지 않아 오차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4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III-7〉 2024년 인천광역시 학업 중단자 코호트 추적 방식에 따른 추출

(단위: 명)

연도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초등학교	1학년	182	160	174	111	221	201	142	146	139	134	124	98
	2학년	147	146	120	84	154	134	149	119	143	94	115	87
	3학년	153	170	105	82	136	146	130	123	110	102	130	117
	4학년	148	176	132	94	152	116	141	83	107	98	137	126
	5학년	141	111	85	95	145	135	99	99	115	109	112	151
	6학년	100	79	61	53	124	79	76	66	95	83	106	141
중학교	1학년	205	183	150	135	199	208	196	197	153	195	220	264
	2학년	202	174	121	84	178	202	186	132	173	189	253	312
	3학년	145	119	68	60	146	156	134	147	155	175	270	314
고등학교	1학년	807	642	556	358	712	650	627	666	564	774	928	1,021
	2학년	555	507	466	287	419	529	452	446	401	443	535	590
	3학년	72	115	71	39	104	145	109	122	111	89	105	107

〈표 III-8〉 2024년 인천광역시 재입학·편입자 코호트 추적 방식에 따른 추출

(단위: 명)

연도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초등학교	1학년	9	9	10	12	6	14	37	50	33	41	44	39
	2학년	26	32	21	44	31	29	75	87	85	67	84	87
	3학년	49	30	43	71	45	59	101	105	88	93	92	113
	4학년	55	53	45	79	66	55	109	80	87	106	98	109
	5학년	71	61	67	89	65	83	74	98	105	95	94	126
	6학년	80	58	70	111	80	63	87	108	101	114	133	168

연도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중학교	1학년	63	57	49	85	74	82	86	93	100	127	137	147
	2학년	55	51	54	80	63	80	75	89	97	125	144	146
	3학년	61	44	31	69	62	54	61	84	108	131	126	145
고등학교	1학년	48	64	49	76	83	81	94	109	114	114	133	162
	2학년	38	35	39	56	57	48	65	52	63	70	93	96
	3학년	20	17	17	25	20	22	272	36	23	23	31	41

〈표 Ⅲ-9〉 2024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코호트 추적 방식에 따른 규모 추출

(단위 : 명)

입학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계
학년	초1	초1~초2	초1~초3	초1~초4	초1~초5	초1~초6	초1~중1	초1~중2	초1~중3	초1~고1	초1~고2	초1~고3	계
학업 중단자	98	239	330	499	570	737	1,019	1,309	798	1,572	2,467	2,857	12,495
재입학 편입	39	128	201	293	420	483	385	430	640	439	494	546	4,498
2024년도 학교 밖 청소년 규모													7,997

〈표 Ⅲ-10〉 2024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코호트 추적 방식에 따른 규모 추정

(단위 : 명)

연도	학업중단자 수 A	재입학 및 편입 B	학교 밖 청소년 규모 A-B
2015	19,541	8,414	11,127
2016	17,862	7,982	9,880
2017	15,217	7,472	7,745
2018	14,086	7,103	6,983
2019	13,198	7,144	6,054
2020	12,817	6,468	6,349
2021	12,578	5,929	6,649
2022	11,474	5,679	5,795
2023	11,437	5,237	6,200
2024	12,495	4,498	7,997

자료 : 교육기본통계(학생변동상황 및 학업중단학생 현황 각 년도)

나. 부분집합 방식 추정 결과

부분집합 방식 추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해당 연령 청소년 인구수에서 학생 수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다. 사용된 통계는 주민등록인구와 교육통계 및 교육통계연보의 관련 통계수치를 활용하였다.

〈표 III-11〉 2024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부분집합 방식에 따른 규모 추정

(단위: 명)

연도	청소년 인구 (9~18세)			청소년 학생 (9~18세)	청소년 (9~18세)	
	한국인①	외국인②	계(③=①+②)	교육통계④	학교 밖 청소년 규모(⑤=③-④)	
2015	301,732	1,539	303,271	288,943	14,328	4.7%
2016	293,257	1,830	295,087	281,416	13,671	4.6%
2017	284,042	2,324	286,366	273,433	12,933	4.5%
2018	275,306	2,896	278,202	264,048	14,154	5.1%
2019	277,264	3,944	281,208	257,403	23,805	8.5%
2020	270,486	3,277	273,763	253,884	19,879	7.3%
2021	268,326	3,600	271,926	258,544	13,382	4.9%
2022	268,894	4,036	272,930	257,278	15,652	5.7%
2023	272,440	4,835	277,275	258,406	18,869	6.8%
2024	272,809	5,496	278,305	261,621	16,684	6.0%

자료: 주민등록연앙인구 (각 년도, 전년 7월 1일 기준), 교육통계 (각 년도, 연령 산정은 전년 12월 31일 기준)

주: 외국인 등록인구는 5세 단위로 제공하여 7~9세, 16~18세는 해당 연령을 1/5로 나눠 산출함.

다. 생애주기 누적 추계 방식 추정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로 정의되지만, 19세에서 24세의 후기청소년은 학령기를 벗어나 있어 기존의 두 방식으로는 추정에 한계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19세에서 24세 후기청소년에도 누적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학령기 이후 규모를 추가로 추정하였다.

생애주기 누적 추계 방식은 매년 연령별 총 학업 중단자 수에서 재입학 편입자를 제외하여 순 학업 중단자 수를 산출한 뒤, 이를 누적하여 특정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추정하는 코호트 추적 방식이다. 다음 분석에는 교육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III-12〉 2024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생애주기 누적 추계 방식에 따른 규모 추출

(단위: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초등 학교	1학년	53	94	59	80	93	106	96	105	187	215	99	164	151	173
	2학년	42	35	0	31	27	58	32	74	105	136	40	99	114	121
	3학년	100	15	4	38	9	22	18	29	87	116	11	62	140	104
	4학년	50	16	17	39	-8	20	3	32	61	126	15	87	123	93
	5학년	60	67	25	18	14	10	1	25	53	111	6	18	50	70
	6학년	8	22	-27	-27	-31	-6	-42	-11	16	93	-58	-9	21	20
중학교	1학년	177	134	117	115	68	53	104	110	126	101	50	101	126	45
	2학년	116	218	166	127	64	76	43	111	122	73	4	67	123	20
	3학년	188	205	169	145	44	47	63	73	102	78	-9	37	75	2
고등 학교	1학년	1,118	981	859	795	660	450	557	533	569	629	282	507	578	759
	2학년	643	530	494	442	373	338	394	387	481	362	231	427	472	517
	3학년	105	106	66	74	66	88	86	-163	123	84	14	54	98	52

〈표 III-13〉 2024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생애주기 누적 추계 방식에 따른 규모 추정

(단위: 명)

연도	9~18세	19~24세	9~24세
2022	5,925	10,614	16,539
2023	6,559	9,867	16,426
2024	7,310	8,841	16,151

자료: 교육기본통계(학생변동상황 각 년도)

라.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코호트 방식, 부분집합 방식, 누적 추계 방식)을 적용한 결과,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9~18세 기준 코호트 방식에서 7,997명, 부분집합 방식에서 16,684명, 누적 추계 방식에서 7,310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누적 추계 방식을 통해 9~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을 추정해 본 결과 16,151명으로 산정되었다.

〈표 III-14〉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방식에 따른 규모 추정

(단위: 명)

연도	코호트 방식 (9~18세)	부분집합 방식 (9~18세)	누적 추계 방식 (9~18세)	누적 추계 방식 (9~24세)
2022	5,795	15,652	5,925	16,539
2023	6,200	18,869	6,559	16,426
2024	7,997	16,684	7,310	16,151

3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분석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이 보호받을 수 있고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교육 및 자립지원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자치법규 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은 정보나 기회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가정에서 진로와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우므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교와 가정의 역할도 맡아 정보와 기회를 제공해 줄 공간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된 8개의 자치구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찾아볼 수 있다.

〈표 III-15〉 「인천광역시 및 8개 자치구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중 지원센터 관련 조항

구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인천광역시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위탁 운영 할 수 있다.
계양구	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남동구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그 기능이 유사한 기관이나 단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동구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그 기능이 유사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미추홀구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그 기능이 유사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평구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그 기능이 유사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서구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연수구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중구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교육·진로지원 등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할 구역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검색일: 2025. 5. 10.)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현황

인천광역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원 기관은 크게 4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학업 복귀나 사회진입을 도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이다. 센터 이용 대상은 9세에서 24세 학교 밖 청소년 중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광역시에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의 센터와 광역시 센터까지 포함하여 총 10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표 Ⅲ-16〉 인천광역시 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황

구분	주소	비고
1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송림동), 청소년센터 1층	
2	인천광역시 계양구장지로 937 (계양구청소년수련관 4층)	
3	인천광역시 남동구소래로 645, 남동구평생학습관 2층	

1) 청소년 138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안내, https://www.1388.go.kr/occ/YTOSP_SC_OID_01

구분		주소	비고
4	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80 (송림동)4층	
5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주안로 8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층	
6	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청로 129 (청천동)2층	
7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원적로 7번길 12, 2층(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8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비류대로235번길 2층	
9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송산로 52 청소년수련관 1층	영종센터
10		인천광역시 중구참외전로 72번길 25 동인천동주민센터 3층	동인천센터

출처: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https://www.inyouth.or.kr> (검색일: 2025. 6. 14.)

2)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담서비스 제공은 물론 교육,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는 청소년 상담전문기관이다. 또한, 인천광역시 관내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에는 용진군을 제외한 9개의 군·구에서 10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광역시 센터까지 포함하면 총 11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인천 중구에서는 2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표 III-17〉 인천광역시 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현황

구분		주소	비고
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가톨릭청소년센터 1층	
2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행나무길22번길 30-1 2층	
3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600번길 20 계양청소년문화의집 2층	
4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 남동구 평생학습관 2층	
5	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80 4층	
6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82 청소년진로지원센터 5층	
7	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청로 129 2층	
8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7번길 12 2층	
9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35 도시재생어울림센터 2층	
10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송산로 52 청소년수련관 1층	영종센터
11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72번길 25 행정복지센터 3층	동인천센터

출처: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https://www.inyouth.or.kr> (검색일: 2025. 6. 14.)

3) 청소년 쉼터²⁾

청소년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청소년 쉼터는 유형별로 일시·단기·중장기로 나뉘며 일시청소년쉼터는 일시보호 및 거리상담을 주로 하며, 숙식이 가능한 고정형과 차량으로 된 이동형이 있다. 24시간에서 7일 이내 일시보호가 가능한 곳이다. 단기 청소년 쉼터는 심리, 정서 및 상담지원을 하며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지원 기관과의 연계를 진행한다. 3개월 이내 단기 보호가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에 따라 최장 24개월까지 보호하기도 한다. 중장기 청소년 쉼터는 단기 청소년 쉼터에서 지원했던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하며 그 외 교육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도 지원한다. 3년 이내의 중장기 보호를 하며 특별한 사유에 따라 최장 4년까지 보호가 가능하다.

인천광역시 내 숙식이 가능한 쉼터는 8곳이 운영되고 있다. 일시 쉼터 2곳, 단기 쉼터 4곳, 장기 쉼터 1곳, 자립지원관 1곳이 있다.

〈표 Ⅲ-18〉 인천광역시 내 ‘청소년 쉼터’ 현황

구분		지역	비고	
1	일시 쉼터	한울타리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1059번길 10	
2		꿈꾸는별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지로 153	
3	단기 쉼터	바다의별(남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주길125번길 5	
4		우리들(남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60번길 4	
5		하모니(여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01 대영빌딩 5층	
6		하늘목장(여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45-2 201호	
7	장기 쉼터	예꿈(여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57번길 34-15 원빌리지	
8	자립지원관	별바라기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367번길 40	자활직업장

출처 :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https://www.inyouth.or.kr> (검색일: 2025. 6. 14.)

인천광역시 청소년자립지원관 <http://www.icyouthself.or.kr> (검색일: 2025. 6. 1.)

4)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입시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공교육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교육에 대한 갈망 속에서 생성되었으며, 대안교육기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배움과 경험 등은 공교육의 틀에 맞춰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에게 맞는 교육 및 학업을 찾아서 수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더불어, 경계성 지능을 가진 청소년, 위한 대안

2)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http://www.jikimi.or.kr/pages.php?pcd=menu31>

교육기관, 미혼모를 위한 대안교육기관 등은 공교육 시스템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어 학교, 학원 등 다양한 이름으로 설립되어 있으므로 그 수를 전부 파악하기에 어렵다.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구조

1)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5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 비전 실현을 위해 '청소년 성장기회 제공',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의 2대 목표를 설정하였고 다양한 청소년의 목소리와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과제 발굴 및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여성가족부, 2025: 3). 그 중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지원 내용 중 지속되고 있는 것을 정리해보았다.

〈표 III-19〉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5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세과제 (소관부처)	주요 내용
2.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2-1. 위기청소년 복지지원체계 강화			
		2-1-1. 위기청소년 발굴 및 치유지원 강화		
			2-1-1-1.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및 상담지원 확대 (1388청소년지원단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강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1388청소년지원단 운영 확대 추진 • 우수 기관 포상 및 사례 공유 등 협업 확대를 위한 홍보 진행
			2-1-1-2. 고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 특화서비스 제공 (시설 이용 청소년 및 학교 학생 위기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이용하는 시설에 위키스크리닝 활용 등 위기청소년 청소년인전망 연계 강화
			2-1-1-3.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치유인프라 확대 및 지원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및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치유서비스 효과성 향상 •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2-1-2. 지역 중심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세과제 (소관부처)	주요 내용
			2-1-2-1.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활성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안전망 내 위기청소년 지원 필수연계 기관 등과 유기적 협력 및 협조체계 강화로 지역 내 위기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 노력
	2-2.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2-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	
			2-2-1-1.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협력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 지속 추진 • SNS, 대중교통 등 학교 밖 청소년이 자주 접하는 매체를 활용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홍보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유입 확대 추진
			2-2-1-1.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협력 강화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연계 지속 안내 및 학업 중단 학생 정보의 적기 연계를 위한 상하반기 모니터링(5월, 11월) 추진
			2-2-1-2.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진로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학습지원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및 수리력 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수능모의평가 응시로 지원 추진 • 메타버스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 학생에 비해 대학 입시 관련 지원이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대학 진학 지원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입을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을 제고
			2-2-1-3. 학교 밖 청소년 활동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및 차별사례 모니터링 및 개선 지속 • 일반국민 대상 홍보 강화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유관부처 및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예산부처 등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추진
			2-2-1-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프라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이 자유롭게 학습하고 문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전용공간 확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추가 개소, 센터 종사자 인력 확충, 전용공간 관련 지자체 예산 수요 조사 및 '26년 예산 확보 추진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세과제 (소관부처)	주요 내용
		2-2-2.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		
		2-2-2-1. 가정 밖 청소년 학업·취업 등 진로지원 강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 관계부처 및 민관협력 통해 가정 밖 청소년 학업·진로 등 자립지원 강화
		2-2-2-2. 가정 밖 청소년 경제 및 주거지원 확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자립준비청소년 수준('24년 월50만원)으로 인상(월40→50만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25.1월~)
				• 청소년복지시설 입소(이용) 청소년 대상 타 사업 연계 등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 지속
		2-2-2-2. 가정 밖 청소년 경제 및 주거지원 확대 (통합공공임대·매입임대)		
				• 공공임대 5개년('23~'27) 공급계획에 따라 '25년 공공임대 15.2만호 공급추진
		2-2-2-3.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기반 강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을 통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여건 마련 및 역량 강화 지원 지속
		2-2-2-4. 가정 밖 청소년 쉼터 이용 지원 내실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 가정 밖 청소년 전문 지원 역량 배양을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교육·연수 지속
				• '청소년복지시설 사례관리 표준모형 및 매뉴얼' 및 '청소년복지시설 기본 생활 지침 인권 체크리스트 표준안' 개발·연구
4. 청소년의 참여·권리 보장 강화				
	4-1. 청소년 참여 활동 강화			
	4-1-1.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기회 활성화			
		4-1-1-3. 청소년정책 참여활동 지원 (어린이·청소년법제관)		
				• (학교 밖 청소년 참여 유도) 기본법제교육(총 2차)은 진로, 자격증 등의 관심사항을 반영한 별도 교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규칙 제정·개정 대회 시 도움이 필요한 센터는 직접 방문하여 입법 활동 지원
	4-2. 청소년 권익 증진			
	4-2-2. 청소년 건강 및 생활 지원			
		4-2-2-1. 청소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 2024년부터 확대 개편된 건강검진 항목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 지속 제공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및 홍보 강화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세과제 (소관부처)	주요 내용
			4-2-2-2. 건강한 생활습관 지원 및 급식 사각지대 완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복지시설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입·퇴소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확대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체계 강화 (연중)
			4-2-2-2. 건강한 생활습관 지원 및 급식 사각지대 완화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 수준에 맞는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를 위해 예산 당국과 지속 협의
5.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				
		5-1. 청소년정책 인프라 개선		
		5-1-3. 청소년 시설·기관 단체 운영 개선·지원		
		5-1-3-2. 청소년 지원기관 및 단체 운영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222개소)의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평가 실시 • 예산부처 등과 지속적 협의를 통한 센터 종사자 지속 확대 추진
		5-2. 지역 맞춤형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구축		
		5-2-2. 지역 단위 청소년정책 협력 강화		
		5-2-2-2. 청소년정책-지자체-교육청 간 협력 강화 (학교안팎 청소년정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협의회를 통한 우수 운영 사례발굴-전파(2회) •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컨설팅 및 종사자 학교안팎청소년활동 운영 역량 교육 지원

출처 : 여성가족부 (2025).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5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재구성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5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은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별 1388청소년지원단을 운영·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자주 접하는 매체나 방문하는 장소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를 강화할 것이다.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확충하려고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학습, 진로, 건강, 생활과 같은 다방면의 지원이 학교 밖 지원센터를 통해 실시되고 있으므로 지원센터의 서비스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할 것이다.

2)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였으며, 2025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속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III-20〉 ‘2025년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세과제 (소관부처)	주요 내용
1.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1-3. 다양한 체험활동 확대			
		1-3-1. 테마별 활동기회 제공		
			1-3-1-2. 문화예술 분야 활동교육 지원 (인천 청소년가요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전국 9~18세 청소년(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 포함) 제34회 청소년가요제 개최
2.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2-1. 위기청소년 복지지원체계 강화			
		2-1-1. 위기청소년 발굴 및 치유지원 강화		
			2-1-1-2. 고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 특화서비스 제공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청소년 발굴 및 위기사례 지원 사례회의 및 파트모임 사후관리 서비스 관내 구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사업 컨설팅 청소년동반자 자질향상교육
	2-2.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2-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		
			2-2-1-2.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진로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학업 복귀, 사회진입, 자립역량 등 프로그램 지원 자립취업지원서비스(맞춤형 직업훈련, 인턴십·직장체험, 취업동기 프로그램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
		2-2-2.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		
			2-2-2-1. 가정 밖 청소년 학업·취업 등 진로지원 강화 (청소년 자활직업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자활직업장 운영 직업기술 심화훈련, 시장 현장체험, 일자리 제공 등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세과제 (소관부처)	주요 내용
			2-2-2-3.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기반 강화 (청소년 자립지원관 운영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자립지원관 운영 지원 • 안정적인 주거환경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2-2-2-4. 가정 밖 청소년 쉼터 이용 지원 내실화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쉼터 운영 지원 • 일시 쉼터: 7일 이내 보호(아간보호기능강화) • 단기 쉼터: 3개월 이내 단기 보호(2회 연장가능) • 중장기 쉼터: 3년 이내 보호
3.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3-1. 청소년이 안전한 온·오프라인 환경 조성		
		3-1-2. 사이버 및 학교폭력 예방 강화		
		3-1-2-2. 학교 폭력 방지 및 대응 체계 활성화 (또래 상담 연합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 간 상담을 활성화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 • 또래상담연합회 운영 지원 • 또래상담사업 유공자 표창
		3-3. 청소년 근로보호 강화		
		3-3-2. 근로청소년 부당처우 예방 및 보호		
		3-3-2-1. 근로청소년 부당처우 구제 지원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시설 및 단체 대상 표준근로계약서 배포를 통한 비치 활성화 • 청소년 근로권익 온라인상담시스템 기능 개편으로 청소년 근로 상담 해결 • 홍보를 통한 청소년 근로권익 및 온라인상담시스템 인지도 제고 및 인식 개선
4. 청소년의 참여·권리 보장 강화				
		4-2. 청소년 권익 증진		
		4-2-2. 청소년 건강 및 생활 지원		
		4-2-2-2. 건강한 생활습관 지원 및 급식 사각지대 완화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무상급식 정책에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제고 •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구 8개소) 26,000건

출처 : 인천광역시 (2025a). 2025년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재구성

2025년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 자활작업장, 자립지원관, 청소년 쉼터의 운영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직업훈련과 같은 자립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근로청소년 부당처우 구제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근로 상담과 근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3) 2025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매년 수립 및 시행되고 있다. 2025년의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은 총 4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표 III-21〉 2025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세과제 (소관부처)	주요 내용
1.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시·구)		
		1-1-1.	교육 진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교육단계(초·중) 학습지원으로 학력 취득, 상급학교 진학 지원 • 검정고시반 운영, 1:1 맞춤형 학습지원, 응시료 등 검정고시 지원 • 대학입시설명회를 통한 검정고시전형 맞춤형 상담, 입시정보 제공 • 학업중단속려제 운영을 통해 정규 학교로의 복귀 안내 	
		1-1-2.	자립지원 연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기초소양교육(청소년인권, 근로교육, 도박·약물예방, 자살예방) • 일상생활(요리, 청소, 세탁 등) 및 금융 교육 등 	
		1-1-3.	문화, 여가, 체육활동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수요를 반영한 문화, 여가,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1-1-4.	직업역량강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특성·욕구를 반영한 직업역량강화사업 프로그램 운영 	
		1-1-5.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건강검진 연계 및 교육 	
	1-2.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립·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3.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세과제 (소관부처)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질의 급식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관심 제고				
		2-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유관기관 및 검정고시장 등에 홍보물(리플렛 및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등
		2-2. 우수 학교 밖 청소년 시장 표창 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에 참여하여 학업과 자립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청소년 인천광역시 표창 수여
		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처우개선비로 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스템 운영				
		3-1.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 지원체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교육청, 경찰청, 법원 등) 협력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및 지원기관 간 협력(연결고리 강화) •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청소년복지위원회 운영
		3-2. 자치구 지원시스템 구축 유도 및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밀착형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특성상, 자치구 자체의 지원시스템 구축 유도
4.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체계 강화				
		4-1. (시·교육청) 온라인 정보연계 내실화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 정보연계 현황 및 청소년안전망 운영실태 점검 등 내실있는 정보관리로 상담, 교육, 보호, 의료 등 통합 연계지원
		4-2.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쉼터 연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웃리치 지속 확대(온라인 아웃리치 '청소년 전화 1388', 오프라인 아웃리치 '쉼터' 거리상담) • 유관기관(보호 및 자립지원 등)의 신속한 연계
		4-3. 중·고위험군 청소년 방문상담 및 청소년 안전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청소년 발굴 및 상담, 긴급구조, 의료지원 등 고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 청소년동반자가 청소년(자살위험, 자해, 학교폭력, 기출 및 비행 등에 노출된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을 방문, 1:1 찾아가는 상담 실시 및 관리

출처 : 인천광역시 (2025b). 2025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 보고서. 재구성

첫째, 인천광역시는 조기 발굴 체계를 구축하여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지역 간 불균형과 상담 건수 중심의 관리 방식이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발굴·연계 과정에서 도서지역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강화군·옹진군에 센터를 설치하거나 이동형 상담체계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담 건수를 단순 지표로 삼는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상담 지속률, 청소년 재발 방지율 등 질적 지표를 도입하여 위기 개입이 청소년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학업 복귀 지원은 참여 인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귀 지속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 검정고시 대비 중심의 프로그램을 넘어 직업훈련이나 자격 취득 과정과 연계된 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학업 복귀 후 장기적인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온라인 학습과 멘토링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과 교사·대학생·지역 전문가 등 다양한 멘토 자원을 활용한 다층적 지원 체계를 통해 청소년이 학업과 사회적 진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직업훈련과 자립지원은 초기 참여 성과가 확인되었으나 수혜자 규모가 협소하고 취업 연계 성과 측정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민간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여 직무훈련과 인턴십 기회를 확대하고, 단순 참여 인원이 아니라 실제 취업률과 고용 유지율을 관리 지표로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고위기군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등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형 자립지원 모듈을 개발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건강검진과 급식 지원은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연령 상한으로 인해 19세 이상 청소년은 여전히 제도적 공백에 놓여 있다. 따라서 건강검진 대상을 24세까지 확대하고, 정신건강 스크리닝과 상담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급식 지원은 단가 인상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더불어 급식 제공 방식을 다양화하고, 영양 관리와 식습관 교육을 병행하여 청소년의 생활 복지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정서·문화·체육 활동은 청소년의 사회성 회복에 기여하지만, 프로그램이 단발성 이벤트에 치중되어 장기적인 정서 안정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기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장기 멘토링·정서치료형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활동을 기획·운영하는 자기주도적 참여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성과를 참여율이 아니라 청소년의 관계망 확대, 정서 회복 수준과 같은 질적 변화로 측정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성과의 내실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활동은 홍보 횟수의 양적 확대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 인식 변화 효과는 검증되지 않고 있다. 향후에는 시민의 태도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도입하여 정책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우수 청소년 표창 제도는 긍정적 모델 제시에 효과적이므로 수상 인원을 확대하고, 표창 수상자를 동년배 멘토나 캠페인 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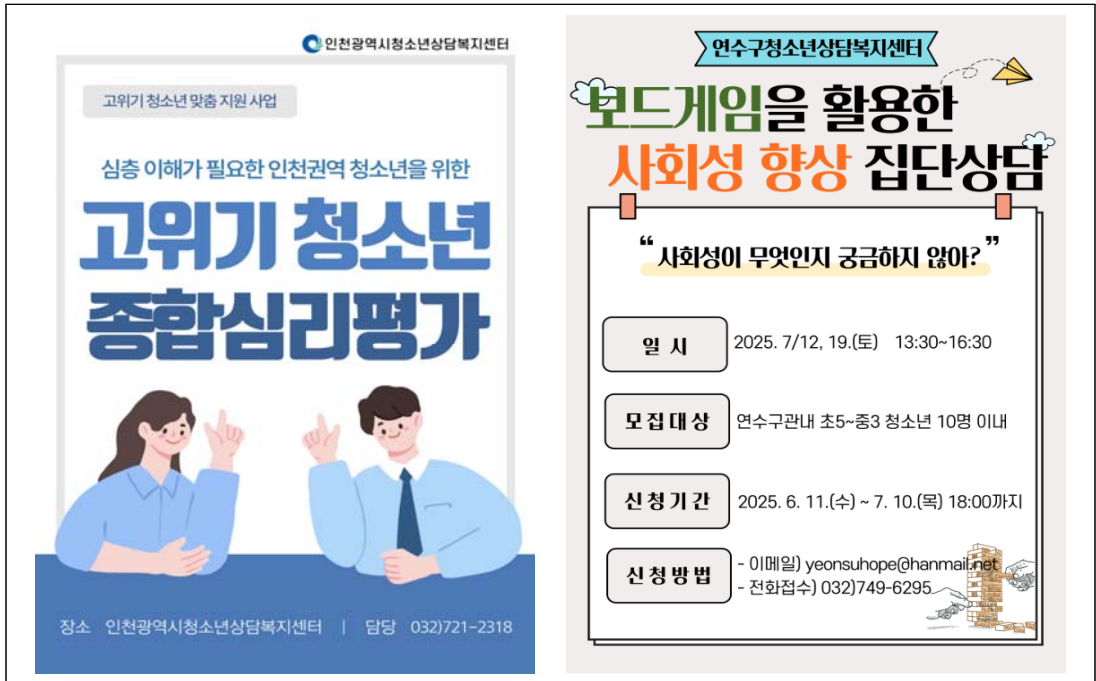
보대사로 연계하여 파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유지되었지만 실질적 예산은 축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단순 인건비 보조를 넘어 경력개발 지원, 근속수당, 전문성 강화 교육 등 다차원적 인력 운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라.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상담 지원, 교육지원, 진로지원, 자립지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상담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자아정체감 확립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청소년들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 단기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과반이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픔 절망감을 느꼈다고 보고한 바 있다(여성가족부, 2023: 45). 이들이 경험하는 불안, 우울, 외로움 등의 감정은 장기적으로 자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상담지원은 심리적 보호망의 역할을 수행하며, 청소년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학교 밖 지원센터는 종합심리평가를 실시하여 자살·자해 등 위기도가 높은 청소년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위기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이끌기도 한다. 종합심리평가를 통해 맞춤형 개입 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단계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모래놀이 치료상담을 통하여 비언어적인 방식을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출하여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며 자아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보드게임을 활용한 상담, 미술치료상담 등 다채로운 방식의 상담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초기상담, 진학상담, 집단상담 등 다양한 방식과 주제의 심리상담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고 사회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체험활동, 부모상담 등 통합적인 지원이 병행되고 있다.

[그림 III-5] 상담지원 프로그램 관련 홍보 포스터



출처: 인천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우) (검색일: 2025. 7. 20.)

교육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으로 복귀하여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 중단 이후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경험을 하거나 사회적 편견을 경험하면서 진로와 진학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부정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을 때 학교 밖 청소년이 누리는 삶에서는 욕구가 충족되는 생활을 하며 소속감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다(김가영, 이경양, 전하람, 2023).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업동기·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습전략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더불어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멘토를 통해 자신의 학습이나 진로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얻거나, 경험의 공유를 통해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대비반을 운영하거나 검정고시 응시료를 지원하기도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복잡한 입시 제도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학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대학입시설명회 및 1:1 입시컨설팅을 진행하여 입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림 III-6] 교육지원 프로그램 관련 홍보 포스터



출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https://michu1388.michuhol.go.kr> (검색일: 2025. 7. 20.)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https://www.junggu1388.kr> (검색일: 2025. 7. 20.)

진로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에 진입할 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진로상담을 통해 자신의 강점이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진로탐색을 지원한다. 기초 기술훈련 및 전문직업훈련은 실무에 필요한 기초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직업체험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군을 찾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실제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다. 각자의 진로가 결정되었다면, 개인별 특성에 맞춘 전문 직업 훈련을 받으며 해당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등 취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후 인턴십 및 직장체험을 통해 실제 업무를 경험하면서 직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능력, 업무 태도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직업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과정을 진행하여 취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 III-7] 진로지원 프로그램 관련 홍보 포스터



출처: 인천광역시 청소년지원지원관 <http://www.ic youthself.or.kr> (검색일: 2025. 7. 22.)

자립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다. 일·사·단·중장기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불안정한 생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의복이나 식사, 목욕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필품을 지원한다. 건강검진이나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체 건강을 살피고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며, 체력단련 및 체육교실 등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보호관찰 지원, 법원출석동행 등 보호청소년 법적응호를 돕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뮤지컬, 음악회, 영화 등 문화체험과 또래관계 형성 캠프, 1박 2일 자기성장캠프 등 수련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 인권, 금융 등 학교 밖 청소년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소양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림 III-8] 자립지원 프로그램 관련 홍보 포스터



출처: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https://www.gyeyang1388.or.kr> (검색일: 2025. 8.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http://www.nd1388.or.kr> (검색일: 2025. 6. 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단순한 일시적 지원을 넘어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방향하거나 소외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센터는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기효능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또한, 교육과 진로, 자립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다시금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4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분석

가. 광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분석

인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 전달체계로 운영되어 왔다. 센터는 상담지원, 교육지원, 진로지원, 자립지원이라는 네 가지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전인적 발달, 민주시민 교육, 연령별 맞춤형 지원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 상담지원의 현황과 전인적 성장지원 확장

상담지원 영역에는 멘토링 지원, 실무자 연합 워크숍, 직원 자질향상 사업, 중앙 프로그램 연계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 사업은 청소년 개인의 학습정서 지원과 실무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초기 상담과 사례관리를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이 주로 위기 개입과 학업 복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정서적 안정과 자기 탐색, 자아 정체성 확립을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향후 상담지원은 미술·음악·연극 등 예술치유 프로그램과 심리치료, 회복탄력성 훈련을 정규화하여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을 보완하고, 장기적인 자기효능감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담을 단순 개입이 아닌 전인적 성장지원의 과정으로 재구성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2) 교육지원의 현황과 민주시민 교육 결합

교육지원은 주로 검정고시 대비와 대학 입시설명회, 연합 공모전, 청소년단 운영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검정고시 지원과 대학 입시설명회는 청소년의 학력 취득과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구조는 학업 성취라는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민주적 가치와 시민성 학습의 측면은 미흡하다. 따라서 교육지원은 단순 시험 대비를 넘어, 토론, 모의 의회, 정책 제안 활동과 같은 참여형 학습을 결합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업과정 자체가 민주시민 교육의 장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가 제시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이라는 목적을 실제 현장에서 구체화할 수 있다.

3) 진로지원의 현황과 참여 기반 확장

진로지원은 드림캐쳐, 드림날다와 같은 문화 체육 활동, 진로상담과 적성검사, 자립동기 강화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사업은 청소년에게 소속감을 회복하게 하고, 기초적인 진로 탐색과 직업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현행 프로그램은 체험 중심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이 정책참여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같은 공공 실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따라서 진로지원은 정책제안 캠프, 청소년 의회 활동,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등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은 단순 직업기술 습득을 넘어 공동체적 책임감을 함양하고, 사회적 문제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다

4) 자립지원의 현황과 연령별 맞춤형 재구성

자립지원은 직장체험 지원, 자립캠프 운영, 인턴십 연계, 취업연계 관리 등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직장체험은 센터의 가장 큰 예산 항목 중 하나로, 청소년의 실제 직무 경험과 자립동기 강화를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발달단계별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아동단계청소년(9~11세)는 생활습관 형성과 정서 안정이 중심 과업이며, 초기청소년(12~14세)는 또래관계 강화와 기초 진로 탐색, 중기청소년(15~18세)는 학업 복귀와 진학 상담, 후기청소년(19~24세)는 주거·취업·금융 역량 강화가 중심 과업이다. 따라서 자립지원은 연령대별 발달 과제를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체계로 재편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획일적 지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나. 기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분석

1) 상담지원 기능과 프로그램의 연계성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상담지원 기능은 통합사례관리, 개인상담 프로그램(이루다), 학업중단숙려제, 심리검사, 보호자 상담 등으로 구체화된다. 상담지원은 청소년 지원의 첫 단계에서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관문 역할을 하며 이후 교육지원·진로지원·자립지원으로 연결되는 출발점이 된다.

통합사례관리는 초기 면접, 전화·문자상담, 심리검사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태, 학업 단절 이유,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이는 청소년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개입을 가능하게 하며, 상담지원이 단순한 ‘문제 파악’에 머무르지 않고 종합적 서비스 연계의 핵심 매개체로 작동하게 한다. 예컨대, 경제적 빈곤 문제가 두드러진 청소년은 자립지원의 직접지원사업으로, 학습 의욕이 확인된 청소년은 교육지원으로, 직업 관심도가 높은 청소년은 진로지원으로 연계되는 식이다.

학업중단숙려제는 상담지원 기능의 대표적 사례다. 학업을 충동적으로 중단할 위험에 처한 청소년에게 최소 2주에서 최대 7주의 숙려기간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가 심층상담과 심리검사를 병행한다. 이를 통해 학업 복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돕고, 조기 중단을 예방한다. 이 제도는 상담지원이 단순히 위기를 '해결'하는 기능을 넘어, 교육지원으로의 연결을 매개하는 구조적 의미를 가진다.

개인상담 이루다 프로그램과 심리검사는 정서적 안정과 자기 이해를 지원한다. MBTI, 홀랜드 검사, 진로탐색검사 등은 청소년의 성격과 흥미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며, 교육지원의 맞춤형 지도와 진로지원의 직업 탐색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보호자 상담은 청소년 개인의 문제를 가족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부모의 양육태도 개선이나 가족 내 의사소통 증진으로 확장된다.

따라서 상담지원 기능은 청소년이 처음으로 센터와 접촉하는 단계에서 정서적 회복을 촉진하고, 자기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후 교육·진로·자립지원으로 이어지는 연계적 허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교육지원 기능과 프로그램의 연계성

교육지원은 스마트교실, 검정고시 지원사업, 학업동기강화 프로그램(나는 내 인생의 매니저), 재능멘토단 운영으로 구성된다. 이 기능은 청소년이 학업을 재개하거나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상담지원에서 확인된 욕구를 학습 경험으로 연결하는 중간 과정의 역할을 수행한다.

스마트교실은 1:1 및 그룹 멘토링, 인터넷 강의, 자습실 운영, 식사간식 지원을 포함하는 통합적 학습지원 체계다. 이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안정적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검정고시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학습 경험은 단순 지식 습득을 넘어 자기효능감을 강화하고, 나아가 진학 또는 직업 선택의 기반이 된다.

검정고시 지원사업은 단체접수, 모의고사, 족집게 강의 연계, 시험일 도시락 제공,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다. 이는 청소년이 학업단절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극복하고,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교육지원이 사회적 권리 회복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합격 이후에는 대학 진학 정보와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진로지원으로 연결된다.

학업동기강화 프로그램은 청소년 개별 성향에 맞춘 학업 지속 전략을 탐색하게 하고, 상담지원 단계에서 형성된 정서적 안정감을 학업동기로 전환한다. 재능멘토단 운영은 대학생·전문가 지

역주민이 멘토로 참여하여 학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기반 학습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는 청소년이 학업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동시에 경험하도록 한다.

따라서 교육지원 기능은 상담지원에서 발굴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력 취득·학습 동기 강화·사회적 인정 회복을 단계적으로 실현하며, 진로지원과 자립지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적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3) 진로지원 기능과 프로그램의 연계성

진로지원 기능은 자립동기강화 프로그램(두드림), 직업체험활동, 자격증 취득과정, 자립·취업지원서비스 맞춤형 직업훈련 등으로 운영된다.

자립동기강화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경제활동의 기본 흐름과 구직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여, 교육지원에서 얻은 자기효능감을 사회 진입 동기로 확장한다. 직업체험활동은 의료, 법조, 서비스, 문화예술 등 다양한 직업군과 연계된 특강·체험을 통해 청소년이 직업의 의미와 사회적 기여를 경험하도록 한다. 이는 자립지원의 사회적응 활동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자격증 취득과정(바리스타, 운전면허 등)은 청소년이 단기적 성취를 경험하고,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립·취업지원서비스 맞춤형 직업훈련은 후기청소년(19~24세)을 대상으로 학원 수강료, 자격증 응시료, 직장체험 비용을 지원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제 취업으로 연결한다.

따라서 진로지원 기능은 교육지원에서 형성된 자기효능감을 사회 진입 역량으로 확장시키는 매개 기능을 수행하며, 자립지원과 연계되어 청소년이 단순히 직업 기술을 습득하는 수준을 넘어 자립적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4) 자립지원 기능과 프로그램의 연계성

자립지원은 자아성장캠프, 청소년 자치활동, 기초소양교육, 문화·여가 프로그램, 직접지원사업, 건강검진, 특화사업(스포츠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자아성장캠프는 숙박형 집단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응력을 강화한다. 이는 교육·진로지원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 청소년 자치활동은 청소년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자기주도성과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한다. 기초소양교육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은 인권·성평등·중독예방 교육, 봉사활동, 문화예술 체험 등을 포함하며, 이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직접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교육비·취업지원비·의료비 등을 직접 지원하여 사회적 안전망의 공백을 메우며, 건강검진과 스포츠 특화사업은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한다.

자립지원 기능은 상담·교육·진로 과정을 통해 축적된 역량을 일상과 사회생활 속에서 실현하도록 연결하며, 청소년이 독립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최종 단계의 의미를 갖는다.

5) 건강 및 홍보지원 기능과 프로그램의 연계성

상담·교육·진로·자립지원이라는 기본 기능을 뒷받침하는 건강 및 홍보지원 기능을 연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건강지원 기능은 청소년 건강검진, 정신건강 상담, 급식 및 영양관리, 생활습관 개선, 지역 보건자원 연계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생활복지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상담·교육·진로·자립지원 기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으로, 후기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자립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홍보지원 기능은 아웃리치, SNS, 언론 홍보, 캠페인 운영,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상담지원의 초기 발굴 단계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며, 사회 인식 개선과 참여 확산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한계와 확장 방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상담지원은 위기 개입 중심으로 운영되어 장기적 회복탄력성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지원은 학력 취득과 진학 성과에 치중해 시민성·사회참여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진로지원은 단기적 직업기술 습득에 집중되어 장기적 경력설계와 공동체 기여의식이 부족하다. 자립지원은 연령별 요구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① 상담지원은 정서 회복과 자아정체성 확립을 중심으로 한 전인적 발달 프로그램, ② 교육지원은 민주시민 프로그램과 결합된 학업·시민 역량 통합, ③ 진로지원은 사회참여형 진로 교육, ④ 자립지원은 발달단계별 맞춤형 자립역량 강화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확장은 청소년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자기 삶을 설계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정책적 기반이 될 것이다.

5 시사점

인천광역시의 학업 중단 청소년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성화고의 학업 중단율은 최근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청소년정책의 중대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더불어 성별·지역별 격차가 확인되면서 단일한 지원 정책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정책 체계를 점검하고, 발달단계별·지역별·성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접근을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첫째,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 연수구, 중구 등 일부 지역에서 학업 중단율이 높게 나타나고, 강화군과 옹진군은 지원 인프라 부재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이동형 상담체계나 도서지역 전담센터를 설치하여 공간적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둘째, 성인지적 관점의 개입이 필요하다. 여성 중기청소년의 학업 중단율이 남성 중기청소년보다 높다는 사실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제약과 성별화된 진로 경로의 영향을 반영한다. 따라서 여성 중기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상담·학업·진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인지적 예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교육지원은 단기 성과 중심에서 장기 지속성 확보로 전환되어야 한다. 검정고시 중심의 단기적 지원을 넘어, 직업훈련과 자격 취득 과정과 연계된 학습모형을 마련하고, 온라인 학습과 멘토링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체계를 도입하여 청소년이 학업과 사회 진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자립지원은 연령별 차등화가 필요하다. 현재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프로그램은 발달단계별 과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아동단계청소년은 생활습관 형성, 초기청소년은 또래관계 강화, 중기청소년은 학업·진로 탐색, 후기청소년은 취업·주거·금융역량 강화가 필요하므로 연령별 맞춤형 자립지원 모듈을 제도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강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복지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 건강검진과 급식 지원의 연령 상한을 24세까지 확대하여 후기청소년이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정신건강 스크리닝과 상담체계를 도입해 조기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대안학교 학생을 포함한 급식지원과 영양관리, 생활습관 교육을 병행해 건강한 생활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홍보지원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사회 인식 개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아웃리치, SNS, 언론 홍보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효과성 평가체계를 마련

해 홍보성과를 측정해야 한다. 우수 청소년을 멘토나 홍보대사로 연계하여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정책은 양적 관리 중심에서 질적 성과 중심으로, 획일적 지원에서 맞춤형 지원으로, 단기 개입에서 장기 지속성 확보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령별·성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된 정책 설계, 후기청소년까지 포괄하도록 제도의 확장, 자기주도적 참여 기반 강화, 사회 인식 개선의 효과성 검증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 밖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시민 주체로 성장시키는 정책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IV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수요 분석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시사점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수요 분석

1

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본 조사는 인천광역시 및 군구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연령별(9세~24세 청소년)에 따라 달라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 참여 경험, 심리사회적 특성을 면밀히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령별 개별 면접 또는 집단 면접조사(FGI)를 병행함으로써 정책 실효성과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나. 조사 절차

본 연구는 연령대별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과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과 추천 기반의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혼합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참여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 중이거나 최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으로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삶의 경험과 지원 경험을 지닌 이들로 총 12명을 선정하였다.

〈표 IV-1〉 면접조사 연구참여자 연령대별 분류

구분	연령대	참여 인원
아동단계청소년	9~11세	2명
초기청소년	12~14세	2명
중기청소년	15~18세	6명
후기청소년	19~24세	2명

위의 표는 연령대별 학교 밖 청소년 참여자의 기본 분포를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참여자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먼저, 인천광역시 내 각 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팀장에게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자 추천을 요청하였다. 이에 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중 연구의 목적에 공감하며 협력 의사를 밝힌 기관을 중시으로, 해당 센터의 실무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자를 우선 선정하고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다른 군구 센터에서도 참여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추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여자 구성은 연구 초기 기획단계에서 설정한 네 개 연령대 구분, 즉 아동단계청소년(9~11세), 초기청소년(12~14세), 중기청소년(15~18세), 후기청소년(19~24세)을 기준으로 하여 발달단계별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실제 표집 과정에서 센터 이용자 현황과 접근 가능성, 참여자의 면접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연령대별 인원 분포에 차이는 있었으나 추가 면접 과정에서 모든 연령대의 참여자가 확보되어 기획 단계에서 설정한 구성이 충족되었다. 이를 통해 발달단계별 공통 요구와 차이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질적 자료를 확보하였다.

추천된 참여자들은 연구 참여의 목적과 내용, 익명성과 자발성 보장 원칙을 충분히 설명받은 후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해당 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 기존 센터 내 개별 상담 또는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실무자와 일정 수준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면접의 질적 심층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참여자의 성별, 학업중단 사유, 가정환경, 진로고민, 사회적 관계, 프로그램 참여 수준 등은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삶의 맥락적 차이를 고려하여 사례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면접을 설계하였다.

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기반으로 개별 또는 집단면접으로 진행하였다. 질문 내용은 크게 관계 형성과 개요 설명을 위한 도입부, 현재 프로그램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연령대별 욕구 및 차이 인식, 맞춤형 프로그램 제안, 정책개선 제안 등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면접 질문 내용은 아래의 〈표 IV-2〉와 같다.

〈표 IV-2〉 면접조사 질문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도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 시기 • 면접 목적 설명 및 기초 정보 조사 • 편안한 분위기 조성 및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안내
프로그램 만족도 및 이용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프로그램이 나이와 잘 맞는지 여부 • 너무 쉬웠거나 어려웠던 프로그램 사례
연령대별 욕구 및 차이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 이용자와 비교한 관심사·욕구의 차이 • 나이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여부에 대한 인식
맞춤형 프로그램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주제(예: 진로, 관계, 심리 등) • 연령대별로 운영할 경우 적합한 주제
실효성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구분 운영 시 기대되는 효과 • 세분화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나 문제점
정책 개선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한 점 • 청소년 의견 반영을 위한 제안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나 요청 사항 등

모든 참여자에게 대해서는 면접 전 연구 참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 뒤, 청소년 본인 뿐만 아니라 보호자(부모)의 서면 동의 또는 구두 동의를 함께 확보하였으며, 연구 참여의 익명성과 정보 보호를 철저히 보장하였다. 특히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임에 따라 면접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조사 전 과정에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은 1인 개별 면접 및 2~4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집단 면접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면접에 앞서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뒤, 연구참여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은 후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권리와 비밀보장 원칙을 고지하였으며, 면접 내용은 연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하였다. 모든 면접 내용은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녹음하였다.

면접 장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행사 사정으로 첫 번째 면접은 인근 조용한 카페에서 진행되었으며, 이후의 면접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내 조용한 상담실에서 실시하였다. 1인 면접은 회당 약 1시간 정도, 집단 면접은 약 1시간 30분 내외로 진행되었으며, 필요시 카톡과 문자, 메일을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였다.

자료 분석은 녹음된 면접 내용을 전사하여 텍스트로 변환한 뒤, 면접 중 연구자가 메모한 자료와 대조하며 주요 주제를 도출해 나갔다. 도출된 분석 결과는 동료 연구자와의 검토 및 상호

피드백을 통해 검증하며,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 연구참여자 특성

연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연령, 학업중단시기와 사유, 중단 이후의 생활 양상,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및 희망 진로 등에서 서로 다른 특성과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참여자 중에서 초등학교 시기부터 학교를 다니지 않은 참여자도 있었고,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재학 중 자발적 중단이나 가정환경 등의 요인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센터를 통한 상담, 학습지원, 진로상담,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는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으로 사는 삶의 양태가 드러났다. 이러한 이질적 배경은 연령별 프로그램 수요와 지원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한다. 연구참여자의 기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IV-3〉 면접조사 연구참여자 현황

참여자	성별	연령	학업중단 시기	중단 이후 경과 기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기간	이용 중인 서비스
참여자 1	여	16세	고등학교 1학년	6개월~1년 이내	6개월	학습지원, 직업체험
참여자 2	여	14세	중학교 1학년	1년~2년 이내	1년 3개월	상담, 학습지원, 진로상담
참여자 3	여	16세	고등학교 1학년	1년~2년 이내	10개월	학습지원, 동아리
참여자 4	여	17세	고등학교 1학년	2년~3년 이내	2년 5개월	상담, 학습지원, 건강검진
참여자 5	남	17세	고등학교 1학년	3년 이상	3년	상담, 학습지원, 직업체험, 진로상담, 건강검진
참여자 6	여	14세	초등학교 1학년	3년 이상	3년 6개월	학습지원, 직업체험, 건강검진
참여자 7	남	12세	유치원 시기(7세)	7년 5개월	5년	학습지원, 직업체험, 건강검진, 동아리
참여자 8	여	10세	유치원 시기(6세)	6년	3년 6개월	학습지원, 직업체험, 건강검진, 동아리
참여자 9	여	19세	고등학교 1학년	3년 이상	3년 1개월	진로상담, 학습지원, 건강검진
참여자 10	여	19세	고등학교 1학년	2년~3년 이내	2년 7개월	상담, 직업체험
참여자 11	여	17세	고등학교 입학시기	2년~3년 이내	2년 6개월	학습지원, 직업체험
참여자 12	여	17세	고등학교 1학년	1년~2년 이내	1년 1개월	학습지원, 직업체험, 진로상담, 건강검진

*참여자 연령은 면접일 기준 만 나이로 표기하였음

'학업중단시기'는 당시 재학 중이던 학교급 및 학년 기준임

'중단 이후 경과 기간'은 학업 중단 시점부터 면접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총 12명으로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연령, 학업중단 시기, 중단 이후 경과 기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 기간,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등에서 다양한 특성을 보였다. 참여자 연령은 만 10세부터 만 19세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며 학업중단시기는 유치원 누리과정 단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단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중단 이후 경과 기간은 '6개월 미만'부터 '3년 이상' 또는 '7년 이상'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의 이용 기간도 3개월에서 5년까지 다양했다. 일부 참여자는 센터의 지속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 청소년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는 학습지원, 직업체험, 진로상담, 건강검진, 동아리 활동, 심리정서상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중 '학습지원'과 '직업체험'은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 서비스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속 욕구와 진로탐색의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진로상담과 건강검진은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한 청소년에게 주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동아리 활동은 자기표현과 사회적 소속감을 중요시하는 일부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담 서비스는 일부 참여자에 한해 이용되고 있었는데, 이는 개인의 성향과 서비스 접근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서비스 이용 현황은 참여자들의 구체적 필요와 삶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향후 프로그램 기획 시 개인별 수요 기반의 맞춤형 설계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12명의 거주지는 모두 인천광역시 내 위치하고 있었다. 이들은 행정적으로 서로 다른 자치구에 속하였고, 참여자들은 해당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모두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자치구 내 동별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거리, 생활권의 중심성, 교통 접근성 등이 상이했다. 이는 지역 간내 공간적 불균형이 학교 밖 청소년의 서비스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설계 시 물리적 거리와 실제 생활권의 동선을 고려한 서비스 분산 및 접근성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

2

조사 결과

본 절에서는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내용을 바탕으로,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 수요를 탐색하기 위해 주요 하위 주제별로 참여자들의 경험과 인식을 정리하였다. 하위 주제는 초기 프로그램 경험, 참여 시 어려움, 맞춤형 제안, 프로그램 구조에 대한 인식, 불편 사항, 연령대별 구분의 기대와 우려, 그리고 정책 개선 제언으로 구성 한 후 5개 영역으로 분석하였다.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초기 이용 경험과 프로그램 참여의 의미

참여자들은 센터를 처음 방문했을 때 낯선 환경에서 느끼는 긴장감과 동시에 새로운 기대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공예·요리·미술바리스타 체험과 같이 손으로 직접 만들고 표현하는 활동은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감과 자신감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참여자 4는 공예수업에서 몰입과 성취를 경험하며 자존감을 회복했으며, 이는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참여자 5와 참여자 6 역시 요리와 바리스타 수업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확인했다고 강조하였다.

“처음 공예할 때는 그냥 따라 했는데, 나중엔 제가 만든 게 너무 예뻐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때 진짜 처음으로 나도 잘하는 게 있구나 생각했어요.” (참여자 4)

“요리 수업할 때는 뭔가 직접 만든다는 게 좋았어요. 라면 말고 진짜 요리를 해봤다는 게 신기했어요.” (참여자 5)

“요리 수업 하고 나서 집에서 엄마랑 같이 해봤어요. 그 전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중략) 바리스타 체험을 하면서 제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진짜 직업 같았어요” (참여자 6)

일부 청소년들은 체육활동과 동아리 경험을 인상 깊다고 하였다. 참여자 1은 배드민턴 동아리를 통해 '(센터가) 건강에도 신경을 쓰는구나'라는 인식을, 참여자 2는 클라이밍과 인천광역시 차원의 체육대회를 통해 성취와 소속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참여자 3은 사진 동아리에서 전문장비를 활용하게 되며 취미를 확장했고, 참여자 12는 환경 봉사동아리 활동에서 의미를 찾았다. 참여자 9는 에버랜드·수족관 견학 체육대회 등 단체 활동을 통해 또래 친구를 사귀고 사회성을 확장한 경험을, 참여자 11은 연말 파티를 통해 1년간 함께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 경험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았다. 이와 같은 단체활동과 또래 관계 형성이 초기 경험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약간 기억에 남는 활동은 저희가 배드민턴 동아리라는 걸 했어요. 이제 청소년들 체력 관련으로 이제 챙기는 그런 활동이라서 약간 기억에 남았던 공부나 진로만 시키는 게 아니라 건강에도 신경 쓰는구나 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

“저는 클라이밍 활동을 제일 먼저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클라이밍을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그거를 그게 이제 또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서 그게 취미로 저번년도 12월까지 1년 정도 클라이밍을 했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다 기억에 남는데 아무래도 이런 체육 활동이 가장 기억에.. 저희가 또 드림날다라고 체육 대회를 개최를 해요. 이제 많으면 1년에 두 번까지 개최를 하는데 실제 학교는 그 학교 안에서만 하지만 전국 꿈드림 학생들이 다 모여서 한 200명 정도가 모여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게 남는 것 같아요” (참여자 2)

“인상 깊었던 활동은 사진을 찍는 동아리가 있는데 진짜 사진 작가님들이 쓰는 카메라로 전문적으로 사진을 배웠거든요. 원래도 사진에 관심이 많아서 되게 재미있게 활동했던 동아리 같아요.” (참여자 3)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환경 봉사 동아리,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12)

“사실 꿈드림을 이용하게 하자라고 생각한 이유는 학교를 그만두면 또래를 만날 이 사회성을 기를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꿈드림에서 기대했던 건 ‘또래 친구들을 만나자’였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나는 건 이제 서구 꿈드림에서 연말에 에버랜드를 갔던 적이 있고 수족관도 가고, 그리고 추가해서 이번에 체육대회를 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단체생활, 그리고 단순 재미와 힐링이니까 그래서 또래 친구를 만나면서 그런 식으로 활동했던 게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참여자 9)

“저희가 연말 파티를 했었어요. 연말파티를 하는데 그 연말파티에서 처음 보는 친구들이랑 또 많이 친해지고 그리고 진짜 그 1년을 같이 보낸 친구들이랑 보낼 수 있는 이게 마지막 활동이 연말파티니까 저는 그 활동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참여자 11)

이러한 창의적·실천적 활동은 단순한 여가 체험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재인식과 관계망 형성의 계기가 되었고, 이후 진로 탐색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한편, 다수의 청소년은 센터를 찾게 된 주된 이유로 검정고시 대비 학습지원을 들었다. 학업 중단 이후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는 현실적 대안이자 중요한 목표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청소년센터의 학습지원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삶의 방향 설정과 일상 회복을 돕는 기반이 되었다. 참여자 1, 참여자 3, 참여자 4는 검정고시 인터넷 강의와 소규모 수업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고, 참여자 10은 검정고시 수업에서 형성된 또래 관계가 이후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 처음에 와서 이용하면 여기 이제 검정고시 교육 지원 사업을 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이용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

“저는 맨 처음에 왔을 때는 검정고시 인강 지원을 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 인강을 무료로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되게 좋았어요.” (참여자 3)

“여기(센터)에 처음 온 것은 공부하려고 왔어요. 혼자서는 공부를 절대로 못했을 거예요. 학원도 무섭고 돈도 없고. 여기는 편하게 진짜 나를 위해 준비하는 느낌이었어요.” (참여자 4)

“저는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제가 여기 검정고시 준비하는 곳에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했던 검정고시 수업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그때 같이 들었던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이를 유지할 정도로 정말 친해져 가지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참여자 10)

“공부가 제일 어렵긴 한데 여기는 말도 걸어주고 같이 해주어서 덜 무서웠어요.” (참여자 2)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에게 생활 리듬을 회복시키고 자기 역량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개인별 속도에 맞춘 수업과 반복적인 격려, 개별 지원은 학습 불안 줄이고 동기를 유지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다만 일부 참여자들은 학습 집중이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며 보다 세분화된 맞춤형 학습 설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초기 경험에서 나타난 공통점을 살펴보면, 창의적·체험적 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자기효능감을 높였다는 점, 그리고 검정고시 학습지원이 삶의 구조를 회복하고 목표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는 점이다. 다만, 연령대별로 그 의미와 비중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아동단계청소년(9~11세)과 초기청소년(2~14세)의 경우, 처음 센터를 방문했을 때의 긴장감을 또래와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완화하였으며 새로운 친구 관계 형성과 단체활동 경험에서 큰 만족감을 얻었다. 이들에게 프로그램은 학습보다는 관계 형성과 사회성 발달의 장으로 기능하였다. 반면, 중기청소년(15~18세)은 교육지원과 진로탐색의 필요성이 드러나면서도 여전히 여가와 체험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였다. 후기청소년(19~24세)은 초기 경험에서 직업체험과 실질적인 역량 개발을 우선시하였다. 검정고시 학습지원은 단순한 시험 준비를 넘어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초기 경험의 핵심은 또래 관계와 정서적 회복에 있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학습과 진로 중심의 실질적 성취가 강조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프로그램 기획 시 연령별 맞춤 접근의 필요성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초기 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차이

학교 밖 청소년은 동일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연령, 발달 수준, 학습 경험의 차이에 따라 접근 방식과 체험 효과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특성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프로그램 참여 과정 전반에 구조적으로 작용하면서 성과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참여자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학습 중심 활동에서의 경험과 체험학습이나 공동활동과 같은 일반 단체 활동의 경험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드러났으므로, 향후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에서 연령별·수준별 고려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먼저,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경험을 살펴보면,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난이도와 진도 차이로 인한 부담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 수업 내용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진행 속도가 빨라 따라가기 힘든 경우, 단순히 흥미 저하에 그치지 않고 학습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자신감을 잃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학습의 어려움은 개인적 한계가 아니라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문제로 연결된다고 보여진다.

"중학교 때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는데 여기 와서도 어려운 걸 하면 머리가 하얘져요. 그냥 모르는 채로 넘어갈 때가 많아요." (참여자 3)

"어려운 말이 많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대답도 못 해요. 그냥 조용히 있게 돼요." (참여자 2)

"다 같이 수업하긴 하는데, 어떤 친구는 책 다 끝냈고 어떤 친구는 아직 한글도 못 읽는데, 같은 수업 들으니까 이상해요." (참여자 7)

이처럼 수준 차이가 큰 학습 환경에서 일부 청소년들은 위축되어 소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거나 학습 참여 자체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모든 청소년이 동일하게 부정적인 경험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다. 반복적인 학습 기회와 교사의 세심한 설명이 주어질 경우,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내용도 점차 이해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적응 경험을 갖는 사례도 있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알겠는 것도 생기고,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주면 좀 덜 힘들어요." (참여자 6)

이러한 경험은 학습의 성공 여부가 개인의 능력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에서 수준별 수업 구성과 난이도 조절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개별화된 지원이 제공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참여자의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한 맞춤형 운영 여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반 단체 활동 프로그램은 연령 차이가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체험학습과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연령이 낮은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언어적·개념적 이해가 부족해 위축되거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연령이 높은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동생들을 챙기거나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책임이 부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긍정적이고 따뜻한 상호작용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자기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부담으로 느껴지는 부정적 경험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형, 언니들이 많으면 말하기도 어렵고, 이해도 잘 못 해요. 같이 하긴 하는데, 나만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요." (참여자 1)

실제로 연령이 높은 참여자들은 동생들을 돌보는 경험을 통해 귀여움과 활력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할 활동에 집중할 수 없거나 교사로부터 지나치게 의지와 책임이 전가되는 상황에 놓여 불편함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일단 제가 듣기로는 검정고시 수업 또는 저희가 아까 말했던 그 공예 수업에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안학교나 아니면 홈스쿨링을 하다가 그냥 등록을 한 경우가 많다고 들어요. 팀장님한테. 그래서 실제로 어린 친구들을 만나는 경우는 저는 빈도가 많지는 않았고, 이 친구들이 연령대가 어린 친구들이 오는 경우는 체육대회나 아니면 놀이공원 이런 식을 체험학습 위주로 갔을 때 어린친구들을 많이 봤었는데 그때 약간 어린 사촌 동생 만나는 방법으로 챙겨주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어린 친구들 오면 그냥 귀엽다 정도지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참여자 9)

"저는 어린 친구가 오면 되게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단점이 뭐냐면 그 친구들이 어린 만큼 또 챙겨줘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챙겨주면 챙겨줄수록 제 할 일을 못하니까 저는 솔직히 그게 조금 불편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약간 좀 나이 있는 친구들한테 의지하고 맡기시는 경향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듯해요." (참여자 10)

"저는 아기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워낙에 사촌 동생들도 많은 편이라 이런 챙겨주는 게 버릇이 돼서 그래서 오면 챙겨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동인 친구들도 있고 그걸 더불어 이제 너무 어리니까 사실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제 한 명씩 다 신경 쓸 수는 없으니까 그 어린 친구들이 혹시 혼자서 좀 이렇게 하다가 사고 나거나 그런 걱정이 살짝 돼서 저는 오히려 어린 친구들이 참여는 좋은데 그 친구들을 위한 활동이라도 따로 만들거나 뭔가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있으면 더 이용할 때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11)

"저는 일단 저도 어린 애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챙겨주고 막 놀아주고 그게 가능한 게 저 같은 경우는 체력이 좋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걱정되는 건 안 좋은 걸 배워간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센터에 담배 피우는 애들도 있고 술 마시는 친구들도 있어요. (후기청소년?) 약간 좀 성인인 애들은 그래도 괜찮는데 미성년자인 애들도 그런 애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욕도 막 쓰고, 막... 그리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안 좋은 걸 배워갈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참여자 12)

이와 같이 연령 차이는 돌봄, 귀여움, 활력 등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 부담, 활동 집중 방해, 부정적 행동 학습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는 양가적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다. 이는 단체 프로그램 운영에서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활동 구성이나 안전 장치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학습지원 프로그램에서 난이도와 속도 차이로 인한 학습 격차가 핵심 문제로 드러났고, 일반 단체 활동에서 연령 차이로 인한 역할소통·책임 문제가 주요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활동 과정에서의 불편에 머무르지 않고,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과 학습 동기, 나이가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프로그램 설계에서 참여 청소년의 연령과 수준을 사전에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조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이가 학습 활동에서는 수준별 수업과 맞춤형 학습지원이, 단체 활동에서는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병행될 때 학교 밖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단순한 활동 차원을 넘어, 자기효능감을 회복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성장을 이루는 기회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식과 요구 분석

참여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이 주로 통합적으로 운영되면서, 연령·발달 수준 개인 관심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학습, 진로, 체험활동 전반에서 정교한 맞춤형 구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연령별 차이를 고려한 청소년 제안과 주체적 참여 보장, 그리고 또래집단의 교류 강화를 핵심 요인으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상의 개선 요구를 넘어 청소년들이 안정적이고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실천과제임을 보여준다.

1) 연령과 수준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운영의 필요성 인식

참여자들은 동일한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연령과 발달 수준에 따라 체감하는 의미와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예컨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동일한 직업 체험 수업에 참여할 경우 흥미와 이해도, 과제 수행 능력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났다.

"초등학생이랑 고등학생이랑 같이 바리스타 수업하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수준 차이가 있는데..." (참여자 6)

"다 같은 반인데 누나는 책 다 끝났고, 나는 아직 처음인데, 같은 걸 하니깐 좀 이상했어요." (참여자 7)

이러한 진술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이 단순 통합 운영에서 벗어나 연령과 수준을 고려한 차등적 구성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실제로 저연령 참여자들은 집중 시간이 짧고 쉽게 지치는 특성이 있으며, 고연령 참여자들은 심화된 학습이나 진지한 활동을 선호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참여가 9가 진술한 바와 같이 성별 차이에 따른 활동 욕구도 드러났다.

"어린 애들은 금방 지치니까 쉬운 걸 오래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해도 괜찮고요" (참여자 5)

"고학년이랑 같이 하면 따라가기 힘들어요. 나눠서 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참여자 1)

"남자 청소년들 사춘기 남학생들인데 얼마나 활동하고 싶을텐데... 근데 그런 요구를 풀 데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대회에서도 남자 청소년들 참여가 많았던 이유가 저희 서구분들이 활동을 솔직히 보면 다 여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체육대회가 저는 처음 봤던 남자 애들도 많았고 되게 남자애들이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든 생각이 남자 청소년들 서구 남자 청소년들의 이런 활동적인 욕구를 지금 채워주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비율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9)

따라서 연령별·수준별·성별 맞춤형 설계는 청소년들이 각자의 속도와 필요에 맞게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세분화가 이루어지면 나타나는 한계도 함께 제기되기도 하였다.

"나이 많은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담배 피우는 것도 보고 좀 무섭기도 해요. 근데 또 배울 것도 있긴 있어요. 말도 잘하고 생각도 깊고요. (중략) 센터에 오는 애들이 많지가 않아서 굳이 나누면 같이 할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잘 섞어서 하면 좋겠어요." (참여자 2)

"연령대별로 하면 좋긴 한데, 친구를 다양하게 못 사귄 수도 있어요." (참여자 7)

"연령대로 나누면 저한테 맞는 프로그램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나 선생님이 부족하면 어렵겠죠." (참여자 4)

즉, 세분화의 장점(부담 완화, 참여 편안함)과 통합 운영의 장점(다양한 연령과 교류, 운영 효율성)은 서로 긴장 관계에 있으므로 핵심 학습 활동은 연령별·수준별로 차등화하되, 관계망 형

성은 융합형으로 운영하는 혼합 설계가 필요하다.

2) 청소년 주체성 강화와 또래 집단 중심 활동의 중요성 인식

참여자들은 단순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기획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될 때 적극적으로 활동에 몰입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물어보고 해주면 좋겠어요. 관심 있는 걸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참여자 2)

"제가 제안했던 걸 진짜로 해줬을 때는 뭔가 제가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참여자 4)

"소셜가 되고 싶어서 책 읽는 모임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중략) 그리고 '놀면서 배울 수 있는 친구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안 가도 공부 말고 놀면서 배우는 그런 거요' (참여자 8)

"1박 2일 캠프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2일 캠프 수학여행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멀리 안 가고 해외여행 바라지도 않아요. 정말 근처로 윙윙리 있잖아요. 윙윙리 가서 엠티 하듯이 캠프하는 것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고." (참여자 9)

"그게 오히려 추억이 많이 남아요. (중략) 너무 아쉬운 게 제 주변에도 언니들 이렇게 좀 대학 간 언니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너무 많이 못한 게 많은데 이제 만약에 그때(청소년 시기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그래도 뭔가 좀 나중에 생각했을 때 그때는 진짜 재미있게 놀았구나 그런.. 꿈드림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데가 있으면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참여자 11)

이러한 진술은 청소년의 주체적 제안과 선택권 보장이 프로그램 참여 지속성과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특히 또래 집단의 존재와 교류는 프로그램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또래끼리 하면 말도 통하고 부담이 없어요. 끝나고도 연락하게 돼요." (참여자 6)

"또래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든든하잖아요. '같이 활동 할래?' 하고 오면 이제 (꿈드림을 방문하는) 빈도가 확 높아질텐데.. 근데 또래 친구 한 명이 없는 상태, 그리고 활동이 이제 교류가 없다라고 하면 문턱이 높아지니까 상담을 이용하는 빈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중략) 또래끼리 정서를 교류할 수 있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 (참여자 9)

"그게 먼저 돼야 공부가 돼요. (맞아요.. 이구동성) 저도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학교 나왔을 때 막막했거든요. 근데 그 막막했던 게 하나가 친구 관계예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친구 어디서 보지? 이게 제일 클 거예요. (중략) 학교 그만두게 되면 친구를 어디서 만나지? 이것 제일 많이 고민해서 학교에서 좀 버티다가 진짜 아니겠다 해서 나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참여자 11)

또래 집단은 청소년에게 단순한 교류를 넘어 정서적 안전망이자 프로그램 재참여를 유도하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단순히 프로그램 제공 공간이 아니라, 또래 관계망과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3) 생활세계와 연계된 진로 및 시민성 발달 요구

참여자들은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문제들 즉, 진로준비, 아르바이트 경험, 시민성 교육 등의 공백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요구하였다.

“여기 다니는 친구들 얘기에 따르면 알바나 일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구요. 아무래도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인식도 있고, 알바를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하게 된다면 또 이게 사장님들이 약간 자퇴 성향을 좀 이용해서 좀 안 좋게 하시는 것도 있고, 또 근로시간을 어기는 그런 법적인 관념이나 아니면 알바나 뭐 이런 데서 구하면 편하다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그런 수업이나 경제교육 같은 것을 한 번 해주면 좋겠어요.” (참여자 10)

“여기 들어오면서 느끼는 게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 여기는 필요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말을 되게 심하게 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장애인 차별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든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가 아니고 활동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말을 되게 막 하거든요.” (참여자 12)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단이 있어요. 거기서 각 구마다 대표가 모여서 활동을 하다가 캠프에 가서 이제 전국에 있는 청소년단을 봤는데, 거기서 되게 독특하다 느꼈던 게 유일하게 한 지역에서 투표하는 거를 연습해 주는 그런 활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활동 되게 독특하다, 신선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딱 그 구 빼고는 민주적 시민을 위한 교육 또는 역사 의식 이런 거를 위한 교육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략) 어쨌든 꿈드림을 이제 나가서 사회로 나가야 할텐데 그냥 자격증 몇 개 얻고, 마음에 응어리는 안 풀린 채로 나와버리면 그것은 사실 꿈드림을 이용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9)

이들의 발언은 단순한 자격증 취득이나 체험활동을 넘어, 노동권·경제교육·시민성·사회적 권리 의식 등 통합적 역량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이 단발성 체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직결되는 문제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하면서도 그것이 단순히 연령별로 나누는 방식이 아닌 혼합적 설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지속성과 몰입의 관건은 또래 집단과 교류와 주체적 참여 보장에 있음을 명확히 드러냈다. 나아가 청소년들은 현실적 필요에 기반한 진로·경제·시민성 프로그램을 요구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사회적·정서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은 단순한 활동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연령과 수준을 반영한 맞춤형 운영, 또래 관계망 강화, 생활세계 기반 역량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라. 연령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구조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단순히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점으로만 동일시될 수 없는 집단이다. 실제로 이들은 연령대별로 심리적 발달 수준, 사회적 관심사, 진로 인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곧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요구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 참여자들의 발언 속에는 연령에 적합한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일관되게 드러났다. 특히 연구자는 면접 이후 후속 질문으로 “연령대별로 프로그램을 세분화해 운영한다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제시하여 응답을 얻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응답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었다.

1) 또래 중심 활동을 통한 몰입과 참여 강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참여자들은 연령대가 비슷한 집단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또래 간 소통이 원활해지고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며 참여 몰입도가 높아진다고 응답하였다.

“비슷한 연령대끼리 모이기 때문에 확실히 프로그램 진행이 편할 것 같다(연령대에 맞추어 설명하고 진행하는 방법이 통일된다). 그리고 경험상 비슷한 연령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참여할 때 부담감이 없는 듯 하다. 비슷한 연령대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따로 연락하거나 친해지기 편하다.” (참여자 6)

“연령대별로 프로그램을 세분화해서 운영했을 때 장점은 또래를 많이 만날 수 있고, 연령대가 비슷하다 보니 이야기하는 주제가 비슷해서 좋습니다.” (참여자 5)

“장점으로는 연령별 특성에 맞춰 각자에게 알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가능.” (참여자 4)

“일단 연령별로 프로그램이 나뉘지 않으면 이제 연령별로 필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연령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게 장점인 것 같고요” (참여자 12)

“제가 이제 19살인데 이제 친구들이랑 확실히 좀 관심사가 달라요. 이제 전 19살이지만 17살, 15살 이런 친구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어린 친구들은 기본 공부 그리고 습관이나 자존감 키우는 활동을 더 필요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여자 11)

“사실 연령대가 달라진다는 게 관심사도 달라지고 또 대화 방식도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건 연령대를 나누는 거 그리고 그 연령대를 나누면서 또래 친구가

생기면서 또 교류도 활발해지고 꿈드림 이용도 늘어난다는 게 장점인데...” (참여자 9)

“앞서 친구들이 말한 게 다 통합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연령대가 비슷한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 말이 통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진짜 확실히 그건 좋은 것 같은데...” (참여자 10)

이러한 발언은 청소년들이 발달단계에 맞는 활동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며, 그로 인해 주제에 몰입하고 또래 관계를 쉽게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연령 세분화가 심리적 편안함과 몰입도 향상, 또래관계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세대 간 관계 단절과 운영 여건의 한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참여자들은 연령별 세분화가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할 때만 얻을 수 있는 배움과 관계적 자산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인력과 예산 등 운영의 현실적 제약과 고학년에게 과도한 돌봄 역할이 전가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언니들과 오빠들이 많아서 부담스럽기도 하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그 안에는 배울 점도 있고 또 공부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도움받는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점 중 하나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연령대들과의 만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 사실 세분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별로 좋은 생각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 2)

“단점으로는 프로그램의 연령대별 구분이 너무 뚜렷하게 되면 다른 연령대 친구들과 소통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나 프로그램 편성에 예산과 인력 소모가 커진다는 점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4)

“연령대별로 프로그램을 세분화해서 운영했을 때 단점은 다양한 연령이 만나서 친해지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7)

“초등 연령대가 많지 않은 센터의 경우, 이 연령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되기 어렵다(아무래도 저연령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에는 참여 대상이 적기 때문).” (참여자 6)

“어린 친구들에게서 배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친구들에게서 배우는 게 있는데 그것이 좀 상쇄될 것 같아요” (참여자 12)

“단점은 앞서 말했지만 정말 한 학교만한 아이들을 4명의 선생님들이 다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눠진다면 선생님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9)

“챙겨주면 챙겨줄수록 제 할 일을 못하니가 저는 솔직히 그게 조금 불편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약간 좀 나이 있는 친구들한테 의지하고 맡기시는 경향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듯해요.” (참여자 10)

이러한 진술은 연령별 세분화가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닌 관계적·운영상의 어려움도 초래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청소년들은 연령 맞춤형 프로그램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연령이 어울려야만 얻을 수 있는 관계적 자산과 운영의 현실적 한계를 동시에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단선적 접근이 아닌, 연령 특화와 세대 간 통합을 병행하는 혼합형이 요구된다. 발달단계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본 구조로 마련하되, 일정한 영역에서는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류형 활동을 추가한다면 발달적 요구와 사회적 확장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제도적 조건과 정책 개선 방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보호와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그러나 단순히 단기적 보호를 제공하는 공간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참여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개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1) 청소년의 성장 경로를 연계하는 진로 설계 및 역량 활용 지원 방안

참여자들은 센터 내 경험이 끝난 이후 닥치는 삶의 공백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검정고시 이후나 자격증 취득 이후 무엇을 해야 할지에 막막하다는 진술은 현행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다음 단계를 충분히 준비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센터 나가면 뭐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배운 게 끝나면 그다음이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3)

“검정고시 이후에 뭘 해야 할지 감이 안 와요. 여기에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그다음이 뭘지 잘 모르겠어요.” (참여자 4)

“검정고시 이후에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끝나는 느낌이라서 그다음 좀 불안해요.” (참여자 5)

“자격증도 땀지만 그걸로 뭘 할 수 있는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냥 자격증 따는 데서 끝나는 느낌?”
(참여자 6)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뭔가 오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요. 몇 번 하고 끝나는 게 많아요.” (참여자 7)

“대학 목표인 친구도 있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취업 프로그램 같은 게 시센터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해봤었거든요. 했을 때도 이렇게 정확한 거는 잘 제공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취업 프로그램 같은 게 조금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10)

“저 같은 경우는 예술계 입시 쪽이잖아요. 예체능을 하고 싶어서 자퇴하는 애들이 실제로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체능계 자퇴생이 되게 많거든요. (중략) 근데 막 대학 관련해서 뭘 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따거나 막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참여자 12)

특히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과정은 단기 실적 제공에 머물러 진로 설계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까’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었으며, 이는 교육 내용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향후 프로그램 설계는 단순 이수 중심이 아니라 후속 경로와 실행 전략까지 포괄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듈형 학습, 자격증 취득 후 멘토링, 실습 연계, 진로 로드맵 등 장기적 지원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단순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연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이 요구된다.

2) 일상적 접근이 가능한 상담 및 정서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중기 및 후기청소년은 진로 혼란, 정체성 불안,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정기적 상담과 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담은 예약제로 제한되거나 대기 기간이 길어 즉각적인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냥 가끔 말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막 고민이 많은데 선생님이란 이야기하면 좀 나아지고... 그런 시간, 그런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 저번에 상담 신청하려고 물어봤었는데,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몇 주 뒤에나 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안 했어요.” (참여자 4)

“저 같은 경우 전화 상담을 드렸고 전화 상담으로 이제 저의 개인 정보 이렇게 다 받으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앞에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한 2주, 3주 하면은 연락이 와요.” (참여자 11)

“저는 바로 들어간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별하는 기준이 얼마나 위급한가 또는 빨리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콧드림 선생님께서 먼저 얘기를 드려서 제가 이러한 상황이다 하면 선생님 판단 하에 연계를 해 주고, 그런 선생님이란 있다고 상담에 들어가는 그 절차로 알고 있어요.” (참여자 9)

“이거는 전문가 좀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힘들거나 이런 좀 정서적 이런 상담 선생님도 너무 잘해 주시는데 이제 진로 쪽으로는 아직은 없는

거 같아요.” (참여자 11)

이는 상담이 위기 상황 대응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일상 속 정서 순환과 불안 완화를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제도로 자리해야 함을 보여준다. 예약제나 단발성 상담 중심의 구조는 청소년의 불규칙한 생활 리듬과 즉각적인 심리적 필요를 포착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상담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청소년의 심리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3) 정책 표준화와 제도적 보호 기반 강화를 통한 운영 지속성 확보

참여자들은 지역 간 프로그램의 격차와 정보 접근성 차이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 동일한 이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임에도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질과 범위가 지역 재정 규모, 담당자 역량, 행정 구조 등에 따라 크게 달랐다.

“친구들한테 들은 건데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거 되는데 저기는 저게 되고... 그런 거 좀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6)

“청소년 지원센터가 이런 체육 활동 프로그램 단순 재미를 위한 추억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정말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면 좋겠다... 내가 정말 보호를 받고 있구나, 내가 학교를 안 다녀도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다.” (참여자 2)

“서울 친구를 만났는데 거기는 교통비 뭐가 지원된다고 했어요. 멀리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친구는 여기까지 오는데 왕복 4시간이 걸리는 친구도 있고, 강화도에서 와가지고 그래도 여기 올 때 아무래도 성인용으로 내다보니 버스비나 교통비가 만만치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지원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인천시에서 같이 받았던 내용이었는데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말이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해 라는 말이었어요. 사실 대학 입시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점점 늘고 있는 상태예요.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도 모의고사 따로 신청을 해야 되고, 비용도 전부 부담해야 되고 그리고 연락이 안 와요. 제가 스스로 들어가서 교육 상태에서 봐서 따로 신청을 해야 되고... 수능 관련해서 지원은 아예 없어요.” (참여자 9)

“이런 예술적인거 문화 예술적인 활동도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9)

“예산 생각 안하고 말하겠습니다. 청소년 센터를 다 가보면 굉장히 구석진 곳에 있어요.” (참여자 9)

“학교 밖 청소년 시설이 남비시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외진 곳으로 가고 공장으로 가고 이러면서 청소년들의 위험도를 초래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면 이것을 개선하려면

솔직히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활성화를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12)

이러한 격차는 단순한 프로그램 다양성 문제가 아니라, 거주지에 따른 발달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문제다. 모든 청소년이 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최소 서비스 기준과 정책 표준화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참여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단순한 활동 공간이 아닌 제도적 울타리로 기능하기를 기대하였다. “내가 학교를 안 다녀도 보호 받고 있구나”라는 감각을 보장하는 것은 청소년의 권리와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일이다. 이는 단순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권리 보장으로서의 접근 전환을 요구하며, 국가적 책임의 강화를 통한다면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지속 가능한 학교 밖 청소년정책 운영을 위해서는 경로 연계 중심의 진로·역량 지원, 생활 밀착형 상담 및 정서지원 체계, 정책 표준화와 제도적 보호기반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확충이나 단기적 만족에 안주하지 않고,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고, 권리 기반의 제도적 울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3 시사점

본 연구의 면접조사 결과, 인천 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도권 학교에서 당연하게 경험되는 기본 교육 활동이 결핍되거나 단절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참여자들의 진술은 학업 복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으며, 청소년의 발달단계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경험과 활동이 누락될 경우,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적 유대감이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단순히 검정고시 준비나 학업 복귀 지원을 넘어, 모든 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한 기본 지원과 연령별 발달 과업에 따른 맞춤 지원을 동시에 체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향후 프로그램을 위해 8가지의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공통 프로그램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면접조사 결과, 학업 중단 청소년들은 연령과 상관없이 학습지원, 진로탐색, 정서상담, 생활지원과 같은 기초적 프로그램을 생존적 안전망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단순히 학업 성취를 넘어, 청소년이 고립을 피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전 연령대 청소년에게 적용 가능한 기본형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안정화해야 한다.

둘째,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정교화가 요구된다. 아동단계청소년(9~11세)은 신체활동·놀이 기회를 상실하면서 사회성 학습의 결핍을 호소하였다. 초기청소년(12~14세)은 또래 관계 형성 및 기초 진로 탐색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중기청소년(15~18세)과 후기청소년(19~24세)은 기초학습 보충, 검정고시 준비, 자격 취득과 같은 실질적 과업을 필요로 하였다. 이는 발달단계별 지원의 누락이 장기적 성취와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센터는 발달과업을 기준으로 한 차등적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셋째, 교육지원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지원은 검정고시 대비반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는 단기적 성과에는 기여하나 장기적인 학업 동기와 학습 역량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 참여 청소년들은 “중학교 수학에서 포기한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며 학습 부적응의 누적을 드러냈다. 따라서 기초학습 보충, 학습코칭,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온라인 학습 연계 등 교육지원의 다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학업과정에 토론, 프로젝트 학습, 시민성 교육을 접목하여 단순한 시험 준비를 넘어 학습을 통한 성장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립·진로지원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후기청소년은 “검정고시 이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을 공통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자격 취득이나 단기직업 체험에 머무는 기존 지원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직업훈련은 지역 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 장기 인턴십, 사회적 기업 참여 등으로 확대해야 하며, 자립지원도 단순한 취업연계에서 벗어나 주거·금융·건강·사회참여까지 포괄하는 생활 기반 자립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서·사회성 지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면접 결과, 또래 관계 단절로 인한 위축감과 고립 경험은 연령을 불문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정체성 형성과 사회성 학습의 핵심적 위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예술치유, 집단상담, 또래 멘토링, 체육활동 등 장기적·정규적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여 청소년의 정서적 회복탄력성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지역사회 연계와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인천광역시 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광역·기초 간 자원 불균형, 농어촌·도서지역 청소년의 접근성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다. 따라서 지역 대학, 기업,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농어촌·도서지역에는 이동형 서비스와 방문형 상담을 정규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센터는 단순한 기관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후기청소년(19~24세) 지원의 제도 확장이 필요하다. 현재 건강검진, 급식 지원 등 주요 제도가 18세까지만 적용되는 한계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후기청소년은 학업, 취업, 주거 등 다양한 과제를 동시에 맞닥뜨리는 시기이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적용 범위를

24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정책의 연속성과 포괄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이다.

여덟째, 권리 기반 접근의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복지 수혜 요구가 아니라 권리 보장의 결핍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상담·놀이·학습·사회참여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권리적 보장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 설계는 청소년을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위치시키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UN 아동권리협약의 교육권·참여권 보장 원칙과도 부합한다.

인천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단순한 학업 복귀와 단기적 지원을 넘어, 발달단계별 과업 보장과 권리 기반 접근을 핵심 원리로 삼아야 한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안전망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연령별 맞춤형 지원은 세분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은 학습 결핍을 보완하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며 장기적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역사회의 소외 집단이 아닌 성장 자원으로 재위치시키며, 결과적으로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한 사회통합과 시민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1. 프로그램 활성화 방향
2. 프로그램 활성화 전략
3. 신규 프로그램 제안(안)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1 프로그램 활성화 방향

가. 현황 진단 및 한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상담지원·교육지원·진로지원·자립지원이라는 4대 기본 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 왔다. 상담지원은 통합사례관리, 개인상담 이루다 프로그램, 학업중단숙려제, 심리검사, 보호자 상담 등을 통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기초적 기능을 수행한다. 교육지원은 스마트교실, 검정고시 지원사업, 학업 동기강화 프로그램, 재능멘토단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이 학업을 재개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진로지원은 자립동기강화 프로그램(두드림), 직업체험, 자격증 취득,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사회 진입을 위한 최소한의 직무 역량을 확보하도록 돕는다. 자립지원은 자아성장캠프, 청소년 자치활동, 기초소양교육, 문화여가 프로그램, 직접지원, 건강검진, 특화체육활동 등을 통해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홍보사업, 종사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비 지원, 외부지원사업(「꿈이음」 학습지원, 공예 동아리, 인턴십 등)과 같은 기반사업은 청소년 발굴, 지역사회 인식 개선, 실무자 전문성 제고 등 주요 기능을 보완하며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센터는 법률이 규정한 기본 기능을 충족하며 지역사회 청소년복지체계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현행 사업체계는 기능별 프로그램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다. 상담지원은 위기 개입과 학업 복귀에 편중되어 장기적 심리회복과 정체성 확립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 교육지원은 검정고시 합격률과 진학 성과에 치우쳐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 시민성 학습을 강화하지 못한다. 진로지원은 단기 직업훈련 중심으로, 장기적 경력 설계와 사회참여적 직업관 형성에

미흡하다. 자립지원은 기초생활 및 체험 수준에 머물러 연령별 맞춤형 자립 역량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보완적 기능 역시 단순 부수 사업으로 축소되어, 상담·교육·진로·자립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촉매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단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머무를 위험을 내포하며, 청소년을 장기적으로 자립 가능한 시민 주체로 육성하는 정책적 책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나. 프로그램 활성화 방향

학교 밖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단순한 학업 복귀나 직업 훈련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하며 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향하는 목적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기존의 지원 체계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청소년 성장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활성화는 단순히 사업의 수적 확대가 아니라, 전인적 성장 요인³⁾과 시민성 함양 요인⁴⁾이 내재화된 통합적 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첫째, 상담지원은 위기 대응 중심에서 청소년의 내적 성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기존의 일회성 위기 개입을 넘어, 정서회복, 자아정체성 확립, 회복탄력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심화 프로그램을 정규화해야 한다. 예술치료, 집단심리극, 회복탄력성 훈련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이 자기 이해와 감정 표현 능력을 높이도록 지원하며, 이를 기반으로 상담이 학업 및 교육, 진로 탐색, 자립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통합적 성장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교육지원은 단기적 성취 중심에서 민주시민 역량 함양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검정고시 준비 과정에 노동권 교육, 소비자 교육, 모의의회 활동, 지역사회 토론캠프 등을 결합하여

3) 전인적 성장 요인이란 청소년이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 영역을 균형 있게 성취하도록 지원하는 요인을 말한다. 이는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확립, 감정 조절 능력, 사회적 관계 형성, 신체 건강 증진 등을 포함하며, 교육·상담·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업 단절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달 과정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기 쉬우므로, 전인적 성장 요인을 지원정책에 통합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이 필수적이다(김희진, 조혜영, 한지형, 2023).

4) 시민성 함양 요인이란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민주적 가치와 공동체 의식을 습득하며,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정책적 요소를 말한다. 이는 권리 기반 접근(Rights-Based Approach)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참여권, 평등권을 보장하며, 모의의회, 지역사회 봉사활동, 정책 참여 프로그램 등 실천적 활동을 통해 체득된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시민성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보호 대상에서 참여 주체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 통합을 촉진한다(최정원, 이인영, 2024).

청소년이 학습을 통해 권리와 책임,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득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다문화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학습 접근성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셋째, 진로지원은 단순 직무 기술 습득을 넘어 사회참여형 진로교육으로 발전해야 한다. 지역 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사회적 기업 탐방, 청소년정책 제안 활동을 통해 직업을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자기실현과 사회적 기여의 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 금융·주거 역량 강화, 사회 진입을 위한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성인기로의 원활한 이행을 돕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넷째, 자립지원은 단순 생활체험 수준을 넘어 권리 기반의 자립역량 강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연령별 발달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단계청소년은 생활습관 및 기초 자기관리 교육을, 초기 및 중기청소년은 대인관계와 사회성 발달을, 후기청소년은 주거·노동법률·건강권 교육을 중점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자치활동, 봉사활동, 문화예술 활동을 연계하여 청소년이 자신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각하고 사회적 소속감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건강 및 홍보지원 기능은 부수적 사업이 아닌 핵심 기반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정기 건강검진과 정신건강 클리닉은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확립되어야 하며, 홍보 및 인식 개선 활동은 권리 옹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활성화 방향은 단순히 기존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을 전인적 성장의 주체이자 시민적 참여자로 육성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으로 전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상담·교육·진로·자립·건강 및 홍보의 5대 기능을 중심으로 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상담-교육-진로-자립'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성장 경로를 형성하여 청소년이 자신의 발달 과정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보호 중심의 수동적 지원에서 벗어나 권리 기반의 참여 중심 지원으로 전환하여, 청소년이 단순히 관리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이주배경 청소년, 장애 청소년, 경제적 취약계층 등 다양한 집단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높여야 한다. 더불어 건강검진·정신건강 클리닉·권리옹호 캠페인 등 건강 및 홍보 기능을 제도화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권과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은 단기적으로 기초 체계 확립, 중기적으로 서비스 연계와 시민성 교육 확산, 장기적으로 청소년이 정책 설계와 실행의 주체로 자리 잡는 3단계 실행 구조를 통해 실현되며,

궁극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에서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참여자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 V-1〉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이행 경로

기능 영역	단기 (1~2년)	중기 (3~5년)	장기 (5년 이상)
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 대응 중심의 기본 상담 체계 확립 초기 평가 도구 개발 및 사례관리 표준화 예술치료 개별 상담 프로그램 시범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서회복·자아정체성 확립 중심의 심화 프로그램 확산 집단심리극 회복탄력성 훈련 정규화 학업·진로·자립 연계 통합 상담 모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상담 시스템 도입 지역사회 연계 정신건강 클리닉 네트워크 구축 '상담·성장·사회참여' 통합 성장 경로 완성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정고시 준비 프로그램 확대 학습 코칭 및 개별 학습 진단 체계 구축 다문화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한국어 집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과정에 노동권·소비자 교육, 지역사회 토론캠프 결합 온라인 학습 플랫폼 및 혼합형 학습 시스템 구축 학습 접근성 격차 해소 위한 지역 맞춤형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인교육 기반의 시민교양 프로그램 완성 학업-진로-시민성 연결형 커리큘럼 제도화 지역사회 학습 생태계와 통합 운영
진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직업훈련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확대 현장 중심 직무 교육 제공 후기청소년 대상 노동법 기초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운영 사회적 기업 탐방·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금융·주거 역량 강화 교육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주도형 사회혁신 프로젝트 상시 운영 정책 제안 및 참여 활동 제도화 '생계수단' 중심에서 '사회적 기여·자기실현' 중심으로 전환
자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생활습관 교육 및 자기관리 교육 제공 사회성 발달 중심의 그룹 활동 운영 봉사문화 활동과 연계한 자립 경험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대별 맞춤형 자립 교육 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단계: 기초 - 초기·중기: 사회성 - 후기: 주거·노동·법률·건강권 자치활동과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정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리 기반의 자립정책 체계화 청소년이 스스로 서비스 기획 및 운영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델 구축
건강 및 홍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 건강검진 실시 정신건강 상담 및 클리닉 시범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리옹호 캠페인 본격 추진 청소년 인식 개선 홍보 전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권 보장 제도적 장치 완성 지역사회 중심의 권리옹호 및 참여 거버넌스 체계 확립

2 프로그램 활성화 전략

인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방향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였다. 이제 본 장에서는 그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상담, 교육, 진로, 자립, 건강 및 홍보의 5대 기능 영역을 중심으로, 단기·중기·장기의 발전 단계를 고려한 전략을 도출하였다.

가. 상담지원 기능의 활성화 전략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상담지원 기능은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학업 복귀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상담지원은 단기적 위기 개입과 문제 해결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며, 발달단계별 요구와 장기적 성장 경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한다. 특히 학업중단 예방이나 즉각적 정서 안정에 치중되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확립, 회복탄력성 배양, 심리사회적 성숙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담아내지 못하는 점은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상담지원은 전인적 발달형 상담체계로 확장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정서 회복, 자아정체성 탐색, 회복탄력성 강화라는 다차원적 목표를 아우르는 상담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심리극, 회복탄력성 훈련과 같은 발달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청소년이 자기이해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상담실 안에서의 지원을 넘어서, 학업·진로·자립으로 이어지는 동기를 촉진하는 토대가 된다.

둘째, 상담지원은 연령별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발달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은 연령에 따라 정서적 요구와 과제가 뚜렷하게 구분되기에 상담도 획일적으로 제공되어서는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아동단계청소년(9~11세)은 정서적 안정과 생활습관 형성을 중심으로 하고, 초기청소년(12~14세)은 또래 관계와 사회성 훈련을 강화하며, 중기청소년(15~18세)은 학업·진로 상담을, 후기청소년(19~24세)은 자립과 사회진입을 준비하는 상담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화는 상담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상담의 결과가 교육지원·진로지원·자립지원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선순환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셋째, 상담 성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족·보호자 상담 병행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청소년 발달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가족 환경과 밀접히 연동되기 때문에, 부모 및 보호자의 참여 없이

상담성과가 장기간 유지되기는 어렵다. 부모상담 및 보호자 교육을 정례화하고, 가족치료적 접근을 도입하여 가정 내 갈등을 완화하며, 보호자가 상담 과정과 사례관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보호자의 책무와도 부합하며, 청소년정책이 개인적 개입을 넘어 가족 체계까지 포괄하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상담지원 기능의 활성화는 단순한 위기 개입을 넘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으로 작동한다. 전인적 발달형 상담은 내적 자원을 강화하고, 연령별 맞춤형 상담은 발달단계별 적합성을 확보하며, 가족 상담 병행은 환경적 지지망을 복원한다. 세 가지 전략을 통해 상담·학업·진로·자립이라는 4대 기능을 관통하는 통합적 구조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

나. 교육지원 기능의 활성화 전략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교육지원 기능은 검정고시 대비반, 스마트교실, 멘토링,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력 회복과 학업 복귀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러한 사업들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단기적 성취 위주의 운영에 머무르며 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교육지원이 시험 합격과 학력 인정에만 치중되어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력, 사회적 역량, 시민적 참여 능력까지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정책적 보완이 절실하다. 또한 이주배경 청소년이나 다문화 가정 출신 청소년의 경우, 언어적·문화적 장벽이 여전히 학습 접근성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세 가지의 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교육지원은 학업과 민주시민 교육의 융합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검정고시 대비와 대학입시 지원 같은 기존 프로그램에 노동권 교육, 금융소비자 교육, 모의의회 활동, 지역사회 토크캠프를 결합하여 학습 과정이 곧 시민적 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학업 복귀를 넘어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며, 「헌법」 제31조(교육권)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사회적 참여 촉진)의 취지를 현실화하는 전략이다.

둘째, 다문화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어반과 다문화 이해 교육을 제도화하여 언어·문화적 격차로 인한 학습 장벽을 해소하고, 학습 접근성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문화 강사와 또래 멘토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은 청소년들의 상호문화 이해와 공존 역량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에서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므로, 이러한 학습지원 체계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셋째, 교육지원은 발달단계별 학습 단계화를 통해 차별화되어야 한다. 아동단계청소년(9~11세)은 기초학습 보충과 학습 습관 형성을, 초기청소년(12~14세) 및 중기청소년(15~18세)은 검정고시와 입시 준비를, 후기청소년(19~24세)은 대학 진학과 직업 연계 학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단계적 구조화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과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이론에도 부합하며, 교육지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한다.

교육지원 기능의 활성화는 학교 밖 청소년을 단순히 학력 취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넘어, 비판적 사고력과 시민적 책임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정책적 의의가 있다.

다. 진로지원 기능의 활성화 전략

진로지원 기능은 지금까지 직업체험,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연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 진입을 돕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현행 사업은 단기적 직무기술 습득에 치중되어 있으며, 청소년이 장기적인 진로설계와 사회적 기여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첫째, 진로지원은 사회참여형 진로교육으로 발전해야 한다. 단순한 직업체험과 자격증 취득을 넘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사회적 기업 탐방, 청소년정책 제안 활동과 같은 참여적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직업을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기여와 자기실현의 장으로 이해하게 하며, 청소년의 진로설계를 공동체적 차원으로 확장시킨다.

둘째, 후기청소년 특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후기청소년(19~24세)에게 노동법, 금융·주거 교육, 창업 지원, 사회적 일자리 연계 등 실질적 사회진입 역량을 집중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립능력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며, 사회 진입의 안정성을 높인다.

셋째, 진로지원은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대학, 기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청소년에게 지속 가능한 진로·취업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 구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을 지역사회 발전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며, 청소년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한다.

진로지원 기능의 활성화는 단기 성과 중심의 직무기술 습득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적

기여를 내재화한 장기적 진로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라. 자립지원 기능의 활성화 전략

자립지원 기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독립적 생활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어 왔으나, 주로 생활기술 습득과 단기 지원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청소년이 실질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 기반 자립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첫째, 자립지원은 연령별 맞춤형 자립훈련으로 체계화되어야 한다. 아동단계청소년은 생활습관과 자기관리 교육, 초기청소년은 또래관계와 사회성 훈련을, 중기청소년은 봉사활동과 리더십 훈련을, 후기청소년은 주거·노동·건강·법률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

둘째, 자립지원은 권리 기반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넘어, 청소년의 건강권·주거권·노동권 등 기본권 보장을 핵심 목표로 하는 자립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자립은 단순 생존 차원을 넘어 권리 기반의 사회적 자립으로 발전할 수 있다.

셋째, 자립지원은 공동체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청소년 자치활동, 봉사활동, 문화예술 활동을 자립지원과 연계하여 청소년이 사회 속에서 역할을 경험하고, 시민적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립지원 기능의 활성화는 단순한 생활적 안정이 아니라 권리 기반의 사회적 자립을 실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독립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이다.

마. 건강 및 홍보지원 기능의 활성화 전략

상담·교육·진로·자립지원이라는 4대 기능을 뒷받침하는 건강 및 홍보지원 기능은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부수적 사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건강지원, 홍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지속성과 질적 수준을 좌우하는 기반 기능이다.

첫째, 건강지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정기 건강검진, 정신건강 클리닉, 발달단계별 신체 프로그램을 정례화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전인적 발달의 기초를 다지는 핵심 전략이다.

둘째, 홍보 및 인식개선 지원 사업의 전략화가 요구된다. 단순 홍보를 넘어 권리옹호 캠페인,

지역사회 연계 아웃리치, 정책 홍보와 결합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건강 및 홍보지원 기능의 활성화는 단순한 보조적 지원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전반적 역량과 서비스 품질을 담보하는 핵심 영역이다. 이를 통해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안정적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다.

3 신규 프로그램 제안(안)

가. 상담지원

1) 「마음 다리 공감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와 가정이라는 제도적 울타리를 동시에 벗어나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급격히 축소되고, 또래 집단과의 연결이 단절되는 경험을 자주 겪는다. 이러한 고립은 자존감의 저하, 우울감, 무기력감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인천 지역 조사 결과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은 다양한 프로그램 중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이는 정서적 지지와 소속감 회복이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서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마음 다리 공감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이 안전한 집단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지지를 받으며, 다시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다. 대상은 아동단계 및 초기청소년으로 한정하며, 6~8명의 소규모 집단을 구성하여 주 1회, 총 10회 과정으로 운영한다.

초기 단계는 어색함을 해소하고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실시하며 미술 활동, 보드게임, 협동 활동 등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중기 단계는 청소년이 스스로 선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며 갈등, 진로 고민, 심리 불안 등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함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통해 자기 효능감과 문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킨다. 마지막 단계는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단절되지 않도록 온라인 소통 채널, 동아리 활동, 또래 멘토 제도 등 후속 지원 체계를 연계한다.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본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공감적 경험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다. 둘째, 또래와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하고 소속감을 강화한다. 셋째, 문제 해결 경험을 축적하여 스스로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자기 효능감과 대처 능력을 기르게 된다.

2) 「예술 치유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 중단 이후 불안, 우울, 자존감 저하 등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이를 표현하거나 해소할 기회를 갖기 어렵다. 특히 언어적 상담만으로 자신의 내적 경험을 충분히 드러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의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예술 활동을 매개로 한 치유형 상담 프로그램인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본 프로그램은 초기 및 중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 매체를 활용한다. 전문 예술치료사와 상담사가 협력하여 주 1회, 총 12회 과정으로 진행하며, 참여 청소년은 그림, 연주, 즉흥 연극, 신체 움직임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초기 단계는 감각 탐색과 창작 활동을 중심으로 심리적 긴장을 완화하고, 자기 표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인다. 중기 단계는 참여자가 자신의 작품과 경험을 집단 안에서 공유하며 정서적 통찰을 얻고, 자신의 내적 경험을 인식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또래 집단과 함께 협력적 예술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합동 벽화 제작이나 공동 연극 공연 등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며 협력과 소속감을 경험하도록 한다.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적 한계를 넘어선 예술적 표현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 둘째, 예술 활동의 몰입 경험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치유 효과를 제공한다. 셋째, 집단 내 공동 창작 과정은 유대감을 강화하여 단절된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하는 데 기여한다. 넷째, 프로그램을 통해 축적된 예술치료 경험은 학업 복귀, 진로 탐색, 자립 준비 등 청소년의 다음 성장 단계에서 자기 이해와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나. 교육지원

1) 「청소년 언어 교류 스튜디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 자극의 부족으로 인해 학습 동기가 낮아지며, 특히 글로벌 사회에서 요구되는 언어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정규 학교 교육에서 제공되는 체계적인 외국어 학습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일상의 언어 사용 환경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청소년의 자기 표현 능력뿐 아니라 진학, 취업, 국제 교류 활동 등 미래 진로 선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적과 언어가 공존하는 도시이므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언어 학습 경험 제공은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언어 교류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본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이 실제 언어 사용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외국인 유학생, 이주민, 국제교류기관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언어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대상은 15세 이상 청소년으로, 6개월 간 주 1회 이상 정기 모임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초기에는 청소년의 언어 수준과 관심 분야를 고려하여 또래 외국인 언어 파트너를 1:1 또는 소규모 그룹으로 연계한다. 이후 첫 만남에서 단순 회화 학습을 넘어 공동 목표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 다국어 홍보 콘텐츠 제작, 한국어·영어 자격시험 준비, 특정 주제 발표 자료 작성 등이 가능하다. 중기에는 정기 모임을 통해 회화, 글쓰기,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며 담당 멘토가 진도를 점검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종료 시에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결과물을 발표하고 우수 참가자를 시상함으로써 성취감을 높인다.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언어 교류 경험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실질적인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목표 설정과 협력 학습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셋째, 다양한 문화권의 또래와 상호작용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과 문화 간 소통 능력을 강화한다. 넷째, 청소년·지역사회·국제교류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확장되어 향후 청소년정책과 복지 서비스의 연계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2) 「청소년 디지털 안전 교육」

학교 밖 청소년은 디지털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마약, 도박, 불법 합성물 등 신종 범죄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크다. 그러나 범죄 예방 교육은 대부분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학교 밖 청소년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이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지 못하여,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에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 디지털 안전 교육」으로 명명하고,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지역 중독치료기관이 협력하여 실질적이고 참여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은 연 1~2회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단순 강의식 교육을 넘어 체험과 참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두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사례 중심 교육 단계는 경찰관이 실제 사건 사례를 소개하여 범죄의 발생 과정과 피해 양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실제적인 위험성을 체감하고, 범죄가 자신의 삶과 가까운 문제임을 인식하게 된다.

둘째, 참여형 학습 단계는 전문가의 지도 아래 청소년이 직접 토론과 사례 분석에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그 속에서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대응 방법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문제 해결 능력과 자기방어 역량을 실제로 훈련하게 된다.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은 신종 범죄의 유형과 심각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사회적 결과를 명확히 인식하게 된다. 둘째,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과 행동 지침을 습득한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 교육을 통해 기존의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디지털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

다. 진로지원

1) 「청소년 꿈드림(Dream) 페스티벌」

청소년은 폭넓은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와 접근성이 낮아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기 어렵고, 제한된 체험 기회 속에서 진로를 설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어려움은 청소년이 장기적인 진로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진학·취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내에서 제공되는 진로교육이나 체험활동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꿈드림(Dream) 페스티벌」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드림 페스티벌」은 인천 전역의 꿈드림 센터와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개최하는 대규모 진로 박람회이다. 박람회 개최에 앞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와 진로 검사를 실시하여 청소년의 관심 분야와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박람회의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박람회 현장은 체험 중심의 직업 부스로 구성된다. 요리, 정보기술, 영상 제작, 문화예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 부스가 마련되며, 각 부스에서는 직업 수행을 위한 기본 요건과 준비 과정, 필요 경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청소년은 직접 조리 실습, 영상 편집, 문화예술 공연 기획 등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 직업세계의 현실을 이해하고 자신의 적성을 탐색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진로 준비와 관련된 현실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상담존은 심층적인 진로 상담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청소년이 체험 후 느낀 점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 목표를 구체화하도록 돕는다. 진로 전문가와의 1:1 상담을 통해 개인의 강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진학취업 등 진로 설계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이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하거나 공연을 선보이는 성과 발표 공간을 마련하여 성취감을 경험하게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은 다양한 직업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둘째, 전문가와의 상담 및 실무자와의 만남을 통해 현실적인 진로 정보를 습득하여 자기주도적인 진로 설계 능력을 키운다. 셋째, 작품 전시와 공연을 통한 성취 경험은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소속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2) 「청소년 AI드림(Dream) 매니저」

학교 밖 청소년은 정보 접근의 기회가 제한되어 최신 직업 정보와 진학취업 관련 경로 탐색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난 이후, 진로 지도 교사나 학교 기반 상담 자원이 부족하여, 자신의 흥미와 역량에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 정보격차는 청소년의 진로 설계 능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취업 기회 축소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AI드림(Dream) 매니저」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본 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진로 탐색 플랫폼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플랫폼의 핵심 기능은 자기 탐색 검사와 챗봇 상담이다.

먼저, 자기 탐색 검사를 통해 청소년은 자신의 흥미, 성격, 가치관, 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받는다. 이후 챗봇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어 청소년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심 직업군을 탐색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챗봇은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청소년의 개별 특성과 목표에 맞춰 학업 및 직업 경로를 추천한다.

본 플랫폼은 고용노동부의 직업 전망 데이터, 국가자격증 데이터베이스(DB), 대학 및 전문학교 입학 요건 정보 등과 연계되어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은 특정 직업에 필요한 학력, 자격증, 경력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나아가 개인별 진로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여 청소년이 자신의 성장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진학·취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공간의 제약 없이 진로 탐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활용의 기회를 확대한다. 둘째, 청소년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고 목표를 구체화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디지털 활용 역량이 향상되고, 장기적으로 청소년의 정보화 역량 강화와 사회 적응력 제고로 이어진다. 넷째, 최신 직업 정보와 진학·취업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평등에서 벗어나 보다 공정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라. 자립지원

1) 「올 인원 취업 캠프」

학교 밖 청소년 중 취업을 희망하는 후기청소년은 진로 탐색에서부터 취업 준비, 실제 취업 과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 이들은 학업 중단 이후 진학이나 직업 훈련의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구직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기술 습득이 부족한 상태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취업 기회 축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 적응력 저하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진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인원 취업 캠프」를 제안한다. 본 프로그램은 단기간에 취업 준비의 전 과정을 경험하도록 설계된 종합 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이 단순 취업 기술 습득을 넘어 자신감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첫째, 외적 이미지 관리 단계는 면접에서 긍정적인 첫인상 구축과 자신감 형성을 위해 퍼스널 컬러 진단, 면접 복장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은 자신의 강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대인관계에서 자기 표현 능력을 향상시킨다.

둘째, 실전 중심 취업 훈련 단계는 실제 면접을 재현한 모의 면접과 피드백을 반복하여 실질적인 면접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또한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비언어적 표현 등 구

직 활동 전반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한다. 더불어 경제와 노동권 교육을 병행하여 근로기준법, 임금체계,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학습함으로써 노동시장에 대한 기본 이해를 높인다.

셋째, 정서 지원 및 사회성 훈련 단계는 취업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또래 및 지도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적 관계를 형성한다. 집단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 갈등 해결 능력, 자기조절 능력 등을 기르고, 이를 통해 직장 적응력을 높인다.

프로그램의 마지막에는 지역 기업 연계 활동이 진행된다. 지역 기업의 채용 설명회, 현장 탐방,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이 실제 노동 현장을 경험하고, 면접 및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은 단기간에 취업 준비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구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단순 기술 습득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적응력을 높여 직장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지역 기업과의 직접 연결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가능하게 한다.

2) 「생활 기술 아카데미」

학교 밖 청소년은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생활기술, 금융 관리, 주거 적응, 법률 이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취약성을 드러낸다. 학업 중단 이후 가정이나 학교의 보호 체계에서 벗어나면서 성인기로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경험할 기회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은 자립을 위한 기초 능력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채 성인기의 과업을 마주하게 되어 주거 불안, 금융 문제, 법적 분쟁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 기술 아카데미」를 제안한다. 본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이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생활 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도록 돕는 종합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중기 및 후기청소년이며, 4개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어 약 3개월 동안 운영된다.

첫째, 주거 관리 영역은 기본적인 주거 위생 관리, 안전 점검 방법, 임대차 계약 실습 등을 다룬다. 이를 통해 청소년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하고, 실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둘째, 금융·경제 생활 영역은 개인 예산 세우기, 통장 관리, 건전한 소비 습관 형성, 기초 재테크 등을 교육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와

저축의 균형을 이해하며, 장기적인 경제적 독립을 준비할 수 있다.

셋째, 식생활·건강관리 영역은 조리 실습과 식단 계획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영양 관리 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더불어 꾸준한 운동 습관 형성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정서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넷째, 생활 법률 및 권리 이해 영역은 청소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을 사례 중심으로 학습한다. 노동법, 청소년 권리,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을 다루며, 이를 통해 청소년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부당한 상황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다.

프로그램은 총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수자는 생활역량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인증서는 취업 지원, 주거 지원, 자립지원 서비스와 연계되어 청소년의 사회 진입 과정에서 객관적인 역량 증빙 자료로 활용된다.

본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는 첫째, 청소년의 기본 생활 능력과 자기관리 역량이 강화되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진다. 둘째, 금융과 법률 이해를 통해 사회적 권리와 책임을 자각하고, 부당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셋째, 건강한 식습관과 자기 돌봄 습관을 형성하여 신체적·정신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넷째, 생활역량 인증체계가 청소년의 사회 진입 과정에서 활용되어 자립지원 정책의 실질적 효과성을 높인다.

마. 건강 및 홍보지원

1) 「스마트 런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중 상당수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과도하여 신체 활동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체력 저하와 정서적 불안,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되면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단절, 스트레스 누적 등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또래와의 자연스러운 교류 기회가 적어, 건강과 사회성 취약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런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본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에게 신체 활동과 지역 탐방을 결합한 러닝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이 건강을 회복하고 또래와의 교류를 확대하도록 돕는다. 인천의 해안, 하천, 공원 등 지역의 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주 1~2회 집단 러닝을 진행하고, 연 1회 마라톤 대회 참가를 목표로 운영된다.

초기 단계는 기초 체력 측정과 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이후 단계는 점진적인 러닝 거리 확대와 함께 팀별 목표를 설정하여 청소년의 성취감을 높인다. 프로그램의 후반부에는 참가 청소년이

직접 훈련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서 자기주도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본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는 첫째, 청소년의 정기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체력을 강화하고, 러닝 활동 과정에서 또래와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는 것이다. 둘째, 야외 활동과 성취 경험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역의 해안과 하천, 공원을 탐방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회복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전인적 발달의 기반으로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학업 복귀와 자립,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건강지원 활성화 전략으로 작용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전」

학교 밖 청소년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과 사업 설계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한계는 청소년의 요구와 현장의 실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직접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정례화된 공모전을 제안한다. 본 공모전은 교육, 진로, 자립, 문화예술 등 청소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주제로 진행되며,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경험과 필요를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하도록 한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제안은 시범 운영으로 연계되어 실제 서비스로 구현한다.

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홍보 전략을 추진한다. SNS 채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유관기관, 지역사회 협력망을 적극 활용하여 인천 전역의 학교 밖 청소년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제안 과정에서 멘토링을 제공하여 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는 첫째, 청소년이 직접 정책과 사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주체적 참여를 보장하고, 당사자의 실제 요구에 기반한 현장 맞춤형 혁신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인천 전역으로 참여가 확산되며, 이는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자립과 성장에 기여하는 홍보지원 활성화 전략으로 작동하게 된다.

〈표 V-2〉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신규 프로그램 제안(안)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상담 지원	「마음 다리 공감 프로그램」	아동단계 및 초기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6-8명 소규모 집단상담 (주 1회, 총 10회기) 아이스브레이킹, 미술 보드게임 협동 활동으로 친밀감 형성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주제(갈등, 진로, 불안 등) 심층 대화 온라인 채널, 동아리, 또래 멘토 제도로 후속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립감 해소 및 소속감 회복 공감 경험을 통한 자존감 증진 문제 해결력 대처 능력 강화 지속적 지지망 형성
	「예술 치유 프로그램」	중기 및 후기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음악·연극·무용 등 예술을 매개로 한 심리치유 활동 개인·집단 작품 활동과 협동 프로젝트 진행 전문 예술치료사와 상담사의 공동 개입 자기표현·정서적 안정·스트레스 완화 중심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서 안정 및 심리적 회복 자기 이해와 자존감 강화 사회적 유대감 및 또래 관계 개선 장기적 회복탄력성 증진
교육 지원	「청소년 언어 교류 스튜디오」	학교 밖 청소년, 외국인 유학생·이주민 등 또래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유학생·이주민과 매칭하여 언어 교류 팀별 목표 설정(다국어 콘텐츠 제작, 시험 준비 등) 6개월 운영 후 성과보고회·우수 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 능력 향상 글로벌 감각 및 문화 간 소통 역량 강화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함양
	「청소년 디지털 안전 교육」	중기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경찰청·중독치료기관 협력 실제 범죄·중독 사례 소개 토론·사례분석 참여형 교육 연 1~2회 정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범죄·중독 위험 인식 제고 법적 결과와 예방 전략 학습 자기 방어 능력 대응 역량 강화
진로 지원	「청소년 꿈드림 (Dream) 페스티벌」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 전역 꿈드림센터·기업 협력 진로 박람회 수요조사 및 진로검사 기반 직업 부스 체험(요리·IT·영상·문화예술 등) 현장 종사자 멘토링, 심층 상담, 작품 전시·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세계 현실적 이해 확대 자기이해·진로 설계 역량 강화 성취감 및 지역사회 참여 경험
	「청소년 시드림 (Dream) 매니저」	청소년 (특히 정보 접근 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기반 진로 탐색 플랫폼 성격·적성·가치관 검사, 챗봇 상담 국가자격 DB·대학 입학 요건 연계 개인 맞춤형 진로 포트폴리오 자동 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격차 해소 맞춤형 진로·학업 경로 제시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 능력 강화
자립 지원	「올 인원 취업 캠프」	후기청소년 (취업 희망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적 이미지 관리(퍼스널컬러, 면접 복장) 실전 면접 훈련 및 피드백 금융 재테크·노동인권 교육 정서·사회성 집단 지원 기업 연계 면접 및 인턴십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 준비 역량 종합 강화 사회 적응력·자신감 제고 노동권 인식 확립 안정적 사회 진입 촉진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생활 기술 아카데미」	중기 및 후기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금융·법률·식생활·건강관리 등 생활기술 교육 • 실제 사례 기반 워크숍 및 실습 운영 • 생활역량 인증제 도입(출석·과제·실습 결과 반영) • 지역사회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금융 전문가 등)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생활 역량 확보 • 경제적 법적 권리 인식 강화 • 자기관리 습관 및 건강생활 정착 • 안정적 사회진입 기반 마련
건강 및 홍보 지원	「스마트 런 프로그램」	중기청소년 (희망자 확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1~2회 집단 러닝 • 지역 보건소·체육회 협력 안전 교육 • 연 1회 마라톤 참가 • 스마트폰 사용 최소화, 활동일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력 증진 및 정신건강 강화 • 스트레스 해소, 또래 유대감 형성 • 지역사회 소속감 회복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전」	청소년 (개인 및 팀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 직접 프로그램 아이디어 제안 • 교육·진로·자립·문화예술 등 주제 포함 • 심사 후 시상(대상·우수상 등) • 우수 제안은 시범 운영 • SNS·대중교통·유관기관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주체적 참여 보장 • 현장 맞춤형 혁신 프로그램 발굴 • 센터 인지도 제고 및 신규 청소년 발굴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가영, 이경양, 전하람 (2023). 학교밖청소년은 왜, 어떻게 대학에 진학하는가?: 학업형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 진로교육연구, 36(1), 21-44.
- 김희진, 임희진, 김정숙, 박소영 (2023).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김희진, 조혜영, 한지형 (2023).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021). 마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마포구청소년지원센터 2020년도 사업보고서·상담사례집.
- 여성가족부 (2023).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황.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5).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5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3). 2023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우수프로그램 사례집.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4). 2024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우수프로그램 사례집. 여성가족부.
- 인천광역시 (2025a). 2025년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2025b). 2025년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 인천광역시.
- 최정원, 이인영 (2024).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분석: 시민성 함양을 위한 학교 및 가정환경 내 지원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34(1), 163-196.
- 하승빈 (2024).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마약도박 예방교육' 운영.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하형석 (2020).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NYPI Bluenote 통계, 5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하형석, 이종원, 이정민 (2019). 학교 밖 청소년 추정치 추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언론보도 자료

- 글로벌뉴스통신GNA. 2024. 11. 20. 군포시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024년 집단프로그램 마음 치유 극장 성료.
<https://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354335>
- 시사일보. 2024. 3. 17.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마약도박 예방교육' 운영.
<https://www.koreasisailbo.com/1300869>

인터넷 사이트

- KYCI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s://www.youtube.com/live/F7PG0kfbq2w?feature=shared>
- 경기도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https://www.gpyf.or.kr>
- 교육기본통계 <https://kess.kedi.re.kr/index>
-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https://youtu.be/oIt9OKScKVA?feature=shared>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https://saha1388.kr>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https://www.gyeyang1388.or.kr>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http://www.nd1388.or.kr>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지원센터 <https://michu1388.michuhol.go.kr>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https://www.ysyouth.or.kr>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https://www.junggu1388.kr>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https://www.inyouth.or.kr>
인천광역시 청소년자립지원관 <http://www icyouthself.or.kr>
충청남도 천안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https://cayf.or.kr/cdream>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https://blog.naver.com/cnyouthdream>
푸른나무재단 <https://blog.naver.com/bakbht/22390881059>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s://www.youtube.com/@kyci1388>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http://www.jikimi.or.kr/pages.php?pcd=menu31>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연구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저 자 최 정 호, 정 경 희

발 행 인 김 경 신

발 행 일 2025년 10월

발 행 처 (재)인천여성가족재단
TEL. 032-511-3141, FAX. 032-517-1934
21338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39
<http://www.ifwf.or.kr>

인 쇄 처 DESIGN편집 032-710-6480

IFWF 연구보고서 2025-03

본 자료의 저작권은 인천여성가족재단에 있으며 무단 도용 및 복제를 불허합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본 인쇄물은 FSC 인증을 받은 친환경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출/무료
93330

9 791191 275797
ISBN 979-11-91275-79-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